

인도네시아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자카르타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3
- 한국과의 주요이슈 /10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14
- 주요 산업 동향 /22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7

III. 무역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9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30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32
 - 대한수입규제동향 /35
 - 관세제도 /38
 - 주요인증제도 /41
 - 지적재산권 /43
 - 통관운송 /45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9
- 외국기업 투자동향 /52
- 우리기업 투자동향 /54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6
- 진출형태별 절차 /61
- 투자입지여건 /64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74
- 조세제도 /77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78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80
- 물가정보 /82
- 바이어발굴 /83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92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98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00
- 이주정착 가이드 /102
- 출장가이드 /107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27
- 유관기관 웹사이트 /130



1992 Magellan Geographics/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국 기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홍백기)라고 불리며 붉은색은 용기(Berani)와 자유를 뜻하며 흰색은 고귀함(Suci)과 정의를 뜻한다.



13세기 마자파히트 왕조가 두 가지 색을 왕조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수마트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싱아망아라자(Sisingamangaraja) 왕조, 슬라웨시지역의 부기스 보네(Bugis Bone)왕조에서도 상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에 들어서는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 독립투쟁의 상징적인 깃발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1927년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창당한 국민당의 표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45년 8월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국기로 사용하게 되었다.

나. 국 장

인도네시아는 가루다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전설 속의 새를 국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새의 몸 속에 그려져 있는 다섯 개의 그림이 바로 Panca Sila(고대어: five basic principle)라고 불리는 5개의 건국 이념을 나타낸다.



첫 번째, 중앙에 있는 별 - 신앙의 존엄성
두 번째, 오른쪽 아래의 체인 - 인간의 존엄성
세 번째, 오른쪽 위의 나무 (브링인) - 통일 인도네시아
네 번째, 왼쪽 위의 물소 (반똥) - 민주주의 대의정치
다섯 번째, 왼쪽 아래의 벼이삭 - 사회정의 구현

두 발에 쓰인 'BHINEKA TUNGGAL IKA'라는 뜻은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이라는 뜻으로 광대한 국토에 다양한 민족의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몸의 금색 깃털에도 의미가 담겨있는데 날개부분에 17개, 꼬리에 8개, 목 부위에 45개의 깃털을 그려 넣어 인도네시아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1945년 8월 17일을 나타내고 있다.

다. 일반 사항

국 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위 치	동남아시아
면 적	190만 km ²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수 도	자카르타(인구 약 1,200만 명, 면적 661km ² -서울 면적 605km ²)
인 구	약 2억 3,000만 명(세계4위)

주요 도시	자와섬: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 수마트라섬: 메단, 팔렘방, 빠당 깔리만탄: 뽀띠아낙 솔라웨시섬: 마카사르 발리섬: 덴빠사르
민족(인종)	자바족(3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딕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언어	인니어(Bahasa Indonesia)
종교	이슬람교(86%), 기독교(6%), 가톨릭(3%), 불교(2%), 힌두교(1.8%)
건국(독립)일	1945년 8월 17일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 원수	대통령(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집권 1기 : 2004년 10월 ~ 2009년 10월 (임기 5년) 집권 2기 : 2009년 10월 ~ 2014년 10월 (취임일 10월 20일) (2009년 7월 8일 실시된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

자료: 인니 통계청, 인니 정부

라. 경제 지표(2008년 말 기준)

GDP	US\$ 4,330억 달러
실질경제성장률	6.1 %
1인당 GDP	US\$2,180달러
실업률	8.39%
물가상승률	11.1%
화폐단위	Rupiah(Rp)
환율	US\$1 = Rp 10,950
외채	US\$1,491억 달러
외환보유고	US\$ 516억 달러
산업구조	석유, 가스 산업, 농업, 제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
교역규모	US\$ 2,654억(수출 US\$ 1,367억, 수입 US\$ 1,287억)
주요 교역품	○ 수출: 원유, 가스, 임산물, 금속광물, 종이제품, 섬유, 신발, 혁제 ○ 수입: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 및 가정용전자, 전자부품, 유기 화학 제품

자료: 인니통계청, 인니정부

마. 한-인니 관계

체결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71.8) ○ 건설협력 양해각서(81.7) ○ 임업협정(87.6) ○ 항공협정(89.9) ○ 이중과세 방지협정(89.11) ○ 투자보장협정(91.2) ○ 법무자료 교환협정(96.12)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97.11) ○ 건설협력약정(99.4) ○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00.11) ○ 사법공조협정(02.3) ○ 자원협력협정(02.4) ○ 도로협력약정(03.1) ○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06.12)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06.5), 발효 (07.6)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체결(07.11), 발효 (09.5)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09.6)
교역 규모	'08년: US\$ 192억(수출: 79억 달러, 수입: 113억 달러)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인니수출(MTI 4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 편직물, 합성수지, 모니터, 휘발유, 아연, 동괴 스크랩 등 ○ 대 인니수입(MTI 4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펄프, 나프타, 천연고무 등
투자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2건, 3억 달러 (싱가포르, 일본, 영국에 이은 6번째 투자국)
교민	<p>약 3만 5,000여 명 추정 (자카르타 30,000명 이상, 수라바야 3,000명, 반둥 400명 발리 250명 족자 120명, 메단 60명 바탐 15명 등)</p>

자료: KOTIS, 인니 투자청

2. 정치 사회 동향

가. 인도네시아 역사

1) 인류 최초의 직립원인 자바 원인(Java Man)발견

- 두보아(Eugence Dubois)는 기원 100만 년 전에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Pithecanthropus Erectus)로 명명된 자바원인화석 발견

2) 고대왕국 시대

- 7세기: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 (불교왕조)
 - 7세기 말레이반도와 수마트라의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발흥
 -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국가 형태, 체계적인 통치술보다 무역에 필요한 배와 그 배를 보호하는 전함을 건조하는데 치중
 - 이를 바탕으로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위치를 점한 스리위자야 왕국은 해양무역의 통제권을 행사
- 13세기: 마자파히트 (이슬람 왕조) * 인도네시아 전역을 통일한 최초왕조
 - 13세기 아라비아 상인과 인도상인에 의해 전래된 이슬람을 수용,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기존의 불교, 힌두교, 애니미즘 등의 종교를 포용하였고, 14세기에는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말루꾸, 쑬바와섬에까지 세력을 확장, 이슬람교와 문화를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음.

3) 식민지 시대

- 1596~1942: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 1942~1945: 일본군 점령 시대

4)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대

- 1945.8: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독립 선언 및 헌법 채택.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취임
- 1945~1966: 수카르노 체제(Orde Lama-구질서)
 - 1949~1957: 의회민주주의시기
 - 1957~1966: 교도민주주의 시기(민족주의, 이슬람, 공산주의 융합)
 - 1955: 반둥(Bandung) 비동맹 정상회담개최 비동맹 운동주도

- 1963: 이리안자야 강제합병
- 1965: 9월 30일 공산 쿠데타 발생< 수하르토 장군 진압

경제 현황

-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주요산업의 국유화 조치
- 민족자본 부재 및 경제의 빈사상태
-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장기경기침체

- 1966. 3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수하르토 장군에 실권 이양
- 1968~1998: 수하르토 체제(Orde Baru-신질서)
 - 실용주의 정책
 - 군부의 이중기능(정치참여 허용)
 - 자바섬 인맥 중심주의
 - 화교의 정치활동 제한과 및 문화적 탄압
 - 정당정치의 변화(Golkar당 주도)
 - 1998년 5월 피플 파워에 의해 하야

경제 현황

- 세계자본주의로의 편입에 따른 시장경제도입, 경제개발정책 추진
- 서방세계의 차관원조,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규제 완화
- 1970~1980년대 고유가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
- 지역, 민족간의 경제 불균형심화,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 심화, 족벌체제 등장
- 1997년 경제위기

- 1998. 5월: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수하르토 실각 및 하비비 대통령 취임(과도정부)
- 1999.10월: 와히드 대통령, 메가와티 부통령 취임
- 2001. 7월: 부패혐의로 와히드 대통령 탄핵, 메가와티 부통령이 승계
- 2004.10월: 유도요노 대통령, 칼라 부통령 취임(5년 임기)
- 2009.10월: 유도요노 대통령, 부디오노 부통령 취임(5년 임기)

나. 유도요노 정권(2004~현재)

2009년도는 4월의 총선과 7월의 대선이 치뤄진 중요한 해로 총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의 민주당이 원내 의석의 26%를 차지해 제1당의 입지를 굳힌 가운데 유도요노 현 대통령도 62%가량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둬 오는 10월 집권 2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직 경제조정부 장관 및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부디오노를 부통령으로 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에 성공함으로써 2차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게 된 유도요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보다 적극적인 부패척결 및 개방, 개혁 정치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된 것으로 평가된다.

집권 1기(2004.10-2009.10) 동안 의회 다수당인 골까르당과의 제휴로 인해 부통령인 유습 깔라 골까르당 총재와 권력 분점 논쟁에 휩쓸리기도 했지만 이번 의회 및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치입지를 탄탄히 다진 유도요노 대통령은 집권 2기 동안 보다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실시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신생 민주당 후보로 출마, 과반수에 모자란 득표로 1위를 기록한 후, '현직' 대통령이었던 메가와티를 60 대 40의 큰 차 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취임 후 부정부패 척결 및 테러와의 전쟁 수행, 분리독립 투쟁을 지속해 온 아체지역 반국과의 평화 협정을 타결(2005.8) 하는 등 정국 안정에 매진하였다.

그의 경제정책 기조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표방하며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외자 유치를 적극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5년 초 자카르타에서 인프라 서밋을 개최하고 2006년 11월 '인도네시아 인프라 스트럭처 2006'의 개최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니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등 인근국가와의 외교관계 활성화에도 적극 참여, 인도네시아가 G20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끌어올렸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유류 보조금이 재정에 큰 부담을 주자,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과 10월에 유가를 29%, 125% 전격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 유류 보조금 축소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달성코자 하였다.

유가 인상의 여파로 물가가 상승하고, 은행이자율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2006년 상반기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어 인도네시아는 경기불황의 홍역을 치렀으나, 건전해진 경제 펀더멘탈의 뒷받침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되어 GDP 성장률이 2006년에 5.5%, 2007년에 6.3%로 성장세를 보이게 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에는 상반기중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및 연이어 불어닥친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금리정책을 통해 인플레이 불안 및 통화 불안을 성공적으로 잠재웠으며 특히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과감하게 유가인상 (4,500루피아→6,000루피아)을 단행하여 재정적자 축소 및 대외 신뢰도 증가를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2008년에도 6.1%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게 되었다.

압도적 승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된 제2기 유도요노 정부가 전방위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앞으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 신흥경제 4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도요노 정부는 지난 5년간 재무부와 중앙은행 등 경제부처에 대해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세계 경제를 강타한 금융위기 속에서도 올해 4%대, 내년에는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관료주의 타파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율을 6% 미만으로 낮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제2기 직선 대통령 선거를 별다른 소요 없이 무사히 끝내면서 국민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슬람 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제2기 유도요노 정부는 뿌리깊은 부패와 열악한 인프라, 광범위한 빈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인구의 14.2%인 3천300만명 가량이 하루 0.6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실업률도 8.2%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고위급 인사는 물론 사돈까지 구속하면서 꾸준히 부패청산을 진행해왔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부패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 유도요노 대통령 임기 중 해마다 발생한 메가톤급 자연재해

- 쓰나미(2004): 아체지역을 비롯한 수마트라섬 전역에 10만여 명의 피해자 발생
- 조류독감(2005): 첫 조류독감 사망자 발병 이후 2007년 말까지 100여 명 환자 발생
- 지진(2006): 족자카르타 지역을 강타 사망자 5천 명, 이재민 수만 명 발생
- 홍수(2007): 자카르타 대홍수로 35만 명의 이재민 발생

다. 정치 체제

1) 행정부

-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 부통령: 유습 칼라(Jusuf Kalla)
- 중앙부처 장관: 총 24명

인니 중앙 부처별 장관
Coordinating Minister for Legal,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Widodo Adi Sucipto]]
Coordinating Minister for the Economy: [[Sri Mulyani Indrawati]]
Coordinating Minister for People's Welfare: [[Aburizal Bakrie]]
Minister State Secretary : Ir. [[Hatta Rajasa]]
Minister of Home Affairs: Maj. Gen. (Ret.) [[Mardiyanto]]
Minister of Foreign Affairs: Dr. [[Hassan Wirajuda]]
Minister of Defense: Prof. Dr. [[Juwono Sudarsono]]
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 [[Andi Mattalatta]] SH., MH
Minister of Finance: Dr. [[Sri Mulyani Indrawati]]
Minister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Dr. Ir. [[Purnomo Yusgiantoro]]
Minister of Industry: [[Fahmi Idris]]
Minister of Trade: Dr. [[Mari Elka Pangestu]]
Minister of Agriculture: [[Anton Apriantono]]
Minister of Forestry: [[Malem Sambat Kaban]] M. Si.
Minister of Transportation: [[Jusman Syafii Jamal]]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Freddy Numberi]]
Minister of Labor and Transmigration: Ir. [[Erman Suparno]] M.B.A.
Minister of Public Works: Ir. [[Djoko Kirmanto]] Dipl., H. E.
Minister of Health: Dr. dr. [[Siti Fadilah Supari]]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 [[Bambang Sudibyo]]
Minister of Social Services: Drs. [[Bachtiar Chamsyah]]
Minister of Religious Affairs: [[Muhammad Maftuh Basyuni]]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Ir. [[Jero Wacik]] SE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f. Dr. Ir. [[Mohammad Nuh]] D.E.A.

2) 입법부

- 국민협의회(MPR)는 국회(DPR)와 지역대표자회의(DPD)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인원	권한
국민협의회(MPR)	692명(임기5년)	헌법제정 및 개정, 주요 국가정책 방향 결정 정·부통령 탄핵 등
국회 (DPR)	560명	입법권, 예산결정 및 집행감독, 행정부 견제 등
지역대표회의(DPD)	132명	지방행정, 지자체 관련 사업 및 예산, 입법권

- 정당별 국회의석 분포(2009년 총선 결과, 최종결과 미확정)

정당명	의석 수(총 560석)	주요 소속 정치인
민주당 (PD)	180	유도요노 현 대통령
골카르당 (Golkar)	125	깔라 현 부통령
투쟁민주당 (PDI-P)	111	메가와띠 전 대통령
정의복지당(PKS)	50	히다얏(국민협의회 의장)
국민수권당 (PAN)	28	수뜨리스노(기업인)
기타	66	-

3) 사법부

- 3심제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고 별도의 헌법 재판소가 있다.

4) 지방정부

-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의 섬에 총 33개의 지방자치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 5개의 섬: Java, Sumatra, Kalimantan, Sulawesi, Papua

인도네시아 33개 주명

	주명	주별 수도
1	Nanggroe Aceh Darussalam	Banda Aceh
2	North Sumatra	Medan
3	West Sumatra	Padang
4	Riau	Pekanbaru
5	Riau Islands	Tanjung Pinang
6	Jambi	Jambi
7	Bengkulu	Bengkulu
8	South Sumatra	Palembang
9	Bangka-Belitung	Pangkal Pinang
10	Lampung	Bandar Lampung
11	Jakarta Special Capital Region	Jakarta
12	Banten	Serang
13	West Java	Bandung
14	Central Java	Semarang
15	Yogyakarta Special Region	Yogyakarta
16	East Java	Surabaya

17	Bali	Denpasar
18	West Nusa Tenggara	Mataram
19	East Nusa Tenggara	Kupang
20	West Kalimantan (W.Borneo)	Pontianak
21	Central Kalimantan (C.Borneo)	Palangkaraya
22	South Kalimantan (S.Borneo)	Banjarmasin
23	East Kalimantan (E.Borneo)	Samarinda
24	North Sulawesi	Manado
25	Gorontalo	Gorontalo
26	Central Sulawesi	Palu
27	South East Sulawesi	Kendari
28	South Sulawesi	Makassar
29	West Sulawesi	Mamuju
30	Maluku (Moluccas)	Ambon
31	North Maluku (N.Moluccas)	Ternate
32	Papua	Jayapura
33	West Papua	Manokwari

라. 사회 동향

1) 인구 분포

-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 2억 3,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활한 국토를 따라 300여 개의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존재하고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성도 유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 분포

전체 인구: 총 226,882,925(2008년 기준)					
0~14 years	28.31%	남자	32,676,178	여자	31,551,663
15~64 years	66.70%	남자	75,667,722	여자	75,669,474
65 years and over	4.99%	남자	4,939,420	여자	6,378,468

자료: 인니 통계청

인도네시아 인구 관련 통계

인구 증가율	1.45%
출생률	인구 1000 명당 19.50 명
사망률	인구 1000명당 6.6명
영유아 사망률	신생아 1000명당 32.3명
평균 수명(전체)	69 세
평균 수명(남자)	67.1 세
평균 수명(여자)	71.1 세

자료: 인니 통계청

2) 지역별 특성

- 영토가 넓고 종족이 다양한 만큼 각 대륙별 민족별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대통령을 비롯하여 사회지도층이 가장 많은 자바(Java, Sunda)인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이다. 성품이 자상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깊이 있는 판단, 도량이 넓은 처신을 하며 보수적이다. 맛이 단 음식을 좋아하고 서둘지 않는다.

- 수마트라인 특히 북부지역사람들(Batak)은 거칠게 보이거나 사귄수록 관계가 돈독해지며 다소 직선적이다. 법조계, 군부, 종교계, 학계에 많은 많은 인사가 진출해 있고 과격한 인사도 있다. 이들은 한국인과 비슷하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며 활동적인 사람들은 대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
- 인구가 적은 술라웨시와 깔리만탄인은 정계와 군부에 매우 적은 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안배, 종교지도자에 대한 예우 등 정책적인 배려로 등용되고 있다.
- 흑인이 많은 파푸아(이리안자야) 티모르 등지 출신이 사회지도층이나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 수는 매우 적은편이나 최근 강인한 체력을 인정받아 체육선수로 육성되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화교의 위상

- 인도네시아 내 화교는 대략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은 화교 인구를 보유. 수하르토 대통령이 중국과 연계된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쿠데타를 진압, 집권한 후 화교들의 공직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주로 경제분야에 참여를 확대
- 화교들은 특유의 상술로 인도네시아 상권을 장악하여, 인도네시아 경제계의 대부분을 화교 자본이 좌지우지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화교들은 정, 관계 주요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 이들의 후원을 토대로 기업을 운영

3) 종교

- 인도네시아는 종교와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부처에 종교만을 관장하는 부처(Ministry of Religious Affairs)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인의 신분증에는 반드시 본인의 종교를 기입하게 되어있을 정도로 종교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고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어 기타 종교 활동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슬람교를 비롯, 기독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6가지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구비율로는 이슬람교(86%), 기독교(6%), 가톨릭(3%), 힌두교(1.8%)로 나타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인구 수를 자랑하는 이슬람 국가로 인구가 밀집된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에 소개된 것은 14세기경으로 인도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도 여타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음주를 금기시 하고 있으며, 하루 다섯차례의 기도와 금요예배, 단식월(라마단)을 지키고 있다.
- 기독교의 경우 네덜란드 선교사에 의해 16세기 초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20세기 들어 서양의 선교사들의 파송이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였다. 현재 술라웨시 지역과 파푸아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 가톨릭교의 경우 16세기에 말루쿠(Maluku) 섬에 도착한 포르투갈 선교사 프란시스 사비에르(Francis Xavier)를 통해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주로 파푸아와 플로레스 지방에 넓게 퍼져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인도네시아 관계

1) 외교 관계

- 1949.12월: 아국, 인도네시아 승인
- 1966. 8월: 영사관계 수립
- 1966.12월: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
- 1973. 9월: 대사급 외교관계수립

2) 정상간 교류

- 1981. 6월: 전두환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 1982.10월: 수하르토 대통령 방한
-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 1992. 9월: “노태우·수하르토 대통령 정상회담(뉴욕)
- 1994.11월: 김영삼 대통령 국민방문 및 제2차 APEC 정상회의 참석(보고르)
- 1999.11.27일: 김대중·와히드 대통령 정상회담(마닐라, ASEAN + 3 정상회담)
- 2000.2.10~11일: 와히드 대통령 국민방한
- 2000.11.27~29일: 김대중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민방문
- 2002.3.30~4.1일: 메가와티 대통령 국민방한(남북한 동시방문)
- 2003.10.6~9일: 노무현 대통령 ASEAN + 3 정상회의 참석(발리)
- 2004.11.29일: 노무현·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비엔티엔 ASEAN + 3 정상회의)
- 2005.1.5일: 이해찬 총리·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자카르타, 지진·해일 피해 관련 ASEAN 긴급 정상회의)
- 2005.11월: 유도요노 대통령 부산 APEC 정상회담 참석
- 2006. 3월: 김원기 국회의장 인도네시아 방문
- 2006.12월: 노무현 대통령 국민 방문
- 2007. 7월: 유도요노 대통령 국민 방한
- 2009. 3월: 이명박 대통령 국민 방문
- 2009. 6월 :유도요노 대통령 제주 한-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3) 대 남·북한 입장

□ 정책 기조

- 비동맹·중립 기조 하에 표면적으로는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우리와의 쌍무관계 증진이 인도네시아 국익은 물론 ASEAN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

□ 대 한국 관계

-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사회주의 성향으로 북한에 비해 약 10년 늦은 1973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 이후 양국 정상간 교환 방문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옴.
-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2004) 이후 APEC, ASENSA+3 등을 계기로 우리와 잇달아 정상 회담을 갖고 정치·경제 등 제분야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

-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간 미래의 발전 적 관계를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합의
-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양국간 에너지, 자원, 산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 2009년 6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양국간 실질협력이 정보·통신, 청정에너지 개발 등 신성장 동력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아가기로 합의

□ 대 북한 관계

- 수교(1964) 이래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 간 교환 방문을 통한 개인적 친분과 비동맹회원국으로서의 연대감을 토대로 우호관계를 유지
- 수하르토 대통령이 공산당 주도의 쿠데타(1965)를 무력 진압, 집권한 이후 철저한 반공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관계가 소원화
- 그 후 메가와티 대통령이 부친(수카르노 전대통령)과 북한의 친분을 감안, 북한을 공식 방문하고(2002), 퇴임 후에도 방북(2004)함으로써 양국 협력 관계가 정상화됨.
- 유도요노 정부 들어서는 경제·무역·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강화를 희망하고 대북 특사(2006), 파견 등 실질 협력을 모색

4) 이민 역사

- 1940년대 초: 일본징용 및 종군위안부
- 1960~70년대: 상사주재원 및 기업인
- 1980~90년대: 노동 집약 산업을 비롯한 현지 생산기지 진출
- 2000년대: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 금융기관, 자원개발 등 진출 분야 다양화

5) 한류 현황

-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축구를 좋아하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하였으며, SCTV의 '겨울연가' (2002.8) 방영을 계기로 한류스타 패션과 드라마 주 제곡이 유행
- 2005년 Indosiar 채널을 통해 방영된 '대장금'이 대히트를 기록하며 우리 문화와 음식에 대한 인식이 업그레이드 됨.
-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결성한 팬클럽이 2005년에 발족한데 이어 '반동 한사모(2006)', '인-한 친선협회'(2007)도 발족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

6) 주요 협정체결

- 1971. 8월: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 1981. 7월: 건설협력 양해각서
- 1987. 6월: 임업협정

- 1989. 9월: 항공협정
- 1989.11월: 이중과세방지협정
- 1991. 2월: 투자보장협정
- 1996.12월: 법무자료교환협정
- 1997.11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
- 1999.4월: 건설협력 약정
- 2000.1월: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
- 2002.3월: 사법공조협정
- 2002.4월: 자원협력 협정
- 2003.1월: 도로협력 약정
- 2005.12월: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 2006.6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
- 2007.6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 2007.11월: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체결
- 2009. 5월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발효
- 2009. 6월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

7) 양국 간 정기 고위급 회의

-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각료급)
-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회담(각료급)
- 한-인도네시아 임업위원회(각료급)
- 한-인도네시아 군사정보교류회의(국방부)
- 한-인도네시아 민간경제협력위원회(민간부문)
- 한-인도네시아 외교부간 정책기획협의(외교부)
- 한-인도네시아 도로교류 회의(건교부)
- 한-인도네시아 임업위원회(각료급)
-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외교부)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T/F (산업자원부)

나. 교역 규모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2008년 말까지 7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37%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은 2008년 말 기준 113억 달러로 '07년 동기 대비 24%가 증가하였다.

한-인도네시아간 교역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3
총 교역 (증감률)	8,590 (9.2)	10,045 (15.8)	13,230 (31.7)	13,722 (3.7)	14,884 (8.0)	19,254 (29.0)	2,908 (-41.1)
수 출 (증감률)	3,378 (7.4)	3,677 (8.9)	5,046 (37.2)	4,874 (△3.4)	5,770 (18.4)	7,933 (37.0)	1,024 (-32.5)
수 입 (증감률)	5,212 (10.4)	6,368 (22.2)	8,184 (28.5)	8,846 (8.1)	9,113 (3.0)	11,320 (24.0)	1,884 (-44.9)
무역수지	△1,834	△2,691	△3,138	△3,975	△3,343	△3,387	△860

자료: KOTIS

다. 한국과의 투자관계

연도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실현 및 승인 동향

연도	투자 실현		투자 승인	
	건수	금액(백만 달러)	건수	금액(백만 달러)
2004	60	63.1	212	420.4
2005	101	429.5	309	417.3
2006	140	475.7	312	887.2
2007	164	627.7	400	895.3
2008	182	301.1	-	-

주: 2008년부터 투자승인통계 미발표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실현은 182건 3억 1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 현황(실현 기준)

(단위: 천 달러)

산업 분야	2007		2008	
	투자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농업	-	14.0	-	-
축산업	-	-	-	-
임업	-	-	-	-
수산업	1	457	-	-
광업	3	6,899	3	16,100.0
1차 산업 소계	4	7,370	3	16,100.0
식품	3	4,932.1	1	4,000.0
섬유	36	53,802.8	31	49,915.0
가죽제품 및 신발	7	20,185.9	10	76,508.8
목재	4	3,165.0	3	1,595.5
제지 및 인쇄	2	4,908.3	4	1210.0
화학 및 제약	3	120,528.7	3	4,191.2
고무 및 플라스틱	9	4,78.2	8	11,906.9
비철금속	1	1,000	-	-
금속, 기계 전자	27	358,673.6	29	69,375.8
의료 및 정밀광학기계	-	-	1	1,500.0
자동차 및 수송장비	2	2,646.2	2	1,072.1
기타산업	7	5,493.2	8	2,715.6
2차 산업 소계	101	580,124.9	100	223,990.9
건설	2	2,349.3	4	9,631.3
무역	44	27,603.0	61	39,054.3
호텔 및 레스토랑	-	-	3	5,000.0
운송 및 창고	4	1,419.5	4	1,020.0
부동산 및 산업단지	1	2,270.7	-	-
기타 서비스	8	6,525.0	7	6,300.0
3차 산업 소계	59	40,167.5	79	61,005.6
전체	164	627,662.5	182	301,096.5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양 국가의 경제협력 강화활동과 맞물려 실현 및 승인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 우리나라기업의 인도네시아 관심 증가 등에 따라 당분간 투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1,350개사 내외로, 이중 제조업이 950여개 사, 기타 서비스업이 400개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한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수는 약 50만 명 정도로,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 활동 인구(약 1억 명)의 0.5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양 국가의 경제협력 강화활동과 맞물려 실현 및 승인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 우리나라기업의 인도네시아 관심 증가 등에 따라 당분간 투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투자 진출 기업은 섬유, 신발 등 인도네시아 내 노동 집약 산업 부문의 생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부터는 전자, 건설, SOC 등 기간 산업 분야까지 진출하고 IT 분야의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관련 업종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종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원분야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높으나, 아직까지는 소수 기업만 활동 중이다.

라. 대한 수입 규제 현황(반덤핑 피소 추이)

인도네시아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상품에 대한 13건의 반덤핑제소가 있었으며, 2009년 8월 까지 제소 중인 건은 없다.

이 중 Tin Plate, Carbon Black, 비코팅 인쇄용지 등 3건은 덤핑 판정이 났으며, 3건은 무형의 판정, 7건은 기각되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관

인도네시아는 거시경제면에서 볼 때는 1997~1998년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제 금융 불안,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지속적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6.1%의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09년에도 4%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년 최초의 민선정부인 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2006년 4/4분기 6%대의 성장을 달성, 2008년 3/4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항상 6%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왔다. 2006년 5.5%의 성장률을 달성한 이후 2007년에는 6.32%의 성장률을 달성, IMF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이 6%를 넘어섰다.

2007년에 들어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물가안정과 수출증대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2007년 초 9.5%에서 8.0%까지 인하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갔다.

2008년 들어서는 초반 유가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비용상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성장 침체를 우려해 금리인하 조치를 도입하는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자국화폐(루피아) 가치 절하 방지 및 인플레이 압력 완화를 위해 연초 8.0%의 금리를 연말 9.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6.1%의 고성장을 기록하는 성적을 보였다.

2008년 10월을 기점으로 세계경제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2008년 12월 들어 처음으로 기존 금리 인상 기조에서 벗어나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9.25%로 인하한 것을 시발점으로 2009년 들어 급격히 금리를 인하시켰으며 연초 9.25%이던 기준금리는 '09년 9월초 기준 6.5%로 2.75% 포인트나 낮아졌다.

2009년 중앙은행 기준 이자율 변동추이는 8.75%(01.07)→ 8.25(02.04)→ 7.75%(03.04)→ 7.5%(04.03)→7.25%(05.05)→7.0%(06.03)→6.75%(07.03)→6.5%(08.05)→6.5%(09.09)순이다.

이러한 급속한 금리 인하 추진은 달러화 해외탈출 러시가 진정되었으며, 인플레이 압력이 급속히 둔화되었고, 2009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2009년에도 4% 내외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조치를 취하는데 이어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안정적인 성장은 무엇보다도 유도요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내·외부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정치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 유가를 150% 이상 인상함으로써 정부의 유류 보조금을 대폭 축소시킨 점, 외국인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되는 투자 환경 개선과 부정 부패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석탄, 석유, 가스, 팜오일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인구 2억 3,000만 명이 받치고 있는 탄탄한 내수 시장이 경제 성장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자원,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투자 확대와 수출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고용 증대가 필수적이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현재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요 분야는 직물 및 직물 제품, 신발, 전자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석유화학, 철강, 양식업 등이다.

국내 자본 축적이 미약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투자환경 개선책이 실질적이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07년도 주요 경제 동향

2006년도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5년 10월에 단행된 국내 유가 인상 조치로 인한 침체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무려 150%에 달한 유가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한 금리 인상→이로 인한 소비 둔화 및 투자위축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4/4분기 이후 인플레이션 안정에 따른 금리 인하 및 정부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가 살아났고, 2007년 들어서 수출호조 및 투자증대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07년 말 기준 569억 달러까지 늘어 났으며 기준금리가 9.5%에서 8.00%까지 인하되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였다.

성장은 주로 원자재(석탄, 코코아, 팜오일 등) 국제가격 상승과 자동차, 오토바이, 휴대폰 등에 대한 커다란 지출증가 등에 기인한 바가 컸다.

인도네시아 주가도 4월에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2007년 말에는 2,700대를 넘어서는 등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였으며 통화인 루피아도 연중 9,000~9,400 루피아 대를 유지하였다.

□ 2008년 경제 동향

2008년 인도네시아는 초반 유가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비용상승으로 인해 각국이 성장 침체를 우려해 금리인하 조치를 도입하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오히려 자국화폐(루피아) 가치 절하 방지 및 인플레 압력 완화를 위해 연초 8.0%의 금리를 연말 9.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초 정부는 성장을 목표치를 6.2%~6.8%로 책정하였으나 이러한 인플레 억제정책 및 세계경제 후퇴로 인한 수출감소 등으로 인해 4/4분기 성장률이 다시 6%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6.1%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일일 2달러 미만 생활인구가 1억명을 상회하는 광범위한 빈곤층 때문에 기초식품가격 상승,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 운송수단(오토바이) 비용 상승 등으로 연간 물가상승률이 2007년의 6.6%에서 2008년 말 기준 11.1%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인플레 압력완화를 위한 금리인상 정책이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발 금융위기, 유가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민간 소비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으며, 대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2007년 대비 44%나 증가한 149억불을 기록한 것 등은 인도네시아가 2008년 6%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

미국발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파급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2008년 연초 고점(2,800) 대비 60% 이상 하락하여 2008년 10월 기준 종합지수가 한 때 1,100을 위협하기도 했다.

위험 자산 회피심리 및 달러화 수요 증가에 따라 루피아 약세가 큰 폭으로 진행되어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은 2008년 연초 달러당 9,100루피아에서 2009년 2월 기준 1만 2,000루피아가 약 30% 평가절하 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국의 투자은행 부실에 직접 노출된 위험자본은 대부분 외국계 은행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하락 및 환율 변동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접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원자재 관련 산업이 주축을 이루는 인도네시아 유가증권 시장의 특성 및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더 커다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2/4분기를 지나면서 인도네시아의 주식시장이 2,000선을 회복하는 동시에 달러화대 루피아 환율이 11,000선 밑으로 떨어지는 등 자본시장이 급속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09년 경제 전망

인도네시아는 2009년 들어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인도네시아 경제도 예년의 6%대 성장에서 4.3%(정부 목표)로 성장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비록 미국발 금융위기가 직·간접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주식시장 폭락, 루피아 가치 하락 등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 불안은 IMF위기를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불안심리와, 세계 경기 침체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자원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경제 하락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수출 감소를 빼놓으면 이러한 금융 불안이 실물경기 위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수출과 투자 부문의 위축에 따른 장기적 경기 침체에 대비해 이를 상쇄 시킬 수 있는 국내경기 부양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 은행은 연초 9.25%이던 기준금리를 9월초 현재 6.5%까지 끌어내리는 등 적극적인 실물경제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1월초 보조금이 포함된 유가를 리터당 4,500루피아가 500루피아 인하하고 전기료도 8~15% 인하하는 등 소비진작 기반을 확충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한편 여타 경제기구들의 2009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전망치는 OECD 3.5%, IMF 3~4%, ADB(아시아 개발은행) 3.6%, 모건스탠리 3.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경제 성장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4년 4/4분기 6.65%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4분기의 4.70%까지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였다. 이는 고유가와 그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으로 국내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때문이었다.

2005년에는 3월(29%)과 10월(126.6%)의 두 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국내유가 인상에 따라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소비를 위축시켰으며 이로 인해 2005년 및 2006년 성장률이 각각 5.7%, 5.5% 등에 머물렀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6년 2/4분기부터 유가인상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타기 시작하였으며 4/4분기 6.1%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성장률 6% 이상 시대의 기대를 안겨주었다.

2007년도 인니 경제는 금리 인하로 소비와 투자가 진작되면서 경제 전체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해외투자유치와 정부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6.32%의 성장을 기록, 당초 정부가 목표한 6.3% 성장을 넘어섰다.

2008년 들어서는 유가,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견조세를 보이고 투자 및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따라서 4.4분기 성장률이 다시 6% 밑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6.1%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2006(5.5%)				2007(6.32%)				2008(6.1%)			
분기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성장률	4.70	5.22	5.52	6.1	6.0	6.3	6.5	6.25	6.32	6.39	6.1	5.2

	2009(4.3%, 정부목표)			
분기	1/4	2/4	3/4	4/4
성장률	4.40	4.00	-	-

자료: 인니 통계청

주요 기관별 2009년 경제 성장률 전망(6월말 기준)

(단위: %)

기관별	인니정부	OECD	IMF	ADB
성장률	4.3	3.5	3.0-4.0	3.6

다. 무역

교역동향 부문 참조

라. 인플레이션

(2009년 동향)

2009년 들어서서 인플레이션은 급속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연말 예상 인플레이션은 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안정세 등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2009년도 인플레이션을 추이

(단위: %)

	20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인플레이션	9.17	8.60	7.92	7.31	6.04	3.65	2.71	2.75

자료: 인니 중앙은행

(과거 동향)

2006년 6.6%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7년에도 안정된 물가상승률 기조가 계속되면서 연말 인플레이션율은 6.59%로 당초 정부 목표치인 6.5%를 약간 상회하였다 2005년 10월의 유가 인상에 따른 여파로 2005년 인플레이션율은 17.1%에 달했으나, 2006년 이후 물가가 안정되면서 안정추세가 2007년까지 이어졌다.

2008년 정부는 당초 6.5% 목표로 하였으나 유가인상 및 국제원자재, 곡물가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증가로 목표를 수정하여 10%를 목표치로 하였으나,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11.06%를 기록하였다.

2008년도 인플레이션율 추이

(단위: %)

	2006	2007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플레이션율	6.60	6.59	7.36	7.40	8.17	8.96	10.38	11.03	11.90	11.85	12.14	11.77	11.68	11.06

주: 1년 전 대비 인플레이션율

자료: 인니 중앙은행

마. 환율

(2009년 동향)

2009년 들어 연초 달러당 13,000루피아 수준까지 상승했던 환율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도국 경제들이 버텨주면서 심리적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9월초 현재 달러당 10,000 루피아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2009년 들어 유가의 급속한 하락,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등으로 중앙은행이 단기에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한편,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세 진입 등으로 루피아 환율도 진정되고 있다.

정부는 달러당 10,000-10,500루피아 수준을 적정환율로 보고 있으며 급격한 루피아 절상에 대해서는 개입을 통해 저지해나가고 있다.

(과거 동향)

2007년 환율은 US1\$당 9,000~9,400 루피아 대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2008년에 들어서는 상반기까지는 9,200~9,300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9월 들어서는 미국발 금융위기 지속, 유가 급속 하락에 따른 대체 자원 가격 하락으로 인니 증시기 급속하게 하락하며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맞았다.

2008년10월 들어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10,000을 넘어 급속하게 11,000까지 치솟았으며 인플레이션도 11%대를 넘어섰다.

중앙은행은 2008년 초 8.0%이던 기준 금리를 루피아화 방어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연말에 9.5%까지 인상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으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다.

2009년 초 13,000을 일시 넘어서기도 했던 달러당 루피아 환율은

2007-2009년도 분기별 환율 변동 추이

(단위: 루피아/\$)

	2006	2007				2008				2009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8월
환율	9,020	9,075	9,039	9,137	9,419	9,217	9,225	9,378	10,950	11,575	10,225	10,060

자료: 인니 중앙은행 (주: 월말 기준)

바. 외국인 투자

인도네시아의 2008년 외국인 투자실현은 1138건의 투자 프로젝트에 148억7100만 달러를 기록해 2007년의 982건, 103억4100만 달러보다 156건 늘고 금액으로는 43.8% 증가했다.

내국투자는 2007년보다 1.6% 감소한 22억 6,000만 달러에 그쳤으며 내외국인 전체 투자 금액은 171억 3,100만 달러로 '07년 대비 20.5%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 실현 실적

투자실현	2006		2007		2008	
	건수	금액(백만 달러)	건수	금액(백만 달러)	건수(건)	금액(백만 달러)
	867	5,997.0	983	10,346.6	1,138	14,871

주: 금융 및 석유가스분야 투자통계 제외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주요 업종별 투자분포는 교통·통신 및 보관 35건 85억2990만 달러, 금속·기계 및 전자 141건 12억8,140만 달러, 자동차 및 운송장비 47건 7억5,620만 달러, 화학 및 제약 42건 6억2,780만 달러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 434건 99억2780만 달러, 서부자바주 293건 25억5,210만 달러, 반텐주 99건 4억 7,780만 달러, 리아우주 8건 4억 6,090만 달러, 동부자바주 73건 4억 5,730만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모리셔스 5건 64억7,790만 달러, 싱가포르 184건 14억8,730만 달러, 일본 130건 13억6,540만 달러, 영국 57건 5억1,340만 달러, 말레이시아 74건 3억633만 달러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82건 3억1,010만 달러를 기록해 건수기준으로 두 번째, 금액 순으로는 여섯 번째를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은 2009년 투자가 10.7~11.2%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7년 6.32%, 2008년 6.2% 성장했으며 올해는 당초 6.4% 성장 목표를 세웠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4.5~5.5% 수준으로 전망치를 수정하는 등 경제둔화에 따라 투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금리

1) 경상 수지

인니는 상품 교역에서는 2006년 297억\$, 2007년 327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비스 교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적자폭도 2004년 88억\$에서 2005년 91억\$, 2006년 99억\$, 2007년 119억\$로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04년 15.6억\$, 2005년 2.8억\$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에는 상품교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도 108.6억\$, 2007년 103.5억\$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에 들어서는 무역수지의 흑자폭 감소와 서비스 수지 및 자본수지 악화에 따라 1/4분기에 '07년과 비슷한 27억\$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4분기 10.2억\$ 적자, 3/4분기 9.4억\$ 적자, 4/4분기 2.2억불 적자를 기록하여, 2008년 전체적으로는 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2) 외환 보유고

2008년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는 516억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나 2007년 말의 560억 달러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외환 보유고는 2005년 말 \$342.7억에서 2006년 들어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 외자 유입 확대 등의 요인으로 2006년 말에는 \$425억까지 증가했다.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자 인니 정부는 IMF 차관을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 2006년 6월 중 전체 78억\$의 절반 수준인 37억\$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도 10월 중에 상환하였다.

외환 보유고 변동 추이

(단위: 억\$)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외환보유고	363.2	342.7	425.8	569.2	516.0

주: 말일 기준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내의 핫머니는 2007년 말 기준 약 453억 달러(자본시장: 335억 달러, 단기 공공채: 118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데, 자본시장에 투자된 핫머니 규모는 대략 주식 시장 시가총액의 20~25%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핫머니 규모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외환보유고 수준보다는 낮은 상태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로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는 255억 달러, 핫머니는 368억 달러에 다다른다.

3) 금리

인니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와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2005년 7월 이후 6개월 동안 무려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8.5%에서 12.75%로 4.25%p나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내수와 투자를 급격히 위축시켰었다.

인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가 안정선으로 유지될 때까지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다 2006년 들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5월 이후 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여 한 자릿수로 낮추었으며 2007년에도 7차례에 걸쳐 이자율 인하를 추가 단행해 8.00%까지 금리를 끌어내렸다.

2008년 들어 석유값 인상, 생필품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로 금리를 5월 다시 8.25%로 인상한 이후 유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 단행하여 10월에는 9.5%까지 올렸다.

그러나 고금리 정책이 환율방어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2008년 4분기부터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9년 성장이 5%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2008년 12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25%로 다시 인하하였으며, 이후 잇달아 금리를 인하하여 2009년 8월 기준 6.5%를 유지하고 있다.

12.75%('05.12.6) → 12.50%('06.5.9) → 12.25%('06.7.6) → 11.75%('06.8.8) → 11.25%('06.9.5) → 10.75%('06.10.5) → 10.25%('06.11.7) → 9.75%('06.12.7) → 9.50%('07.1.4) → 9.25%('07.2.6) → 9.00%('07.3.6) → 8.75%('07.5.8) → 8.5%('07.6.7) → 8.25%('07.7.5) → 8.00%('07.12.6) → 8.25%('08.5.6) → 8.50%('08.6.5) → 8.75%('08.7.3) → 9.00%('08.8.5) → 9.25%('08.9.4) → 9.5%('08.10.7) → 9.25%('08.12.4) → 8.75%('09.1.7) → 8.25%('09.2.4) → 7.75%('09.3.6) → 7.5%('09.4.3) → 7.25%('09.5.5) → 7.0%('09.6.3) → 6.75%('09.07.03) → 6.5%('09.08.05)

아. 실업률 및 최저 임금

1) 실업률

인니 통계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식 실업률은 2009년 2월 8.14%를 기록하고 있다. 인니의 실업률은 1980년 2%대에서 90년대 이후 계속 높아져 '99년 6.4%, 2001년 8.1%, 2003년 9.5%, 2004년 9.86%, 2005년 11.24%를 고비로 2008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실업률을 임기가 끝나는 2009년까지 5%까지 끌어내리겠다고 공약했었으나, 전체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과 농업 분야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실업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최저임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자카르타 지역의 2009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보다 10% 증가한 1,069.865루피아로 결정되었다.

연도별 최저 임금 변동 추이(자카르타 지역)

(단위: 루피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최저임금	591,0	631,0	671,6	711,8	819,1	900.6	972.6	1,069.9
증가율	71.6	6.8	6.4	6.0	15.1	9.95	8.0	10.0

자료: 자카르타 포스트

2. 주요 산업 동향

가. 농업

수하르토 정부 이래 최근 유도요노 대통령까지 약 50여 년간 인도네시아는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시행으로 농업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농업은 경제적 의미는 물론, 농업 생산양식이 나라의 문화, 종교, 사회구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도네시아 농업은 농업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쌀과 관련해서는 Bulog이라는 특별기구를 두고있다. 농업개발의 주요 목표는 식량자급을 위한 미국 증산과 수출 농산물의 증산 및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쌀 증산을 위하여 작물의 집약재배 토지의 집약적

이용, 품종개량, 비마스(BIMAS), 인마스(INMAS) 사업의 확대, 농업금융의 확대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의 경지 면적 구성을 보면 벼농사가 총 경지면적의 42%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옥수수 15%, 천연고무 11% 카사바 6%, 두류 3%의 순이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바이오디젤이 대체 가능 연료로 급부상하면서 전국 각지에 팜농장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향후 자트로파(피마자) 농원이나 카사바 농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향후 인도네시아 농업은 전통적인 벼농사보다 팜, 자트로파 등 바이오디젤과 카사바, 사탕수수, 옥수수 등 바이오에탄올 원료가 되는 농작물들이 주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천연고무나 카카오, 커피 등 인도네시아 주요 농산물의 국제시장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농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제조업

1) 석유산업

인도네시아 석유산업은 고용인력 120만 명에 연간 100억 달러를 수출, 석유, 가스를 제외한 전체 수출액의 15.1%를 점유하고 있는 전자산업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산업을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980년 대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고 우리나라 봉제기업들도 이때를 기점으로 인도네시아에 대거 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석유산업은 고용이나 수출창출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1998년 인도네시아 경제위기 발생후 사회간접자본 및 기업부문에의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석유산업부문에의 투자도 부진하여 인도네시아 석유산업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생산단가는 오히려 높아져 후발 개도국들에 의해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시장의 약 8%를 점하고 있는 폴리에스터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석유관련 기계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원료부터 의류완제품까지 연관업체간 수직계열화가 미비하여 원자재 조달에 시간 및 코스트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세계석유교역이 자유화 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한창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도 2006년부터 노후화된 설비교체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2007년 4월부터 석유설비교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과 EU로부터 앞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석유쿼터에 묶여있는 동안 인도네시아 석유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석유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석유산업을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산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2006년부터는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중고 석유설비 교체자금의 대출이자를 무상지원하는 재정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섬유설비 교체자금 지원은 2009년 7월을 기준으로 마감되었으며, 현재까지 동 시설자금 지원이 2010년도에도 지속될 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에 진출했던 봉재/섬유업체가 서서히 동남아지역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데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섬유산업 중장기발전전략까지 구축하면서 적극적으로 섬유/봉재산업 부흥을 도모하고 있어 섬유산업은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봉재업체들이 인도네시아의 수출 봉재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봉재산업을 뒷받침해 줄 고급 원사 및 원단 등 섬유산업이 따라준다면 한국 섬유/봉재산업의 제2 전성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섬유업계의 2005~2009년 평균 성장률 목표를 7.44%, 기계설비 개선 투자 197조750억루피아, 수출액 118억 달러 증가, 인력개발 160만을 목표를 삼고 지원정책을 계속 강화해 가는 중이며, 금년에 이미 110억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기술 개발 및 기계 교체, 인력개발, 우호적인 사업 분위기 조성, 클러스터(cluster) 시스템 개발 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된 2009년에도 섬유기계 교체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노후설비 교체기업을 선정해 이차지원이나 교체금액 일부를 정부재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2) 전기 및 전자산업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산업은 연평균 25%의 고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격히 발전하고있는 산업이다. 그 발전도 제조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생산품목이 크게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가전제품 이외에 컴퓨터 관련제품과 산업용 전자제품 등 보다 기술 집약적인 제품의 생산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전기 전자 산업의 발전은 주로 일본기업들의 진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현지생산, 판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LG는 인도네시아를 냉장고 등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하는 생산기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 (LGEIN)은 지난 2007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2007 프리마니야르타 어워드(2007 Primaniyarta Awards)' 최우수상을 2006년에 이어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에서 가전 및 전자관련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가전 연계사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향후 가전 및 전자분야 유망투자지역으로 성장해 갈 것으로 예상됨.

3) 자동차 산업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속히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도에 시행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는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 발전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은 현재 완성차용 부품을 들여와 조립생산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후 조건 및 도로사정, 정부의 조세제도에 의해서 승용차보다는 승합차 부문이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되었다.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부문에서 자립기술 구축을 위해 한국과 국민차사업 합작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정치상황과 맞물려 제대로 성과를 못내고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 현지생산 브랜드들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 한국, 유럽,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자동차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자동차 부품업계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 부품용 원자재 수입관세를 면제시켜주는 한편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인도네시아 제조법인 설립을 적극 장려해 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서는 현대와 기아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일부 모델을 CKD방식으로 조립해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대표적인 한국기업인 코린도그룹은 현대와 합작으로 승용차 부문의 제조법인을 설립해 2007년 4월부터 가동 중이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판매량은 2006년에 318,904대에서 2007년에 434,449대로 36.2%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장추세는 2008년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졌었다. 그러나 국제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말경부터는 자동차 판매가 30%이상 급락했다.

2008년 자동차 판매는 2007년 대비 40%가 증가한 60만 7천대로 사상최고 판매치를 기록해 업계를 고무시켰으나 2008년 12월 이후 자동차 판매가 급락해 금년 판매 목표는 40만대 수준으로 낮춘 상황이다.

2008년의 이러한 자동차 판매호조가 2009년에는 국제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위축 역풍속에서 약 30%의 판매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 예로 1사분기중 10만 260대 수준의 판매가 이루어져 '07년 대비 2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월부터 자동차 판매량이 '07년 대비 증가로 돌아서면서 우려했던 감소세가 꺾이고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4) 항공산업

항공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산업에 속한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발전은 하비비 주도하에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 아헨 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 슈미트 항공기 제작사에서 근무하던 중 수하르토 대통령의 간곡한 귀국요청을 받고 귀국해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한 하비비는 항공기산업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항공기 제작회사 (Industri Pusaawat Terbang Nusantara: IPTN)를 설립하였고, 첨단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으로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IPTN은 스페인의 CASA, 독일의 Messerschmitt 네델란드의 Fokker등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회사와 기술협력 기술이전의 형태로 공동제작을 하면서 항공기를 생산하기 시작, 1978년에 CASA와 공동개발한 35인승 프로펠러기(CN 235)를 시발로, 1990년 50인승 중형 수송기, 최근에는 64인승 터보프로펠러기 (N235)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N235기의 성공에 고무된 IPTN은 현재 130인승 초음속 제트여객기인 N2130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5)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 이후 석유화학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비료, 비누, 고무제품, 농약, 합성세제 등 농업용 및 소비자용 화학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단계였으나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전자산업 및 관련산업이 발전하면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또 원유 천연가스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드라마유 지역에 지난 2007년부터 한국 SK와 합작으로 ‘윤활기유’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원유 정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해 가고 있는 중이다.

6) 철강 산업

인도네시아의 철강산업은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 중점육성 전략산업의 하나로 지정되어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 제철공장건설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국영기업 PT. Kratatau Steel사가 인도네시아 전체 철강생산량의 90%를 점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소규모 민간업체가 주로 하청을 통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전자, 건설산업이 활기를 띄면서 철강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자국생산량은 수요의 30%에 불과,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대만, 러시아, 루마니아 등지로부터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어 Kratatau Steel사의 시설확장을 통한 제강능력을 추가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국내 철강석 산지인 칼리만탄 지역에 제철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는 등 철강산업 육성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포스코(POSCO)가 인도네시아의 국영제철소인 끄라카타우(KRAKATAU)스틸과 제철소 건설에 50억불 규모의 공동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완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인도네시아 철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

7) 목재 가공 및 제지산업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2위의 임산자원의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목재가공 및 펄프 제지업은 경제수준의 낙후, 수요의 부족, 관련산업의 미 발달로 인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1973년 국제 석유파동이 발생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원목의 개발 및 수출에 대한 제한과 목재 가공의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목재, 합판, 제지등의 목재 가공 산업이 활기를 띠어 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벌목과 불법 원목수출 등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벌목을 대대적으로 통제하면서 최근에는 목재 가공 분야에서 원목공급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벌목을 통한 목재산업 육성 못지않게 보호림 조성을 통한 삼림보호 및 육성으로 ‘기후협약’ 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적극 유도해 보려는 정책을 전개중이므로 목재가공 및 제지산업의 활성화와 배치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한-ASEAN FTA

2007년 6월에 발효된 ASEAN과 FTA에 따라, 2010년까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2.4%에 달하는 10,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철폐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7년에 64.9% (7,312품목), 2008년에 23.3%(2,616품목), 2010년에 4.2%(475품목) 등 순차적으로 관세철폐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관세 철폐 방식은 13%→10%→8%→5%→3%→0%식으로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해 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전체 품목수의 4.3%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2011년까지 관세를 20%감축하고, 전체 품목수의 3.3%에 해당하는 상품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 수입 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한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 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에서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FTA 포털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Form AK) 발급신청을 하고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하고, 아울러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FTA 전담직원제를 도입했다.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이 지난 2007년 6월 1일부로 발효된 이후 세관에서 처음부터 협정관세율 적용을 못하고 12월 3일부터 적용하면서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협정 관세율 기준으로 관세차액을 환급해 주도록 소급적용을 천명해 왔다.

또한 2008년에도 조정관세율표 발표가 지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AK-FTA양식)를 제출해 관세율 소급적용에 따른 관세차액 환급을 받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다.

2009년에 들어와서는 4년치 FTA관세율을 온라인 상에서 사전에 발표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관세율도 일반품목(Normal Track)에 대한 관세면제를 대폭 단행해 한국 수출업계에 큰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AFTA (아세안 역내 자유무역협정)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무역 보호정책과 지역주의의 대두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간에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로 만들어진 역내 자유무역협정이다.

1992년 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AFTA 설립에 공식 합의하였고, 1992년 12월 자카르타에서 AFTA평의회가 개최되어 CEPT 집행절차, 원산지규정, CEPT해설서 등에 대한 3개 실무협정이 체결된 후 1993년 1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다. 중-ASEAN FTA

2000년 11월 싱가포르 중-ASEAN 정상회담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중-ASEAN FTA를 포함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중-ASEAN FTA는 2002년 12월 캄보디아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본협정이 체결되었다.

2004년 11월 라오스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획에 합의하여 2005년 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하였다.

라. 일-ASEAN EPA 및 일-아세안 FTA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2007년 8월 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했다.

동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대(對) 일본 수출품 가운데 대부분인 9천275개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무관세 대상 품목 중 80%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는 향후 3~10년에 품목 별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서는 92%에 해당하는 1만1천163개 품목의 93%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무관세 품목 가운데 58%는 협정 발효 즉시, 나머지 품목은 향후 3~10년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동 협정은 2008년 7월부터 발효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강 등 한국과 경쟁분야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아세안FTA의 효과를 상당부분 잠식해 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일본과 아세안간의 EPA도 2008년 12월에 정식발효됨으로써 일본과 중국, 한국간의 FTA를 통한 재경쟁 구도가 정착되고 있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인도네시아 연간 수출액이 2007년에 1,141억 달러에서 2008년에 1,368억 달러로 19.9%가 증가했지만, 또한 연간 수입액은 2007년에 745억 달러에서 2008년에 1,288억 달러로 72.8%가 증가해 연간 무역수지흑자가 2007년에 396억3천만 달러에서 2008년에 약 8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2008년 비석유가스부분 수출액은 1,078억 달러로 '07년 대비 17.16%가 증가했고, 석유가스부분 수출액은 289억 달러로 '07년 대비 3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단위: US\$ 백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61,058	71,585	85,565	100,799	114,101	136,762
수입	32,551	46,525	57,547	61,100	74,473	128,791
수지	28,507	25,060	28,018	39,730	39,628	7,971

자료: 인니통계청

가.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국별 수출입통계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별 수출 현황

(단위/US\$ 백만)

순위*	국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71,585	85,660	100,799	114,101	137,020
1	일본	15,962	18,049	21,732	23,633	27,744
2	미국	8,767	9,868	11,232	11,614	13,037
3	싱가포르	5,998	7,835	8,930	10,502	12,862
4	중국	4,605	6,662	8,344	9,676	11,637
5	한국	4,830	7,086	7,694	7,583	9,117
6	인도	2,171	2,878	3,391	4,944	7,163
7	말레이시아	3,016	3,431	4,111	5,096	6,433
8	호주		2,228	2,771	3,395	4,111
9	네덜란드	1,797	2,233	2,518	2,749	3,926
10	태국	1,976	2,246	2,702	3,054	3,661

자료: 인니통계청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별 수입 현황

(단위/US\$ 백만)

순위	국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46,525	57,701	61,065	74,473	129,197
1	싱가포르	6,083	9,471	10,035	9,840	21,790
2	중국	4,101	5,842	6,637	8,558	15,247
3	일본	6,081	6,906	5,516	6,526	15,128
4	말레이시아	1,682	2,148	3,193	6,412	8,922
5	미국	3,225	3,879	4,057	4,787	7,880
6	한국	1,943	2,869	2,876	3,197	6,920
7	태국	2,772	3,447	2,983	4,287	6,334
8	사우디	1,967	2,712	3,384	3,373	4,805
9	호주	2,215	2,567	2,986	3,004	3,998
10	독일	1,734	1,780	1,457	1,982	3,069

자료: 인니통계청

나.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US\$ 백만)

구분(HS CODE)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수출	71,584.6	85,659.9	100,799	114,101	137,020
석유가스와 기타가스 (2711)	7,749.6	9,153.7	10,197.1	9,983.8	13,160.5
크루드오일(2709)	6,241.4	8,145.8	8,168.8	9,226.0	12,418.7
팜오일/부산물(1511)	3,441.8	3,756.3	4,817.6	7,868.6	12,375.6
석탄(2701)	2,758.1	4,354.1	6,082.5	6,697.4	10,488.9
천연고무, 발라타(4001)	2,181.3	2,583.9	4,322.3	4,870.5	6,058.2
동광과 그정광(2603)	1,802.4	3,310.9	4,646.1	4,212.6	3,344.6
석유코크스, 아스팔트 및 잔재물(2713)	20.0	24.1	22.56	972.87	2,360.8
야자유, 팜유(1513)	767.6	1001.5	887.2	1,568.2	2,193.1
주석의 괴(8001)	608.7	911.4	913.4	1,011.4	1,961.4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4802)	737.8	1,049.9	1,392.1	1,754.5	1,924.9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US\$ 백만)

구분(HS CODE)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수입	46,524.5	57,700.9	61,065.5	74,473.4	129,197
석유와 역청유(2710)	5,832.2	10,580.8	10,963.1	12,619.5	19,963.6
크루드오일(2709)	5,831.4	6,797.0	7,852.6	9,056.9	10,061.5
자동차 부품품과 부속품 (8708)	986.4	1,250.6	904.2	839.9	2,547.2
철 또는 비합금강(7207)	714.7	757.6	797.6	1,078.3	2,066.7
밀과 메슬린(1001)	838.6	799.0	816.1	1,181.3	1,975.5
전화기, 통신기기(8517)	94.6	174.9	257.4	730.9	1,891.4
동력항공기(8802)	216.6	440.2	902.5	1,537.4	1,852.3
화물자동차(8704)	352.6	720.4	507	691.1	1,850.2
자동자료처리기기(8471)	291.5	398.8	450.7	844.9	1,805.5
송신기기(8525)	831.7	913.6	733.2	1,130.7	1,704.8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5번째 교역 상대국이며,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11번째 교역 대상국('08년 기준)으로 성장하였다.

- 對인니 수출: 79억 3,000만 달러(경유, 선박, 편직물, 강판, 화학원료, 전자부품 등)
- 對인니 수입: 113억 2,000만 달러(가스·원유, 유연탄, 동광, 펄프, 목재 등)

한-아세안FTA발효- 2007년 7월 1일부로 한-아세안FTA가 발효되었고, 2009년 1월 1일부로 일반 품목(Normal Track)에 대한 관세면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향후 교역규모 성장이 예상되나, 최근 국제경기 침체가 교역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입 규모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금액	증가율	수입 금액	증가율
2001	3,279,783	-6.4	4,473,515	-15.4
2002	3,144,766	-4.1	4,723,422	5.6
2003	3,377,626	7.4	5,212,310	10.4
2004	3,677,740	8.9	6,368,132	22.2
2005	5,045,582	37.2	8,184,433	28.5
2006	4,873,522	-3.4	8,848,554	8.1
2007	5,770,618	18.4	9,113,843	3.0
2008	7,933,617	37.5	11,320,291	24.2
2009.3	1,023,858	-32.5	1,883,679	-44.9

자료: KOTIS

대 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770,618	18.4	7,933,617	37.5
1	경유	1,290,682	21.1	2,258,938	75.0
2	선박	94,655	2,644.9	537,197	467.5
3	편직물	338,446	22.1	454,012	34.2
4	합성수지	336,008	14.6	440,793	31.2
5	합성고무	88,046	16.8	195,987	122.6
6	휘발유	130,675	-29.2	180,357	38.0
7	열연강판	39,287	39.7	155,069	294.7
8	냉연강판	88,773	37.4	149,822	68.8
9	음향기기부품	116,333	-18.4	138,018	18.6
10	아연도강판	93,391	37.6	123,427	32.2

자료: KOTIS

대 인도네시아 수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113,843	3.0	11,320,291	24.2
1	천연가스	2,308,862	-18.3	2,564,556	12.4
2	유연탄	1,215,443	50.9	1,919,251	57.9
3	원유	1,022,651	-29.4	1,554,581	52.0
4	동광	644,249	-15.3	482,440	-25.1
5	펄프	336,703	7.3	385,199	14.4
6	나프타	335,904	485.8	375,702	11.9
7	천연고무	201,688	14.6	298,422	48.0
8	니켈과 및 스크랩	174,552	55,905.20	280,400	60.6
9	기타금속광물	197,747	25.3	276,752	40.0
10	암모니아수	96,874	4.7	179,189	85.0

자료: KOTIS

3. 수입규제제도

가. 관세장벽

-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부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을 비롯하여 타이어, 튜브, 가정용 전가기기, 일부 섬유류, 자동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협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CEPT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인하 대상은 농업, 서비스를 제외하고 자본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 가공 농산품, 기타 비 농산물 등이며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 국산자재 및 부품 사용비율이 40%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상품협정이 2006.8.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식으로 서명되었으며(태국 제외), 2007.4월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되면서 6월1일부로 정식 발효 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FTA 발효 후에도 재무부의 실행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세 철폐 및 인하를 7월1일부로 적용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아세안FTA 협정내용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23일부로 '2009년 한-아세안FTA 인도네시아 신규 관세율표'를 재무부 장관령 No.236/ MK.011/ 2008)으로 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부로 2009년 1월 1일부터 일반품목군의 관세를 면제시켰다.
- '2009년 한-아세안FTA 인도네시아 신규 관세율표'는 KOTRA 자카르타KBC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인도네시아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KOTRA 자카르타 KBC (www.kotra.or.kr/jakarta)
 - 인도네시아 재무부 웹사이트 (<http://www.tarif.depkeu.go.id/Decree/2008PMK236PMK011.pdf>)

나. 비관세장벽

-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FTA, 한-아세안FTA, 인니-일본 EPA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관리하는 다음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 허가(NPIK)를 취득해야 한다.
 -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직물 관련 제품, 옥수수, 쌀·벼,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
- 수입허가(NPIK)제도 이외에도 '선적 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아래의 여러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 화학제품 수입 시는 MSDS 반드시 첨부
 - 중고 기계 수입 시는 실 수요자 (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 전 검사(SGS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요망
 - TEXTILE을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 수입 시 선적 전 검사(SGS 검사) 요망.

-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 전 검사(SGS) 받아야 하며 수입 시 수입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 (전화, 모뎀 등등)
 -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 이 밖에도 수입 시 규제하는 사항이 적지 않다.
- 예: 무역 업체는 TEXTILE 원단 수입 불가. 실 수요자, 원단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 하여 수입 가능. 부직포의 경우는 종류가 다양하나 인니 세관 당국에서 순수하게 부직포로 인정을 하는 경우는 완전 부직포 상태의 부직포만 인정. 한 면은 부직포 다른 한 면은 직조된 천으로 코팅된 건 부직포로 불인정하여 통관 불가능한 사례 가끔 발생(불인정 시는 반드시 SGS 검사와 NPIK를 구비하여야 함으로 실제적으로 통관 불가능)
 - 인도네시아 세관은 FTA체결 이후에 세관의 대대적인 변혁을 통해 수입통관 제도를 강화하면서 검사대상 통관제품의 전수검사, 시중가격과 차액이 큰 제품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도/자기류 제품에 대한 종량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상들의 사업여건을 악화시키는 유/무형의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음.
- 상기 규제들 외에도 최근 들어 국제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보호를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달,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Listed/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2009년 1월부터 시행)
 -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2009년 2월부터 시행)
-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상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 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Tanjung Priok항구 (자카르타)
 - Tanjung Perak항구 (수라바야)
 - Belawan 항구 (메단)
 - Soekarno-Hatta 항구 (마카사르)
 - Dumai 항구 (리아우 지역) : 이 항구는 식음료 분야만 수입 허용.
- 또한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을 강화하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08년 8월 13일부터는 9개 품목을 추가하고, 2009년에 다시 2개 철강재 품목군을 추가해 총 45개 품목에 대해 SNI인증 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SNI 통관강제 대상품목

No	품목명	SNI 번호	제품 HS 번호
1.	Wheat Flour	SNI-01-3751-2000	HS 1101.00.10.00
2.	Fluorescent / ballast Lamps	SNI-04-6504-2001	HS 8539.31.90.90
3.	Ammonium Sulphate Fertilizer (ZA)	SNI-02-1760-1990	HS 3102.21.00.00
4.	Triple Super Phosphate/TSP Fertilizer	SNI-02-0086-1992	HS 3103.10.00.00
5.	Triple Super Phosphate plus Zn Fertilizer	SNI-02-2800-1992	HS 3103.10.00.00
6.	Compact NPK Fertilizer	SNI-02-2803-2000	HS 3105.20.00.00
7.	Ammonium Chloride Fertilizer	SNI-02-2581-1992	HS 2827.10.00.00
8.	Dolomite Fertilizer	SNI-02-2804-1992	HS 2518.10.00.00
9.	Potassium Chloride Fertilizer / Muriate of Potash/MOP	SNI-02-2805-1992	HS 3104.20.00.00
10.	Mono Ammonium Phosphate Fertilizer / MAP	SNI-02-2810-1992	HS 3105.40.00.00
11.	Urea Ammonium Phosphate Fertilizer / UAP	SNI-02-2811-1992	HS 3105.40.00.00
12.	Diammonium Phosphate Fertilizer / DAP	SNI-02-2858-1992	HS 3105.30.00.00
13.	Super Phosphate Fertilizer -36/SP-36	SNI-02-3769-1995	HS 3103.10.00.00
14.	Organic Phosphate Fertilizer for agriculture / Rock Phosphate	SNI-02-3776-1995	HS 3103.90.90.00
15.	SP-36 Plus Zn Fertilizer	SNI-02-4873-1998	HS 3103.10.00.00
16.	Borate Fertilizer	SNI-02-4959-1999	HS 2810.00.00.00
17.	Liquid Residual Amino Acid Fertilizer (Sipramin)	SNI-02-4958-1999	HS 3105.90.00.00
18.	Passenger Car Tire	SNI-06-0098-2002	HS 4011.10.00.00
19.	Truck and Bus Tire	SNI-06-0099-2002	HS 4011.20.10.00
20.	Light Truck Tire	SNI-06-0100-2002	HS 4011.10.00.00
21.	Motorcycle Tire	SNI-06-0101-2002	HS 4011.40.00.00
22.	Vehicle Inner tube	SNI-06-6700-2002	HS 4013.10.11.00
23.	Electronic AC Switches	SNI-04-6203.1-2001	HS 8536.50.61.00
24.	Plugs and Sockets	SNI-04-3892.1-2001	HS 8536.69.91.00
25.	M C B	SNI-04-6507.1-2002	HS 8536.20.00.00
26.	Fans	SNI-04-6292.2.80-2003	HS 8414.51.00.00
27.	White Portland Cement	SNI-15-0129-2004	HS 2523.21.00.00
28.	Pozolan(fly ash) Portland Cement	SNI-15-0302-2004	HS 2523.29.90.00
29.	Portland Cement	SNI-15-2049-2004	HS 2523.29.10.00
30.	Mixed Portland Cement	SNI-15-3500-2004	HS 2523.29.29.00
31.	Masonry Cement	SNI-15-3758-2004	HS 2523.90.00.00
32.	Composite Portland Cement	SNI-15-7064-2004	HS 2523.90.00.00
33.	Toughened(tempered) safety glass	SNI-15-0048-2005	HS 7007.11.10.00
34.	Laminated safety glass	SNI-15-1326-2005	HS 7007.11.10.00
35.	LPG Steel Cylinder	SNI-1452-2007	HS 7311.00.91.00 HS 7391.00.99.00
36.	LPG Steel Cylinder Valve	SNI-1591-2007	HS 8481.80.21.00
37.	Single Burner of Stove Gas Fuel	SNI-7368-2007	HS 7321.11.00.00 HS 7321.81.00.00 HS 7321.90.90.00
38.	Low Pressure Regulator of Stove	SNI-7369-2007	
39.	Gas Stove Hose	SNI-06-7213-2006	HS 4009.11.00.00 HS 4009.12.00.00
40.	Concrete Reinforced Steel	SNI-07-2052-2002	HS 7214.20.11.00 HS 7214.20.19.00 HS 7214.20.21.00 HS 7214.20.29.00
41.	Hot Rolled Concrete Reinforced Steel	SNI-07-0065-2002	HS 7214.99.10.10 HS 7214.99.10.90 HS 7214.99.90.10 HS 7214.99.90.90

42	Coil Concrete Reinforced Steel	SNI 07-0954-2005	HS 7213.10.00.00
			HS 7213.10.00.90
			HS 7213.91.00.00
			HS 7213.99.00.00
43	Zinc Galvanized Steel	SNI 07-2053-2006	HS 7210.41.10.00
			HS 7210.41.20.00
			HS 7210.41.90.00
			HS 7210.49.10.00
			HS 7210.49.20.00
			HS 7210.49.90.00
			HS 7210.30.10.00
			HS 7210.30.20.00
			HS 7210.30.90.00

- 그런데 상기 45개 품목군에 해당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출대상국의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표준관리기관의 Inspector들을 자비로 초청해 실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등 상당한 비용부담이 드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중이다.
- 더구나 최근에는 한국의 주력수출품인 철강부문에 대해서도 SNI인증강제를 추가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는 중이다.
- SNI 인증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니 정부 인증기관(LS Pro)에 규격인증신청서 제출
 -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인증비용 납부
 - 인증비용 납부 후 인증기관 현장 실사 실시 (인증 실사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현장실사를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은 의뢰사에서 지불)
 - 인니 샘플분석기관에 의뢰 인증기관 내부협의후 인증서(SPPT-SNI) 발급
 - 인증서와 추가자료 제출 후 산업부에서 최종인증서 발행
- SNI제도 강화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나 세관이 동 시스템의 도입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고, SNI인증을 얻기 위한 절차나 시간도 복잡하고 길어서 많은 업체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했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어쨌든 동 제도의 시행이 확정된 이상 이러한 품질규제를 우리 상품이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품목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수출품이 SNI강제인증 해당 제품일 경우 신속하게 인증신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2008년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1) 수입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에 ASEAN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 등의 수입규제 관련 조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반덤핑 제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2) 수입규제 내역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진행 상황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7.1	'04.9.16	관세율 7~10% 2009년까지 적용
비코팅 인쇄용지	4802.52	반덤핑	'03.2.10	'04.11.11	관세율 : 59.64% 2009년 까지 적용
Ceramic Tableware	6911, 6912	세이프가드	'05.5.13	'06.1.4	1차년도 1,200Rp/kg (2009.01~2010.01) 2차년도 1,150Rp/kg (2010.01~2011.01) 3차년도 1,100Rp/kg (2011.01~2012.01)

한국 상품에 대해 2008년 중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경우는 없었으며, 진행중인 건도 덤핑판정이 확정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산 복사/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판정을 다시 내린 것에 대해 WTO에서 한국의 반덤핑 재판정에 대해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 보복 관세를 추진할 수도 있도록 하는 판정이 난 바 있었으나, 별다른 보복조치가 없이 무마되었다.

3) 2008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아무런 공식적인 수입규제 제소사태가 없던 2007년과 달리 2008년에 들어와서는 한국산 제품 3건(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2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원래 2009년까지 7-10%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제경제위기를 맞아 타이어업계나 국내 관련 산업계의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 규제를 자발적으로 해제하였다

비코팅 인쇄용지(HS4802.52) HS코드 세번 변화되어 원래 기존의 반덤핑 대상인 비코팅 인쇄용지의 HS 번호는 4802.55.40.00, 4802.56.30.00, 4802.57.30.00) 등이었으나, 최근 관세율표상에서는 HS 번호에 일부 변경이 발생해 4802.55.90.00, 4802.56.90.00, 4802.57.90.00 등으로 세 번이 변경되었다

도기류 제품 (Ceramic Tableware)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관세율이 인하되어왔는데, 금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년간 kg당 1,200루피아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나. 2009년도 수입규제 현황 및 동향

아직은 인도네시아 기업이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활성화되지 못해 수입규제가 주로 일부단체나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말부터 본격화된 세계경기침체로 중국 등 후발도상국들의 제품이 선진국시장에서 선회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덤핑판매를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입규제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가 국제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게 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과 말레이시아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정식으로 개시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1) 수입규제 현황 - 철강재 반덤핑 조사 개시

2009년 4월 7일부로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정이 나서 본격적인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 국내외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최근에 각종 수입규제 장벽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사라서 반덤핑 판정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반덤핑조사 대상품목으로 통지된 제품군은 열연코일(HRC)제품으로 HS코드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철강재 반덤핑조사 신청 대상품목
- 7208.10.0000
- 7208.25.0000
- 7208.26.0000
- 7208.27.0000
- 7208.36.0000
- 7208.37.0000
- 7208.38.0000
- 7208.39.0000
- 7208.90.0000

2) 수입규제 동향

□ 비관세 장벽의 강화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가 체결, 발효되면서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이 빠르게 개방됨에 따라, 이를 커버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조치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통관 검사나 수입허가 절차 강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통관절차의 개선 및 선진화라는 명분하에서 수입을 위축시키는 조치들을 강화해 가는 중이다.

□ 품질기준 강화를 통한 수입규제

기존의 공산품 국가표준에 이어, 농산물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며, 당장 2007년에는 마늘, 2008년에는 사과와 코코아 등에 품질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8년 들어 그동안 전문성 미비로 대총 통관을 해 주었던 화학제품들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면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통관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3) 통상정책 방향

인도네시아 통상정책 기조는 FTA 활성화로 방향이 잡혀 있으나, 내수 시장 방어를 위한 틀로서 반덤핑 관정 등의 활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불거질 경우,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동북아 국가 제품을 타겟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4) 수입규제 예상품목

□ 수출 급증 및 무역수지 불균형 품목

최근 들어 한국의 수출이 급증한 품목으로는 텔레프린터, 페놀수지, 섬유원단,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한 품목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 업종별 협회 불만 품목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수입량 급증에 대해 불만이나 우려가 제기된 품목으로는 가전업계와 섬유업계가 지난해부터 세이프가드 발동을 주장해 왔다.

□ 자국 산업 육성 품목

또한 자국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 등 원자재 가공품, 제지, 농산물 등에 대해 수입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소비재 품목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비재 수입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면서 시중 소비자가격을 조사해 조정관세를 매기거나 종량세와 같은 추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소비재 수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5. 관세제도

가. 관세 분류방식

인니는 '89년부터 HS제도를 도입, 총 품목은 종전의 약 5,000개에서 9,100개 (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수입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2006년 이후 한, 중, 일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중-아세안FTA(2006년), 한-아세안FTA(2007년), 일-아세안FTA(2008년)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 추가되었다.

나. 관세율

1)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안정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2) 품목별 평균 관세율

수입관세는 수입품 관세평가액의 0~17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금번 FTA체결로 대한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면제가 되고 민감품목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가공도별 차등관세 적용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이다.

4) 실질관행과 관련 관세 절감 요령 및 특기사항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상 또는 기업 비즈니스맨들은 중국계로써 싱가포르 또는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로 일단 수입을 하여 하차, 보관한 후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환적 한 후 제반 선적서류를 교환하여 아세안 특혜관세 혜택을 받거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수입통로를 통해 관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많이 행해졌는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이 부패척결과 시스템개선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다. 관세평가제도

1) 관세산정 방식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89-90년 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관세율의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관세부과는 CIF 가격 기준
 - 관세금액 = 수입품 가격 X 관세율 X 관세 환율
 - 관세 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주 발표함

2) 관세부과 기준가액

- FOB가격기준으로 U\$5,000 이상인 경우, 수출시 SGS가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 시장 가격과 송장금액 중 높은 가격임.
- U\$5,000 이하인 경우, 송장금액, 단 송장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됨.
- 특히 동일한 품목이 수입될 경우, 예전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샘플 등으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다가 나중에 대량 수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려면 예전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관세와 벌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 요망.

라. 관세 환급제도

1) 일반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수입관세를 환급해주는데 이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완제품 및 원자재의 수입시 수입관세를 일단 납부하고 제조, 가공 및 수출 후 환급받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관세 환급 절차를 밟아 왔으나 PAKJUL 조치 이후 사전 유예가 가능하므로 (은행 보증서 이용) 통상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잠정 유예 통관이 된다. (수출 신고시 완전 해제)

2) 환급대상

물품의 수출전 3년 이내에 수입한 완제품 및 원자재로써 최종 제품이 수출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환급대상 제외 물품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 윤회유, 연료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3) 환급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수출 후 1년 이내에 제출
 - 수입관세 환급 신청서 제출(공통서류: Form E)
 - 수입증빙 서류
 - 수입되는 제품 및 원재료와 최종 수출품의 연계 증빙서류
- 환급 결정
 - 담당부서(P4BM)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 환급승인 시 신청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관련서류 확인 후 국영은행을 통해 지급

- 수입관세 환급지시서(SPMKBM)이 3부 작성
 - 원본: 신청인
 - 1부: 국영은행
 - 1부: 예산국장에 송부
- 환급금 지급
 - 국영은행에서 환급지시서의 진위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
- 인도네시아에서 관세 환급은 절차나 시스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 원산지 규정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이 미국, EU 수출 시 GSP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또 미국이나 EU에 섬유류를 수출할 때도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인니에서 통관 서류로서의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 후 관세 환급 신청 시에나 요구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한-ASEAN FTA 가 발효되면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당 원산지 증명서(AK-FTA양식)가 요구되고 있다.

바. 참고사항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전체 품목의 90%에 달하는 일반품목군(Normal Track)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들어 인도네시아 세관이 통관제품에 대한 과표선정에 대해 특별히 까다롭게 굴면서 내부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가격 허위보고로 몰아 조정관세와 조정관세액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물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수입규제나 통관강제국가표준(SNI Mandatory)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선적전검사나 품질인증마크를 통관 전제조건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도 관세정보와 더불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대비해야 한다.

6. 주요인증제도

가. 인증제도 관리기관: 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주소: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3rd & 4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Indonesia
- 대표자: Dr. Bambang Setiadi
- 전화: 62-21-574-7043
- 팩스: 62-21-574-7045
- e-mail: bsn@bsn.or.id
- Homepage: www.bsn.or.id

나.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 업체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 업체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체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부품으로 TV나 PC 등에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 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통관시 SNI인증강제 적용 품목군

동 제도의 적용품목군은 아래의 총 45개 제품군이다. 동 SNI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국 공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대략 3명을 3일간 파견)검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까지 수출자에게 부과한다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

- 1) 밀가루
- 2) 백열 전구
- 3) ~ 17) 비료 관련 제품군
- 18) 승용차 타이어
- 19) 트럭 및 버스 타이어
- 20) 소형 트럭용 타이어
- 21) 오토바이용 타이어
- 22) 자동차용 튜브
- 23) 전기 스위치
- 24) 소켓, 플러그
- 25) MCB
- 26) 선풍기 (STAND 형 및 환풍기등의 모든 가정용 선풍기 포괄적 포함)
- 27) ~ 28) 승용차용 강화 유리
- 29) ~ 34) 시멘트 관련 제품군
- 35) ~ 39) LPG가스용기 관련제품
- 40) ~ 43) 철근 및 코일 등 철강제품 일부
- 44) ~ 45) 열연재 강판 및 갈바륨 철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표준규격인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를 열연재 강판(HR, PO, 후판) 및 갈바룸 철판(Aluminum Zinc Layer) 제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시행령을 산업부장관령으로 발표하였다.

금번 산업부장관령(No. 01/M-IND/PER/2009 및 No. 02/M-IND/PER/2009)은 2009년 1월 7일에 서명되어 열연재 강판 규정은 4개월 후부터 갈바룸 강판규정은 6개월 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2개의 국가표준규격(SNI) 강제인증품목 확대는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비즈니스경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라고 산업부는 강조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최근의 저가 수입 철강재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열연재, 갈바룸에 확대 적용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시키지 않고 수출국으로 되돌려보내거나 폐기처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 지적재산권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권 (14년), 상표권 (10년), 판권 (무기한), 산업디자인특허 (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팔리고 있으며, 영화 DVD는 한국 영화들 까지도 미화 1\$ 미만에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복제품은 속칭 도깨비 시장 등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 등의 간이 매장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 통상법 301조(지적재산권침해)상의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니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인니 법무인권부의 지적재산권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2005년 하반기부터 격상시키는 등 표면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해 왔으나 실질적인 억제효과는 별로 없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사이에 불법소프트웨어 비율을 2% 줄이는데 그쳤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월 1일 이후 2008년 초까지 경찰에 적발된 불법소프트웨어 제작이나 사용 건은 90건이었으나, 이중 재판을 받은 경우는 3-4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어쨌든 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와 경찰청이 협력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감으로써 2005년에 87%에 달했던 사업장의 불법 SW비율이 2007년까지 84%로 떨어진 것(세계 불법복제순위 12위)은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인지도 있는 쇼핑몰 구석구석에 불법 CD나 DVD를 파는 잡상인들이 넘쳐나고 있고, PS3나 Wii등 오락기용 게임CD의 불법복제품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태는 변함이 없다.

가. 상표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상표의 중요성을 크게 자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자기상표 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별도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1) 상표출원 등록 절차

- 소정 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 특허국에 신청
- 외국 소재 신청인은 반드시 인니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 신청 시 1주일 이내 상표출원. 등록 접수증 발급
- 상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며, 9개월 이내에 심사 종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출원자에게 통보하며, 출원자는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심사에 통과하면 3개월간 공고 실시하며, 등록에 이의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이의 신청 가능. 이의서 접수 시 2주일 내에 출원인에게 이의서 사본을 전달하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반박서 제출 가능. 이의서와 반박서가 접수되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 실시
- 공고기간 중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증 교부

2) 상표권의 등록유지

-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며 매 10년마다 갱신 가능. 보호기간 종료 12개월 전에 연장 신청

3) 우선 등록주의 채택

- PARIS 협약 가입국가, 또는 WTO 가입국가에 상표 등록을 마친자가 최초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니 지적재산권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하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
- 최초 상표등록을 출원한 국가에 출원한 일자부터 기산하여 인니에서도 상표가 이미 등록 되어진 것으로 인정

나. 특허

특정기간 동안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 권리이다. 발명자는 발명 자체에 대한 권리 이행자이면서 타인에게 동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취득조건

- 반드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한가지 발명에 대해 한가지 특허권 부여
- 법무성이 정해 놓은 비용을 특허국에 납부해야 함.

- 발명가 또는 일반인은 특허신청을 함으로써 동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영구거주자가 아닌 경우 PATENT CONSULTANT를 대리인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취소사유

- 특허권 승인일로부터 4년간 권리행이 되지 않을 경우
-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연간수수료(ANNUAL CHARGES) 납부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 특허사항이 다른 특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 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미 특허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자가 취소소송을 함으로써 특허가 취소됨.

3) 의장

- 상표권에 준하여 취급되며 등록절차 등 제반 사항이 상표권 담당기관인 특허국에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4) 저작권

다. 적용대상

- 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의 모든 창작물
- 비 인도네시아시민, 거주자, 법인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초로 창작한 것

라. 효력

- 책, 팸플릿, 논설, 강의, 연설, 통역, BATIK을 포함한 그래픽예술, 작곡, 건축술 등 최초로 등록된 창작물은 저자 생애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호받는다.
- 음악쇼, 전통음악 및 노래, 드라마, WAYANG 연극, 판토마임, 영화촬영기술, 비디오 녹화, 비디오녹화, 음향녹음 등은 최초 발표 후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 사진 촬영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번역, 각색 등은 최초 발표 후 25년간 보호를 받는다.

8. 통관/운송

가.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 개요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보세업체 통관과 비보세업체 통관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비보세업체 통관은 매 수입 건별로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수입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화물 수입을 할 수 있는 통관방식으로 보세업체가 되면 수입절차가 간단해지기는 하지만 내수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내수 혹은 내수와 수출을 겸하고자 하는 업체 및 완제품 수입을 하는 업체는 보세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업무를 진행한다.

□ 수입 통관시 사전 구비 허가서 종류

- APIT: 제조 업체용 수입 허가서
 - BKPM에서 발행하며 유효 기간은 항구적: 법인 소유자 외국인
- APIU: 무역 업체용 수입 허가서
 - BKPM에서 발행하며 유효 기간은 항구적: 법인 소유자 외국인
- APIU: 무역 업체용 수입 허가서
 - 상공부에서 발행하며 유효기간 5년 이후 재연장 해야하며 법인의 소유자가 인도네시아인인 경우
- NPWP: 납세자번호(세무등록번호)
 - 발행 기관: 법인 소재 관할 세무소 발행
- SRP: 세관에서 발행
 - 반드시 법인을 세관에 등록하여 발급 받아야 함. 없을 때에는 수입 통관 최초 1회만 가능, 추후 수입 불가능
- IT: 2009년 1월 1일부터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등록된 수입업자(IT: Listed/Registered Importers)만 수입을 허용도록 규제중. 제출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지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등록수입업자 자격이 부여됨.

나. 수입 통관 절차

1) 선적서류 및 수입 신고서 준비

- 선적 서류(BL, INVOICE, PACKING, INSURANCE POLICY 등) 준비하되 세관 내규에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야 한다. 적하 보험증권의 경우 FOB인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부보 가능하다.
- 한-아세안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선적서류 속에 원산지증명서 (CO)도 AK-FTA용으로 받아서 포함시키고 적용관세율 항목에 AK-FTA 관세임을 밝혀야 한다

2) 수입 신고서에 준하여 수입세 납부

- 수입 관세, 부가세, 법인세 - 인도네시아의 경우 화물 수입 시 법인세를 선납

3) 수입세를 은행에 납부한 이후 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전송(EDI SYSTEM)

4) 세관에서는 전송 받은 서류를 근거로 수입 세금이 납부된 은행과 교신하여 수입 세금 납부 여부 확인

5) 수입 세금 납부가 확인이 되면 세관에서 수입 신고서 접수

6) 수입 신고서 접수 확인이 되면 원본 서류 서류를 세관에 제출

- 원본 세금 계산서, 원본 BL, 원본 INVOICE, 원본 PACKING LIST, 원본 선하 보험증서

7) 세관에서 원본 서류 접수 이후 검사 혹은 무검사 통관 결정

8) 검사 통관으로 결정난 경우, 검사관과 함께 화물 검사 실시, 검사 보고서 작성 후 담당관에게 보고서 제출

- 화물 검사는 100 % 실제로 화물 검사를 실시하므로 반드시 선적 서류와 실제 화물을 일치시켜야 하며, 선적 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밀수로 간주되어 벌금 부과 혹은 고액의 별도 비용 지출하여야 함.

9) 통관 승인을 받고 화물 출고 동의서 수령

10) 창고비 지불하고 출고증 받아 화물 출고

다. 기타 수입통관 참고사항

수입 관세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관세국에서 발행하는 관세율표에 기준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에 따라 전체품목의 90%에 달하는 일반품목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2009년 1월 1일부로 관세가 면제되었으며, 나머지 민감 혹은 초민감품목이 3~20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밖에 10% 부가세와 2.5%의 법인세 (선납 법인세)를 모두 수입통관 시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다

특히 화물 수입 시 적용되는 세관 고지 환율이 매 1주일 단위로 변경되어 수입자의 불편이 크다. 세관 고지 환율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나 결정되어 통지되는데, 은행의 수입세 관련업무 접수마감 시간이 매일 오전 11시로 제한되어 있어 매주 월요일은 수입 신고서 준비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고 수입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세관에서 서류 심사 시 가격이 너무 낮다고 자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관세 및 벌금 추징하게 된다. 이때 세관에서 제시하는 가격 기준이 제품의 시중 판매가격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단계가 많은 소비재 분야에서 과도한 조정관세를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수입자가 추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승소 확률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며, 인니 세관규정에 따르면 수입 화물에 대한 조정 관세 혹은 벌금 추징 시 화물은 선출고가 가능하다.

1달 이내에 추징 관세 및 벌금 납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징 고지서 발급 시점에(NOTA PEMBETULAN) 추징금액을 납부하고 세관에 신고해야만 출고 동의서를 발급함으로 세관 내규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부가세 및 선납 법인 소득세 부분의 현금 환급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매출 부가세를 기준으로 수입 시 발생한 매출 부가세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 부가세 환급 신청 시 세무 감사가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므로 부가세 환급이 사실상 기피되는 상황이다.

수출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화물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세 면제, 부가세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세관 본부에서 하며 FACILITY 명칭은 KITE (KEMUDAHAN IMPOR TUJUAN EXPOR)이다.

라. 항구 및 공항

한국 국적기가 취항하는 곳은 자카르타의 soekarno-Hatta 공항과 발리 덴파사의 Ngu rah Rai 공항 두 곳이므로 나머지 지역들은 일단 자카르타에 도착한 후 국내선편을 이용해야 한다.

- 국제항구
 -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이상 Bintan), Belawan 항(메단), Sibolga항(북 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Tanjung Priok항(자카르타),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 국제공항
 -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빠켄baru)

금년 1월 1일부터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등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 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Tanjung Priok항구 (자카르타)
- Tanjung Perak항구 (수라바야)
- Belawan 항구 (메단)
- Soekarno-Hatta 항구 (마카사르)
- Dumai 항구 (리아우 지역) : 이 항구는 식음료분야만 수입 허용

마. 운송비용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의 순수 해상운임은 2009년 4월 기준 20피트 컨테이너 500달러, 40피트 1천불 정도 소요되며, 터미널 차지는 2005년 11월1일부로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종전 150달러에서 95달러(20피트), 145달러(40피트)로 인하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야적장(CY) LIFT요금도 제품 도착 후 3일 이내 통관 시 20피트는 225,000루피아 40피트는 33만 루피아 선이다.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리스트

회사명(국문)	회사명(영문)	전화	팩스
에스피엘 로지스틱	SPL LOGISTICS (무역관 통관 자문업체)	8379-3806	8379-3832
프라임국제운송	PRIME FREIGHT INDONESIA	5591-5770	5591-5772
어코드로지스틱인도네시아	ACCORD LOGISTICS INDONESIA	6531-1202	6531-1119
에이스 멀티트랜스 카고	ACE MULTITRANS CARGO	654-0386	654-0387
에이,씨,아이익스프레스	ACI KORINDO EXPRESS	8370-2767	8379-5369
아네카 트랜스	ANEKA TRANS	520-4181	520-4171
아르페리 뿌라따마 해운	ARPERI PRATAMA OCEAN LINE	350-5443/6	380-3615
범양	BUMYANG	798-6128	798-6089
카고 플라자	CARGO PLAZA	831-7779	831-7720

동남아 해운	DONGNAMA SHIPPING CO.LTD	5296-2240	5296-2235
범한물류	FIRST AND SMILE LOGISTIC TRADING DIVISION	8998-2855	8998-2833
그라하 센트라 카고	GRAHA SENTRA CARGO	4584-0108	4584-0111
한인도 익스프레스우타마	HANINDO EXPRESS UTAMA	252-5123	252-0551/6
한진해운	HANJIN SHIPPING CO.LTD	632-1055	632-1056
하스풀 인터네셔널 인도네시아	HASPUL INTERNASIONAL INDONESIA	8379-3732	8379-7930
흥아해운	HEUNG-A SHIPPING CO.LTD	8379-3732	8379-3728
홍토 라주아바디	HONGTO LAJU ABADI	7918-1450	7918-1515
현대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CO.LTD	385-5372	384-0674
인스 텍노로지 인도네시아	INS TECHNOLOGY INDONESIA	8998-2855	8998-2834
조인어스 카고 부아나	JOINUS CARGO BUANA	654-6616	654-6626
코리아마린 트랜스포트	KOREA MARINE TRANSPORT CO.LTD	530-7866	530-7852
코르넷 트랜스 우타마	KORNET TRANS UTAMA	799-0831	799-0603
케이피엘	KPL	422-9282	422-9283
만디리 아바디 센토사	MANDIRI ABADI SENTOSA	5296-2234	5296-2235/38
미트라 트라신도쁘르까사	MITRA TRANSIDO PERKASA	426-0175	420-3844
엔씨에스 해운	NCS LINE	352-4843	386-2675/76
범양상선	PAN OCEAN CHIPPING CO.LTD	798-6128	798-6089
프라야란 코린도	PELAYARAN KORINDO	797-5959	797-6388
프로트란스 인도네시아	PROTRANS INDONESIA	8379-0822	8379-2177/8
큐씨엔	QCN	520-4189	520-4357
센다이 로지스틱	SENDAI LOGISTIC	719-0247	718-2489
에스엠에스 해운	SMS LINE	520-4177	526-6320
수치바하리 아디타마	SUCIBAHARI ADHITAMA	471-4460	471-4465
순baru 메가흐 시핑	SUNBARU MEGAH SHIPPING	520-4177	520-4171
탐익스프레스	TRANS UTAMA INDOKARYA	829-6218	829-7613
윙스 글로벌	WINGS GLOBAL	4585-8053	4585-0332
짐모아	ZIMMOAH	4786-6502	4786-6503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80~1990년대 수많은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과 1998년의 투자 규정 개정에 의하여,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자 회사 설립도 가능해졌다.

2004년 10월에 첫 민선대통령으로 취임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국가 경제발전, 특히 IMF 금융 위기 이후 거의 손을 못 댄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투자 유치 확대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중이다.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인니 정부는 2005년 1월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 제1차 인프라 서밋을 개최하고 91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고, 2006년 11월 1~3일 간 제2차 인프라서밋을 개최, 10개의 모델 프로젝트와 101개의 잠재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9년 3월말에는 민관협력사업으로 87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2005년부터 진행된 투자관련 법령 정비는 의회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간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마침내 2007년 4월 26일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신투자법이 발효하게 되었다. 신투자법은 1967년의 외국인투자법, 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해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정비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인니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2007년 7월과 12월에 발표된 투자제한규정도 일부산업에 대한 제한은 강화되었지만, 규정 자체의 내용은 종전보다 명료화되어 투자제도의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조세관련, 2007년에 조세법총칙이 개정된데 이어, 2008년 9월에 소득세법도 개정되어 2009년부터는 법인세도 종전 30%에서 28% 인하되었으며, 2010년에는 다시 25% 인하되는 등 더 좀더 기업친화적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관련,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섬유, 기계 등 15개 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규정은 2008년 9월에 8개 분야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외에 퇴직금 관련 노동규정을 사회 보장보험(잠소스택)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 기타 투자 관련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며, 비록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여 임가공 수출을 위한 투자대상지로 아직 매력에 있다. 특히 2005년 말부터 중국이 노동집약적인 투자를 환영하지 않고 있고 또 인건비도 크게 오르는 추세이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베트남도 인건비 상승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체지역으로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인니는 2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 하면 현지 내수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긍정적 요소

1) 정치 경제적 안정화

- 2004년 10월 인니 최초의 민선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통령의 부패척결,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음.
-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성장이 점차 안정화되어 2004년부터는 5%대의 성장을 보이다가 2007년부터는 6.32%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6.1%의 경제성장을 달성함.

2) 풍부한 천연자원

- 인니는 LNG, 석탄, 니켈, 주석 및 원유 등 천연자원의 보고
- 세계 최대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산림자원 풍부
- 세계적인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 고무 생산국

3)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 세계 제 4 위의 인구(2 억 3,000 만 명)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 제공
- 수도인 자카르타 인근의 최저임금은 1,069,865 루피아(약 100 달러)로 베트남(약 50 달러)에 비하여 다소 비싸지만 지방의 경우 60 달러 정도도 가능
- 평균수명이 선진국에 짧은 반면,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의 50% 이상이 25 세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 증가

다. 부정적 요소

1) 노동의 유연성 부족 및 인건비 상승

- 높은 해고 비용: 1년 근무당 1개월치 해고 수당 + 3년 근무당 1개월치 근속수당 (단, 기한부 고용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 큰 폭 증가(자카르타 최저 임금 상승률: 2006년 15.1%, 2007년 9.95%, 2008년 8.0%, 2009년 10%)
- 초과 근무 수당의 누진제 적용: 1시간 초과 150%, 2시간 이상 200% 지급 등

2) 인프라 부족

-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설비 부족 및 낙후로 컨테이너 운송비용, 하역비용 등 물류 비용이 높은 편
- 전력 부족으로 전기의 안정적 공급 차질

3)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 투자 인.허가 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 발생
-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 시의 부조리
- 밀수 만연으로 정상적인 수출입에 장애
-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및 보호 의식 부족

4) 안전에 대한 불안

- 2002년 발리 호텔, 2003년 자카르타 메리어트 호텔, 2004년 주 인니 호주대사관, 2005년 발리 식당가의 자살 폭탄테러, 2009년 자카르타 리츠칼튼 및 메리어트 호텔 테러 발생 등 잦은 테러로 인하여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 존재
- 지진의 빈발, 화산폭발, 조류독감, 기타 풍토병 등으로 선진국가들에게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2008년 투자 동향

인도네시아의 2008년 외국인 투자실현은 1138건의 투자 프로젝트에 148억 7,100만 달러를 기록해 2007년의 982건, 103억4,100만 달러보다 156건 늘고 금액으로는 43.8%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투자 실적(2008)

2007		2008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82	\$103억4100만 (Rp 93조670억)	1,138	\$148억7100만 (Rp 133조8300억)	156	43.8

주: 석유가스분야 투자통계 제외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연도별 외국인 투자 실현 및 승인 동향

연도	투자 실현		투자 승인	
	건수	금액(\$백만)	건수	금액(\$백만)
2001	454	3,509.4	1,390	16,375.4
2002	442	3,082.6	1,253	9,991.3
2003	569	5,445.3	1,246	14,300.8
2004	547	4,572.1	1,253	10,470.1
2005	908	8,916.9	1,649	13,635.8
2006	869	5,977.0	1,718	15,659.1
2007	983	10,349.6	1,976	40,145.8
2008	1,138	14,871.0	-	-

주: 2008년부터는 투자승인 통계 미발표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주요 업종별 투자분포는 교통·통신 및 보관 35건 85억 2,990만 달러, 금속·기계 및 전자 141건 12억 8,140만 달러, 자동차 및 운송장비 47건 7억 5,620만 달러, 화학 및 제약 42건 6억 2,780만 달러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 434건 99억 2,780만 달러, 서부자바주 293건 25억 5,210만 달러, 반텐주 99건 4억 7,780만 달러, 리아우주 8건 4억 6,090만 달러, 동부자바주 73건 4억 5,730만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카르타가 전체 투자의 67%를 차지하는 등 90% 이상이 자바주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외의 지역으로는 리아우주가 투자 관심지역이었다.

국가별로는 모리셔스 5건 64억7790만 달러, 싱가포르 184건 14억 8,730만 달러, 일본 130건 13억 6,540만 달러, 영국 57건 5억 1,340만 달러, 말레이시아 74건 3억 633만 달러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82건 3억 1,010만 달러를 기록해 건수기준으로 두 번째, 금액 순으로는 여섯 번째를 기록하였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64건 6억2770만 달러로 건수 1위, 금액 3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08년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182건, 3억1백만 달러로 투자금액이 크게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 투자실현 동향

순위	국가	2007		2008	
		건수	금액(백만 달러)	건수	금액(백만 달러)
1	모리셔스	7	223.9	5	6,477.9
2	싱가포르	124	3,748.0	184	1,487.3
3	일본	113	618.2	130	1,365.4
4	영국	63	1,685.8	57	513.4
5	말레이시아	56	217.3	74	363.3
6	한국	164	627.7	182	301.1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나. 2009년 투자 전망 및 우선 분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은 2009년 투자가 10.7~11.2%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7년 6.32%, 2008년 6.1% 성장했으며 올해는 당초 6.4% 성장 목표를 세웠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4.5~5.5% 수준으로 전망치를 수정하는 등 경제둔화에 따라 투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루트피(Lutfi) 투자조정원장은 농산자원, 에너지자원,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의 중장기 투자를 올해의 우선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루트피 원장은 인도네시아 투자행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에 의존한 원자재 공급처로 명성이 있으나 향후에는 부품 등 가공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자원분야에는 그동안 철, 니켈, 주석 등 광물이 수출했으나, 향후에는 자원분야 투자 시에 제련소 건설 의무화를 통한 가공품 수출을 규정화할 예정이다.

다.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인프라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 10% 이상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법 개정, 투자우대분야 확대, 자유무역지대 본격화 등 친기업적인 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2009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종전 30%에서 28%로 인하되고, 2010년에는 다시 25%로 인하돼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분야도 지난해 9월 23개로 확대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도 지속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계시장 축소에 따라 제조업분야의 투자가 위축되며, 자원분야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투자소요자금은 낮아지고 있다.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으려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최근 투자 동향

연도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실현 및 승인 동향

연도	투자 실현		투자 승인	
	건수	금액(백만 달러)	건수	금액(백만 달러)
2004	60	63.1	212	420.4
2005	101	429.5	309	417.3
2006	140	475.7	312	887.2
2007	164	627.7	400	895.3
2008	182	301.1	-	-

주: 2008년부터 투자승인통계 미발표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실현은 182건 3억 1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 현황(실현 기준)

산업분야	2007		2008	
	투자건수	투자금액(천 달러)	투자건수	투자금액(천 달러)
농업	-	14.0	-	-
축산업	-	-	-	-
임업	-	-	-	-
수산업	1	457	-	-
광업	3	6,899	3	16,100.0
1차 산업 소계	4	7,370	3	16,100.0
식품	3	4,932.1	1	4,000.0
섬유	36	53,802.8	31	49,915.0
가죽제품 및 신발	7	20,185.9	10	76,508.8
목재	4	3,165.0	3	1,595.5
제지 및 인쇄	2	4,908.3	4	1210.0
화학 및 제약	3	120,528.7	3	4,191.2
고무 및 플라스틱	9	4,78.2	8	11,906.9
비철금속	1	1,000	-	-
금속, 기계 전자	27	358,673.6	29	69,375.8
의료 및 정밀광학기계	-	-	1	1,500.0
자동차 및 수송장비	2	2,646.2	2	1,072.1
기타산업	7	5,493.2	8	2,715.6
2차 산업 소계	101	580,124.9	100	223,990.9
건설	2	2,349.3	4	9,631.3
무역	44	27,603.0	61	39,054.3
호텔 및 레스토랑	-	-	3	5,000.0
운송 및 창고	4	1,419.5	4	1,020.0
부동산 및 산업단지	1	2,270.7	-	-
기타 서비스	8	6,525.0	7	6,300.0
3차 산업 소계	59	40,167.5	79	61,005.6
전체	164	627,662.5	182	301,096.5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양 국가의 경제협력 강화활동과 맞물려 실현 및 승인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 우리나라기업의 인도네시아 관심 증가 등에 따라 당분간 투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의 산업별 투자 분야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분야의 투자가 100건 2억 2,399만 달러였으며, 서비스 산업 분야는 79건 6,100만 달러, 1차 산업 분야는 3건 1,610만 달러로 나타났다. 업종별 투자 규모로는 가죽 및 신발업이 10건 7,651만 달러로 최대 투자 업종이었으며, 이어서 금속/기계/전자산업이 29건 6,937만 달러, 섬유 31건 4,992만 달러로 뒤를 따랐다. 투자건수로는 무역서비스 부문이 61건으로 가장 많은 투자건수를 기록하였다.

나. 주재국 내 한국투자진출 기업 동향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한국기업은 약 1,300개 사로, 이 중 섬유 및 섬유 관련 업체가 250개 사, 전기 및 전자 관련 업체 160개 사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한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수는 약 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 투자 진출 기업은 섬유, 신발 등 인도네시아 내 노동 집약 산업 부문의 생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자원, 건설, SOC 등 기간산업 분야에 이어 IT 분야에의 진출도 활발하다.

한국기업의 부문별 진출현황

부문	업체수	부문	업체수	부문	업체수
(제조업)	(952)	종이·목재(가공)	50	음식·숙박	112
의류·봉제	217	통신·컴퓨터	45	도·소매	84
섬유	108	건설·선박	45	무역·금융	51/17
금속·기계	81	가발·악세사리	36	여행사/학원	33/39
전기·전자	72	출판·인쇄	27	미용실사우나	34
석유·화학	57	농임수산업	19	컨설팅	36
신발·완구	56	연마제등기타	21	차량정비/렌트	19/7
고무·플라스틱	54	광업	19	기타	12
운송·창고	50	(기타 서비스업)	394	총계	1,346

자료: 재인니한인회 및 한생컨설팅의 『한인기업 디렉토리(2008)』

최근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칼리만탄, 수마트라지역의 석탄개발 등 자원분야와 팜, 카사바, 옥수수 등 농장개발에 대한 투자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 주재국 한국투자진출 기업의 영업특징 및 패턴

1) 현지생산, 해외수출이 인도네시아투자 초기형태

현재까지 대부분의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제3 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내수판매의 경우에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서부 자바 일부에 판매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 주요 업종의 수출 비중

- 섬유(봉제) : 90% (섬유 주요 수출 지역: 미주(70%), 유럽(25%), 일본(5%))
- 전자 : 80%
- 신발: 95%(대형), 50%(중형)
- 타이어, 피아노, 조미료 : 약100%

2) 현지진출 대기업과 동반 진출

LG, 삼성 등 대기업의 진출에 따라 동 업체에 부품 및 중간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동반 진출한 경우도 100개 업체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초기에는 현지 진출 대기업에만 납품하는 형태였으나 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수 및 해외로 시장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3) 내수시장 공략시작

최근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소득 증가와 함께 소비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으며 소비자 구매력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하여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개발을 통해 현지 소비 계층의 분화에 대비하고 아울러 전국적 판매망 확보 및 판매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4) 현지화 강화 추세

필요시설과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조달, 조립, 생산하는 경우, 원부자재 조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현지 투자수요 및 기호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공업화와 함께 단순조립단계에 머물러 있는 산업분야는 부품과 중간재를 현지에서 조달,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 * 섬유의 경우 원자재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중국 60%, 한국 25%, 인도 및 인니 : 5%)하고 있으나 단추 및 지퍼 등 부자재의 경우 인니 생산에 의존(인니 70%, 중국 및 한국 30%)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도 인도네시아에서의 R&D 비중을 높이고 현지부품 조달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현지 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으, 아울러 투자기업의 중요직책(중간 관리자 등)에 현지인을 채용하고 현지 인들은 관리하는 등 경영의 현지화도 진척되고 있다.

4. 주요 투자법 내용**가. 외국인 투자법 및 개정 내용**

-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 2007년 개정된 신투자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수출증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연도별 주요 개정 내용

연 도	주요 개정 내용
1977	○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관련 행정 총괄전담기구 (투자조정원: BKPM) 설립 ** BKPM 기능: 외국인 투자안내, 인허가 발급 투자 우선분야 선정 등
1989	○ 외국인 투자규제방식 변경(POSITIVE→NEGATIVE)
1992.4	○ 특정조건하 100% 외국인 투자 허용
1992.7	○ 외국인 투자제한분야의 축소(60개→51개) ○ 투자 금지 분야인 우유, 식용유, 합판, 중장비, 자동차 등에 대한 조건부 투자허용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증 발급절차 간소화 ○ 부동산 소유기한 연장(10년→30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 허용 ○ 외국인 투자 시 취득허가증 종류 축소(8개→4개) ○ 토지취득 및 건물 설립 절차의 간소화
1993.5	○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지분소유 상한 확대(49%)
1993.6	○ 외국인 투자금지업종 축소(51개→34개 업종)
1993.7	○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잠정적으로 부여되었던 세금감면혜택 폐지
1993.10	○ 100%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조건 완화 및 기간연장
1994.6	○ 지분 양도의무 폐지 ○ 100% 지분 소유가능지역 확대(14개 주→전국) ○ 외국인 단독 투자 시 최저자본금(5,000만 달러) 규정 폐지 ○ 합작투자 시 지분소유한도 확대(80%→95%) ○ 영업허가기간(30년) 연장수속 간소화
1995.5	○ 외국인 투자금지품목 축소(팜유, 의약품 등 10개)
1996.1	○ 수출입업에 대한 조건부 외자참여 허용(외국인의 100% 지분소유 허용)
1996.6	○ 수출지향적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 직물 수출 시 부과하던 수출검사료 폐지 - 세관구역, 보세지역, 수출가공지역간 상품교류 시 부과되던 VAT 및 수입과징금 폐지
1997.7	○ 내국인과 합작조건으로 외국인의 자국 내 경매회사 설립 허용 - BKPM 면허업체 뿐만 아니라 산업무역부, 지방정부 관리 투자업체에 대해서도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1998.6	○ 외국인 투자금지업종 재조정 및 투자금지업종 축소 - PALM OIL PLANTATION 및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1999.1	○ 정부지정 첨단산업분야(22개)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치발표(최장 8년간)
2007.1	○ 15개 산업분야에 대한 세금우대 정부규정 제정
2007.4	○ 신투자법 발효
2007.7	○ 신투자제한규정 발효
2007.12	○ 투자제한규정 일부내용 수정
2009.1	○ 신평업법 발효

나. 투자 우대 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이 있음.
-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자본재), 최초 2 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최고 5%의 수입관세 납부(재무부령 2000 년 135 호)

- 특정분야 및 지역에 대한 세금우대에 대한 규정(Regulation No 1/2007)이 2007년부터 시행됨.
- 동 규정은 그동안 유명무실하였던 첨단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통령령 7호, 1999년 1월 14일) 규정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게 됨.

1) 대상

2007년 1월 이후 BKPM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신규 투자기업 및 기투자 업체의 확장투자도 포함) 중 식품, 섬유, 제지 등 정부지정 15개 업종을 대상

2) 내용

□ 소득공제

- 고정자산 투자의 30% 상당액을 6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매년 5%)
- 상업생산개시일 기준으로 하며, 현지실사를 통하여 세금당국이 결정

□ 가속상각

유형고정자산 그룹	내용 연수	감가상각 및 이연상각	
		정액법	정률법
I. 비건축물			
Category I	2 years	50%	100%
Category II	4 years	25%	50%
Category III	8 years	12.50%	25%
Category IV	10 years	10%	20%
II. 건축물			
영구	10 years	10%	-
비영구	5 years	20%	-

□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근거한 배당 원천세 경감

□ 결손금 손실보상기간 5년, 특정 조건하에서 최대 10년

다. 신투자법 주요 내용(신투자법은 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6조)
-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7조)
 - 정부는 법에 의한 경우 외에, 국유화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가격에 따른 보상 부여
- 과실 송금 이전의 자유 보장(8조)
 - 투자자가 지정하는 곳으로의 자산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 자본, 이익, 은행이자, 배당금 및 기타 소득, 로얄티, 투자분야 외국인 종사자의 소득, 청산 소득 등을 외국화폐로서
 -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투자 제한·금지 분야 및 업종(12조)
 - 외국인 투자자는 무기, 탄약, 폭약, 군장비 및 법에 의해 금지된 분야의 투자가 금지되며, 내외국인 투자자도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결정

- 투자자의 권리, 의무, 책임(14~17조)
 - 투자자는 법과 규정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받으며, 선한 기업경영의 원칙 이행, 기업의 사회적 의무, 자본투자행위에 대한 투자조정청(BKPM) 보고, 법과 규정의 준수 등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니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22조)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최장 95 년까지 가능
 - 건설권(Right to Build): 최장 80 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최장 70 년까지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에 따라, 2 년간의 거주허가 및 현재 1 년 및 6 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 년짜리 복수입국사증 부여, 2 년 이상 인니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 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조~26조)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조~28조)
 - 정부는 정부기관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 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 외국 투자자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라. 투자 금지 분야 리스트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4월에 발효한 개정 투자법 '2007년 제 25호'의 시행 세칙으로 대통령령 '2007년 제 76호'와 '제 77호'에 의하여 새로운 투자 제한 분야를 2007년 7월 3일부터 발효시켰으며, 다시 2007년 12월 27일에 중복되었던 규정들을 정리·수정한 대통령령을 발표함.

- 동 규정에는 25개 업종을 투자금지 업종으로 규정하였으며, 15개 분야 1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외국자본 출자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함.
- 신 규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승인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승인시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
- 통신, 환경, 식량안보 및 천연자원 다양성보존 등과 관련된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 강도를 높임.
- 대중매체의 경우 외국인 소유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며, 전력생산 배분.공급회사 95%, 25헥타르 이상의 야자유 농장 95%, 의약품 회사는 75%로 외국인 지분이 제한됨.
- 전문병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65%까지 허용되고,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이나 의료장비 대여업 같은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허용됨.
- 호텔이나 여관, 가라 오케, 마사지업소 등을 포함한 14종류의 관광산업군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50%까지 허용되나 위치제한이 있게 됨. 농업은 위치제한이 있으며, 지방정부규정에 따라야 함.
- 교통분야의 항공 운송업은 49%, 정보통신분야의 유선전화 49%, 이동통신 및 위성 전화는 65%까지 외국자본출자가 가능함.
- 통신분야는 종전 규정은 최대 95%까지 외국자본의 출자를 허용하였으나 유무선 통신 회사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제를 도입하게 됨. 이미 상한선을 넘어선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국인 소유지분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

최대 외국자본 소유 비율(대통령령 NO111/2007)

99%: 샤리아은행, Foreign Exchange Banking
95%: 석유가스개발,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발전분야, 고속도로, 식수, 벼농업 (25h 이상) 고구마 옥수수 농업
85%: Leasing, Venture Capital
80%: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75%: 제약
65%: 전문병원, 클리닉, 비즈니스컨설팅
55%: 건설, 건설 컨설팅
50%: 공연장, 1~2성급 호텔, 케터링, 스파, 바/카페
49%: 인력회사, 의료장비 임대, 침술, 통신네트워크, 인력회사, 해상항공운송
25%: 자연관광, 생태관광

- 또한 정부가 지방정부규정에 근거해 특정지역의 경우 19개 사업군에 대해서만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함.
 - 메단과 수라바야에서는 민간병원과 유치원이 위치제한을 받고 자카르타에서는 보건 지원서비스(의료장비임대업)도 위치제한을 받게 됨.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외국인 투자 진출 형태

1) 외국인 투자의 보호

2007년 투자법은 외국자본의 기업경영을 인정하며, 투자자본을 보호하고 수입관세 감면과 동시에 외국인 고용계획서를 주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 또, 이익의 해외 송금,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 국유화 등의 조치에 대한 외국자산의 보장, 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외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 형태

외국인 투자 사업활동은 통상 주식회사(PT, Preseroan Terbatas)를 설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라 부르며 다른 국내기업(PMDN)과 다른 자격을 주고 있다. ‘지점’ 형태의 사업활동은 현재 인가되고 있지 않다.

나. 현지 법인 설립

1) 투자 법인 형태

외국투자 사업활동은 통상 주식회사(PT/Preseroan Terbatas)를 설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라 부르며 다른 국내기업(PMDN)과 다른 자격을 주고 있다.

2) 설립 수속 및 해당 관청

현지 법인 설립 수속 절차와 해당 관청

절 차	해 당 관 청	관 련 사 항
외국인투자 승인	투자조정청(BKPM) 지방투자조정청(BKPMMD)	외국인 투자승인
소재지 증명서	관할지역 동사무소	소재지증명서 발급
회사설립 승인	법무부	회사정관의 승인, 관보공고
세무등록번호	재무부 국세청 지방세무서	세무등록번호(NPWP)발급, 달러회계, 영문회계승인, 부가가치세 과세업자등록(PKP)
자본금 입금	일반은행	자본금 불입 신고
회사등록	지방 상업국	회사등록(TDP)
사업허가서	투자조정청	영구사업허가서 발급
취업규칙 등록	노동부	취업규칙 등록
국가기관 개별허가	재무부 에너지·광업부	금융·보험 부문의 경우 석유·천연가스의 경우

3) 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

□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신청서 작성

BKPM의 소정 양식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하며 첨부 서류와 함께 2부 작성하여 BKPM에 제출한다. 기재 내용은 투자관련 기본계획의 요약이며 신청서는 양식 견본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BKPM의 홈페이지(www.bkpm.go.id/e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는 외자 기업 정관(영어 또는 인니어), 제조·프로세스 설명서/원료·부재료 종류표(제조업의 경우), 예정업무 활동의 설명(서비스업의 경우), 위임장(신청서 서명을 제 3자가 하는 경우) 등이며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서명 완료된 합작 계약서, 인도네시아 측 파트너 서류(회사의 경우 회사 정관, 조합의 경우 조직 규정, 개인의 경우 신분 증명서)와 세무등록 번호가 추가된다.

□ BKPM의 심사 수속

상기 서류가 제출되면 BKPM은 우선 형식 심사를 실시하여 1주 이내에 접수증을 발급한다.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면 BKPM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BKPM은 제출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사업 계획에 따른 내용을 잘 갖추고 있으면 통상 약 10일 이내에 투자승인 통지서(SP-PMA)를 발급한다.

□ BKPM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

투자청으로부터 투자승인서를 받으면 회사설립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 투자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실적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투자승인서는 임시사업허가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환료 후 영구사업허가서를 별도로 획득하여야 하며, 주주가 출자금을 회사계좌에 불입 후에 법무부의 회사 설립 승인서를 획득하여야 법인 자격이 부여된다.

다. 지사 설립

1) 외국인 주재원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주재원 사무소는 건설관련 주재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이 일반의 현지 법인과 크게 다르다.

□ 일반 주재원 사무소

외국기업이 판매촉진이나 시장개척, 정보수집, 품질관리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활동만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이 주재원 사무소이며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개설허가는 BKPMdp 신청하여 상사의 경우 무역부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일부 금융이나 광업관계 등은 각각 재무부, 광업에너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판촉활동과 판매영업활동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품의 주문, 판매계약의 체결 등은 주재사무소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 판촉 정보 수집 등 이외의 영업활동을 실시했을 경우 항구적 시설(PE)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 건설관련 주재원 사무소

건설공사, 건설 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등의 건설업의 사업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는 것이 허락되는 특별한 주재원 사무소이다. 단,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전개 시 현지기업과 Joint 오퍼레이션을 조직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명칭은 주재원 사무소이지만 실질은 공사 사무소이다.

2) 주재원 사무소 개설 수속절차, 필요서류, 기간

상기 주재원 사무소형태에 따라 신청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주재원 사무소 개설 의향서(Letter of Intent)
- 주재원 임명장(Letter of Appointment)
- 활동범위 명세서(Letter of Statement)
- 주재원의 이력서
- 회사개요
- 회사증명서(Letter of Reference):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발행
- 주재원의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영문)
- 여권복사본, 사진
- 회사등기부 등본과 회사정관(영어 번역본)

주재원 사무소 개설은 비교적 용이하며 개설수속, 필요서류 샘플집을 현지 컨설팅에서 제공하고 있다. 신청서류의 제출로부터 주재원 비자, 입국, 체재허가, 노동허가 취득, 회사세무 번호 취득과 최종 라이선스 취득 수속 완료까지 약 2~3개월이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노동허가(WORK PERMIT:IKTA)는 인력부가 발급하고, 일시거주 증명서(KITAS)는 법무부 이민국에서 담당한다.

라. 공장 설립

공장 건설에 관련한 인허가는 기계와 원재료의 수입, 반입 설치, 시운전과 관련하는 법률상 주요한 수속은 다음과 같다.

- 부지 허가, 건설 허가부지 허가는 공장 소재지역 지방 또는 시 토지국, 건설 허가는 지방 또는 시의 해당 관청으로부터 취득한다. 공업단지에서는 통상 입지 허가 준비가 되어 있다.
- 환경 조사 평가 승인업종 및 사업 내용에 따라서 BKPM 승인이 환경 조사 평가 승인을 의무화하여, 투자 실시 전제 조건으로 이 문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며, 공업단지의 경우는 기본적인 조건이 준비된 경우도 많다.
- 건축허가서를 해당지역 건축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보세공장(KB)의 신청공장 단위로 보세 공장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가 보세 구역에 진출하고 있지 않아도, 특정 조건을 충족 할 경우, 관세청에 신청만으로도 공장 단위로 보세 구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 지향 회사를 위한 우대조치다.

6. 투자입지여건

가. 주요 공장 입주 지역

자카르타에는 수많은 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 인근에 한국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은 짜카랑 공단, 땅그랑 지역, MM공단, KBN 공단이 대표적이다. 짜카랑의 자바베카 공단은 일반 지역에 비하여 도로, 급수,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으며, KBN 공단은 섬유관련 업체들이 주로 소재해 있다.

1) 자바베카 공단(짜카랑 소재)

- 운영: PT KAWASAN INDUSTRI JABABEKA Tbk
- 위치: 자카르타 시내에서 약 35 km 수카르토타타 공항에서 65 km
- 개발면적: 산업단지 1,330 ha / 주택 및 골프장 1,400 ha
- 입주 현황
 - 약 17개국에서 1,25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 외국기업으로는 한국 기업이 130개 기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75 개사, 말레이시아 15개사, 호주 10개 사 등이 입주해 있다.
- 특징
 - 전자업체가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의 1차, 2차 밴드 업체가 진출해 있다. 공단 지역의 경우 1㎡ 당 \$ 65 정도 매입 가능하다.
 - 공단의 경우 표준 공장이 지어져 있으며, 대지 576㎡(건평 456㎡)~1,400㎡(건평 959㎡), 정도의 공장이 있으며, 현 시세는 10만~30만 달러이다.
 - 공단 내에 독립민자발전소가 있어서 전력공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2) MM 2100 공단

- 운영: PT Megalopolis Manunggal Ind. Dev
- 위치: 자카르타 시내에서 약 30 km 수카르토타타 공항에서 60 km
- 특징
 - 일본계에 의하여 개발된 공단으로, 일본 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으며, LG계열사가 입주해 있다.
 - 공단의 평균 가격은 65달러 정도이며, 주택단지 없이 공장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3) 땅그랑 지역

- 위치: 자카르타 시내에서 약 40 km, 수카르토타타 공항에서 20 km
- 특징
 - 주로 봉제, 신발 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현재 코오롱 및 나이키 등 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많이 진출하였으나, 점점 한국업체가 줄어들고 있다.
 - 공장 임대료가 용이하며, 부지는 저렴한 편이다.

나. 자카르타 및 인근 지역의 주요 공단 정보

1) CILANDAK COMMERCIAL ESTATE

- Location: Cilandak, South Jakarta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 Plan Area: 11.3 Ha
- Developed Area: 11.3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3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35 Km
- Water supply: 700 Litre Per Second
- Electricity: 6.6 – 10.2 MVA
- Telecommunication: Telkom, 1,0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74 Companies

2) JAKARTA INDUSTRIAL ESTATE PULOGADUNG

- Location: Pulo Gadung, East Jakarta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An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 Plan Area: 570 Ha
- Developed Area: 420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12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40 Km
- Water Supply: PDAM
- Electricity: PLN
- Telecommunication: Telkom
- Road, Primary Row: 30 M
- Road, Secondary: 12 M
- Number Of Companies: 305 Companies

3) PLUIT DISTRIBUTION CENTER

- Location: Jl. Kapuk Kamal Raya, North Jakarta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Sell
- Plan Area: 80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1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12 Km
- Water Supply: PDAM
- Electricity: PLN
- Telecommunication: Telkom
- Number Of Companies: 63 Companies

4) KAWASAN BERIKAT NUSANTARA

- Location: Cakung, Marunda and Tanjung Priok, North Jakarta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An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In Export Processig Zone
- Plan Area: 595 Ha
- Developed Area: 482.7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40 Km
- Water Supply: PDAM
- Electricity: PLN
- Telecommunication: Telkom, 4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253 Companies

5) BEKASI 3000 INDUSTRIAL ESTATE

- Location: Bekasi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250 Ha
- Current Status: Under Construction Stage
- Distance To Jakarta: 4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5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0 Km
- Water Supply: PDAM
- Electricity: PLN
- Telecommunication: Telkom
- Number Of Companies: n.a

6) EAST JAKARTA INDUSTRIAL PARK

- Location: Lemah Abang,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 Plan Area: 320 Ha
- Developed Area: 320 Ha
- Distance To Jakarta: 40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4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70 Km
- Water Supply: n.a.
- Waste Water Treatment Plan: n.a.
- Electricity: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Number Of Companies: 82 Companies

7) KAWASAN INDUSTRI GOBEL

- Location: Cibitung,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 Plan Area: 52 Ha
- Developed Area: 52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3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0 Km
- Water Supply: PDAM, n.a.
- Electricity: PLN,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Number Of Companies: n.a.

8) BEKASI INTERNATIONAL INDUSTRIAL ESTATE

- Location: 37 Km East Direction Of Jakarta Along The Jakarta–Cikampek Toll Road, Cikarang Exit,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200 Ha
- Developed Area: 140 Ha
- Distance To Jakarta: 37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4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7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Bekasi, 25 Km
- Water Supply: 13,000 M3 Per Day
- Waste Water Treatment Plan: 8,000 M3 Per Day
- Electricity: 900 MV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Road, Primary Row: 40 M
- Road, Secondary Row: 20 M
- Number Of Companies: 111 Companies

9) CIKARANG INDUSTRIAL ESTATE

- Location: 37 Km East Direction Of Jakarta Along The Jakarta–Cikampek Toll Road, Cikarang Exit,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1,330 Ha
- Developed Area: 952 Ha
- Distance To Jakarta: 35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4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5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Bekasi, 25 Km
- Water Supply: 49,500 M3 Per Day
- Waste Water Treatment Plan: 42,000 M3 Per Day
- Electricity: 900 MV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Number Of Companies: 616 Companies

10) LIPPO CIKARANG INDUSTRIAL ESTATE

- Location: 37 Km East Direction Of Jakarta Along The Jakarta–Cikampek Toll Road, Cikarang Exit,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An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Sell
- Plan Area: 1,000 Ha
- Developed Area: 400 Ha,
- Distance To Jakarta: 37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4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7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Bekasi, 25 Km

- Water Supply: 13,000 M3 Per Day
- Waste Water Treatment Plan: 10,000 M3 Per Day
- Electricity: 900 MVA
- Telecommunication: Telkom, 15,000 Lines
- Road, Primary Row: 40 M
- Road, Secondary Row: 20 M
- Number Of Companies: More than 200 Companies

11) MM 2100 INDUSTRIAL TOWN

- Location: Cibitung,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1,000 Ha
- Developed Area: 805 Ha
- Distance To Jakarta: 30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3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0 Km
- Water Supply: 72,000 M3 Per Day
- Waste Water Treatment Plan: 64,800 M3 Per Day
- Electricity: 350 MVA
- Gas: PGN, n.a.
- Industrial Gas: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8,000 Lines
- Road, Primary Row: 41–51 M
- Road, Secondary Row: 18–20 M
- Number Of Companies: 121 Companies

12) PATRIA MANUNGGAL INDUSTRIAL ESTATE

- Location: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220 Ha
- Water Supply: PDAM, n.a.
- Electricity: PLN,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 Number Of Companies: n.a

13) YKK INDUSTRIAL ESTATE

- Location: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20 Ha
- Developed Area: 20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3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0 Km
- Water Supply: PDAM, n.a.
- Waste Water Treatment Plan: n.a.

- Electricity: PLN,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Number Of Companies: n.a.

14) KOTA BUKIT INDAH INDUSTRIAL CITY

- Location: Kalihurip, Purwakarta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And Industrial Land For Sale In General Industrial Zone
-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In Export Processing Zone
- Plan Area: 1,300 Ha, Including 65 Ha Export Processing Zone
- Distance To Jakarta: 65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5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95 Km
- Water Supply: 60,000 M3 Per Day
- Waste Water: 28,000 M3 Per Day
- Electricity: 250 MVA
- Gas: PGN
- Telecommunication: Telkom
- Number Of Companies: 53 Companies

15)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1, 1 18 Ha
- Developed Area: 804 Ha, Distance To Jakarta: 6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68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85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East Karawang) 1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0 Km
- Electricity: PLN , 90 MVA
- Water: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20.000 M3 Each Day
- Waste Water Treatment: 20,000 M3 Each Day, Activated Sludge Method
- Telecommunication: Telkom, 480 Lines
- Number Of Companies: 49 Companie

16) KAWASAN INDUSTRI KUJANG CIKAMPEK

- Location: Cikampek,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Lease
- Plan Area: 140 Ha
- Developed Area: 140 Ha
- Distance To Jakarta: 7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100 Km
- Distance To Airport : Soekarno-Hatta, 110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da-Cikampek, Exit Karawang East): 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5 Km
- Electricity: PLN , 20 MVA
- Water: Kawasari Industri Kujang Cikampek, 8.40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Telkom, 2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 14 Companies

17) KAWASAN INDUSTRI MITRA KARAWANG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434 Ha
- Developed Area: 333 Ha
- Distance To Jakarta : 68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76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to-Hatta, 90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da-Cikampek, Exit Karawang West): 5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5 Km
- Electricity: PLN, Capacity: 124 MVA
- Water: River, 21,60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Telkom, 1,5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n.a.

18) MANDALAPRATAMA PERMAI INDUSTRIAL ESTATE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Lease
- Plan Area: 292 Ha
- Developed Area: 292 Ha
- Distance To Jakarta: 7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10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110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da-Cikampek, Exit Karawang East) 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5 Km
- Electricity: PLN , 110 MVA
- Water: PDAM, 4,11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 Telkom, 1,880 Lines
- Number Of Companies: 2 Companies

19) SURYACIPTA CITY OF INDUSTRY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1,473 Ha
- Developed Area: 991 Ha
- Distance To Jakarta : 6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7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85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Karawang East) 2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5 Km
- Electricity: PLN , 300 MVA
- Water: Suryacipta City Of Industri, 15,400 M3 Each Day for every 500 Ha
- Telecommunication: Telkom, 3,0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n.a.

20) TAMAN NIAGA KARAWANG PRIMA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Plan Area: 400 Ha
- Developed Area: 200 Ha
- Distance To Jakarta: 75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8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90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Karawang West) 7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2 Km
- Electricity: PLN , 120 MVA
- Water: Private, 2,50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Telkom, 2,0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n.a.

21) CIBINONG CENTRE INDUSTRIAL ESTATE

- Location: Cibino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Lease, Plan Area: 82 Ha
- Developed Area: 32 Ha
- Distance To Jakarta: 6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6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75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Jagorawi, Exit Gunung Putri) 5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Bogor, 20 Km
- Electricity: PLN , 14 MVA
- Water: Private, 7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 Telkom, 120 Lines
- Number Of Companies: 13 Companies

다. 10 대 주요 도시 입지 조건

1)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2009년 기준 922만 명의 인구이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사업 중심지이다. 자카르타 증권거래소와 대부분 회사들의 대표 사무실은 자카르타에 위치해 있다. 또한 자카르타는 많은 관광객들이 출입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자카르타에는 국립 박물관, 국립공원, 놀이동산, 인근 섬 등 관광지도 많으며, 많은 오락 시설과 세계 요리 식당이 있다. 그 밖에 영화관, 연극시설, 가라오케, 술집, 카페, 볼링 센터, 스파 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통 특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많다.

2007년 자카르타의 GRDP는 332조 루피아로 인도네시아 전체 GDP의 16.9%를 차지하는데 이는 2006년에 비해 6.4%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같은 기간 6.3% GDP 성장하였다.

2006년 자카르타의 GRDP의 30.15%는 금융업, 임대업이 차지하고 있다. 21.65%는 무역/호텔/ 외식업, 17.16%는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2) 반둥

반둥은 1864년부터 서쪽 자바지역의 행정 수도가 되었다. 서쪽 자바주에는 3,900만 명 살고 있고 이 중 반둥에는 300만 명이 살고 있다. PT Dirgantara Indonesia, 인도네시아 유일의 항공기 회사 및 PT Telkom Indonesia, 인도네시아 통신 업체가 반둥에 있다. 이 밖에 상당수의 제약 회사, 직물회사, 자동차와 반도체, 전기부품 및 케이블 제조업체,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 곳에 위치해 있다.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31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431~4,538 mm 이다.

2006년 RGDP기준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이 31.3%, 무역/호텔/외식업이 37.06%를 차지 한다.

3) 스마랑

스마랑은 중부자바주의 행정 수도이다. 중앙 자바주에는 1,55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스마랑에는 130만 명이 살고 있다. 스마랑에는 인도네시아 3번째로 큰 항구인 Tanjung Emas가 있다. 평균 기온이 18도에서 28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414~4,277 mm 이다.

4) 족자카르타

발리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족자카르타시는 족자카르타 특별구역의 수도로 35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에 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족자카르타시에는 전통적인 문화와, 전통 구조물을 보러 온 관광객으로 붐빈다. 기온은 25.7~28.8 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855 mm 이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몇 개의 왕조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고대 Mataram 왕국과, Sultanate 왕국이 유명하다. 지역 주민들은 족자카르타의 Sultan 왕조를 존경하고 있다.

5) 수라바야

동부 자바주의 주도이다. 경제 기반은 주로 농업, 수산업, 오일, 커피, 망고 그리고 사과 재배 등이며, 자카르타에 이어 인도네시아 제 2의 경제 지역이다. 수라바야는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깨끗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으며, 많은 현대적 건물 및 숙박 시설이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수라바야에는 4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주요 민족은 Javanese와 Maduranese 이다. 수라바야 전통 문화는 특별히 없으나, 많은 주변 지역의 전통 문화, 축제들이 수라바야로 자리를 옮겼다.

수라바야에서 20km 떨어진 거리에 396헥타르 면적의 Juanda 국제 공항이 있다. 이 밖에 동부 자바에는 Pegerungan 공항, Trunojoyo 공항, Abdulrahman Saleh 공항(해군 공항)이 있다.

6) 발리

발리는 동부 자바에서 2km 떨어져 있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신의 섬 (Pulau Dewata)이라고 부른다. 발리는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하며 지리적으로는 Nusa Tenggara 지역과 자바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지방 정부는 발리가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 왔다. 연평균 기온은 24.1~29.1도이며, 연 강우량은 1,050~2000mm이다.

7) 메단

북 수마트라의 수도는 메단이며, 인도네시아 3번째로 큰 도시로 특히 관광 및 무역이 발달해 있다. 북 수마트라는 서쪽으로는 인도양, 동쪽으로는 Malaka 해협까지 이르는 거대한 면적이다. 이 지역에는 또한 인도네시아 가장 큰 호수인 Toba Lake가 있으며, 25개의 시가 있다. 연 평균 기온은 23.4~33.6도이며, 연 강우량은 3,140 mm 이다.

메단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으나, 주요 민족은 바딕 민족이며, 원래 토착민들은 Deli Malay인들이다. 메단에는 2 부류의 바딕 민족이 살고 있는데, 남쪽 바딕인들은 (Mandailing) 이슬람이고, 북쪽 바딕인들(Toba, Karo)은 기독교이다. 메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며, 큰소리로 말하며, 자기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8) 사마린다(Samarinda)

사마린다는 동부 칼리만탄의 주도이다. 동부 칼리만탄은 24만 5,000km²로 인도네시아에서 2번째로 큰 면적이며, 이곳에 13개의 시가 있다. 사마린다는 동 칼리만탄의 가장 큰 도시이며, 54만여 명(2002년 기준)이 살고 있고 Kutai Barat, Kutai Kartanegara, East Kutai 지역으로 연결되는 길목이기도 하다.

동 칼리만탄에는 풍부한 천연 자원, 해양 자원, 농수산물이다. 동 칼리만탄에는 풍부한 석탄, 석영, 석고, 부석(pumice), 백운석, 석회석, 대리석, 옥수 등이 있지만, 이러한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평균 기온은 24.2~28.8도이며, 연 강우량은 2,519mm이다.

9) 마카사(Makassar)

마카사는 남 슬라외시의 수도로, 동쪽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대표적 도시이다. 남 슬라외시에는 23개의 시가 있으며, 마카사는 이 지역, 농업, 농장, 축산, 수산업, 광물 거래의 중심지이다.

남 슬라외시는 농업에 치중되어 있는 경제를 산업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동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항구인 수카르노 하타 항구가 있으며, 주변 관광지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

연평균 기온은 22~34 도이며, 연 강우량은 2,000~2,500mm이다.

10) 자야푸라(Jayapura)

자야푸라는 파푸아의 주요 도시임. 파푸아지역에는 산지가 많고, Jayawijaya, Trikora, Yamin 등 3개의 산꼭대기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다. 파푸아는 농업, 수산업, 가스, 광업 등 자

연 자원 등이 풍부하며, 목재, 합판 등의 산림자원도 풍부하다. 또한 캥거루, 비버 등 다양한 특이종들의 서식지기도 하다. 관광업은 아직 미개발되어 있다.

연평균 기온은 23.5~28.4도이며, 연 강우량은 1,744mm이다.

7. 노무관리

가.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특징

인도네시아는 각종 법률 및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식민통치시대 하의 법률 또한 아직까지 계승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는 2003년 3월에 공포된 신노동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여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12개월 근무 시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속 시 7년 8년째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근무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기본근로시간 외, 첫시간 1.5배, 두번째 시간 2배

나.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노무관리상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인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큰 소리 보다는 가르쳐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자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 이러한 노사분규 방지를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작성 시 현지노동법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추후 분쟁 시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다. 근로 계약서 관련

근로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한다. 근로조건에 명시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만일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이 아닌 일반적이 종신 고용으로 취급된다.
- Job Training: 작업소질의 증진, 개발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별도 장관령으로 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관련 규정에 의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 작업장/근무장소: 작업장의 변경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작업장의 변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작업장이 변경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된다.

- 해고: 해고에 대한 명확한 협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근무시간: 교대근무, 특정근무, 초과근무에 대한 회사의 규정 및 방침을 명시해야 한다.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무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한다.
- 연가, 휴가: 연가에 대한 규정, 생리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임금이 지불되는 휴가, 병가 사용조건과 방법 등을 명시한다.

이외 퇴직연금보험, 작업장 안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라. 해고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 규정 위반 에 대해 1~3차 경고장 순차적 발급 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다.

고용해지는 형사법상 범죄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인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 회사 소유의 물건 또는 돈을 사기, 절도, 횡령했을 경우
- 허위 또는 거짓말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 사업장에서 음주, 주정, 마약 등의 약품을 사용, 배포한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도박의 경우
- 직장동료를 폭행, 고문, 공갈, 협박한 경우
-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 사업주 소유의 물품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위험한 상태로 방치해 두는 행위
- 회사기밀을 밝히거나 누설했을 경우
- 사업장 내에서 다른 행위로 5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마.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퇴직위로금, 근속수당, 보상금, 해고 수당의 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사안별로 퇴직금의 산출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

□ 지급 기준

- 해고수당: 노동법 156조 2항
 - 1년 미만: 1개월 임금
 - 1~2년: 2개월 임금
 - 2~3년: 3개월 임금
 - 3~4년: 4개월 임금
 - 4~5년: 5개월 임금
 - 5~6년: 6개월 임금
 - 6~7년: 7개월 임금
 - 7~8년: 8개월 임금
 - 8년 이상: 9개월 임금

- 근속수당: 노동법 156조 3항
 - 3~6 년: 2 개월 임금
 - 6~9 년: 3 개월 임금
 - 9~12 년: 4 개월 임금
 - 12~15 년: 5 개월 임금
 - 15~18 년: 6 개월 임금
 - 18~21 년: 7 개월 임금
 - 21~24 년: 8 개월 임금
 - 24 년 이상: 10 개월 임금
- 손해보상금: 노동법 156조 4항
 - 연차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데 따른 이전비
 - 근로자의 해고금 및 근속수당의 15% 상당의 보상비
 - 기타 고용계약 또는 사규, 단체 근로협약에 규정에 따른 사항

□ 사례별 적용

- 자진퇴사 및 중대과실에 따른 퇴사: 손해보상금(156조 4항) 및 사규, 단체협약에 따른 자진 퇴사 보상금
- 중대과실 이외의 이유로 해고: 해고수당, 근속수당, 손해보상금
- 정년(별도 연금제도 없는 경우) 및 사망: 해고수당 2배, 근속수당, 손해보상금

바. 노동 분쟁 해결 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 조정위원회(P4D)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 노동위원회(P4P)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만일 해고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인력부 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부 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사.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고용 노동자를 사회보장에 가입시킬 의무를 가진다.

인도네시아는 사회보장으로서 Jamsostek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보되는 보장은 산재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이며, 산재·노후·사망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며 건강보험은 조건이 좋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산정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보험요율
산재보험	고정급의 0.24~1.74%
사망보험	고정급의 0.3%
노후보험	고정급의 5.7%(회사가 3.7%, 개인이 2% 부담)
건강보험	미혼자: 고정급의 3% 기혼자: 고정급의 6%

8. 조세제도

1) 거주자/비거주자의 지위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관행상 세무서는 국외재산으로부터의 비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외국국적 소유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 소득의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내부적인 급여 가이드라인이 세무사들의 외국 국적자가 신고한 근로 소득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과세소득 및 비용/세율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유동비용은 소득이나 현물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현금이 이동하는 수당은 과세된다. 자본옵션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

법인소득세율은 종전 과세표준별 분리적용(0-5 천만루피 : 10%, 5 천만-1 억루피 : 15%, 1 억초과 : 30%)에서 2009 년부터 단일세율(2009 년 : 28%, 2010 년 25%)로 변경되었다.

법인세율

2008년		2009년 개정
과세표준금액(루피아)	세율(%)	단일세율
최초금액부터 - 50,000,000	10	2009년 28%
50,000,001 - 100,000,000	15	2010년 25%
100,000,001 이상	30	

종전에 규정이 없던 기부금 공제제도가 신설되어 자연재해 복구 기부금, 교육비 기부금, 국가인정 체육 및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비영리 기업에 대한 면제조항이 신설되어 비영리기업의 경우 설립 후 4년간 면제적용을 받게 되었다.

또한 매출 500 억루피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주식의 40% 이상을 상장한 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소득세율은 종전 5 단계(0-2 천 5 백만: 5%, 2 천 5 백만-5 천만 : 10%, 5 천만-1 억 : 15%, 1-2 억 : 25%, 2 억초과 : 35%)에서 4 단계(0-5 천만 : 5%, 5 천만-2 억 5 천만 : 15%, 2 억 5 천만-5 억 : 25%, 5 억초과 30%)로 변경되면서 소득별 적용세율이 낮아졌다.

개인소득세율

2008년		2009년	
과세표준금액(루피아)	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최초금액부터 - 25,000,000	5	최초금액 - 50,000,000	5
25,000,001 - 50,000,000	10	50,000,001 - 250,000,000	15
50,000,001 - 100,000,000	15	250,000,001 - 500,000,000	25
100,000,001 - 200,000,000	25	500,000,001 이상	30
200,000,001 이상	35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종전 13,200,000 루피아에서 20% 높아진 15,840,000 루피아로 변경되었다.

3) 영역 및 거주

거주(인도네시아 시민이 아니거나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여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결정되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 시민은 국내 납세자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비거주인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과세협정의 조항을 적용 받는다.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 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 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 납세자는 국내 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자원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근로에 대한 현금보상에 대해 과세한다. (보통 20%의 원천징수세)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협정하에서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거주자는 그 근로자의 비용이 만약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도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4) 이중 과세 방지

외국인 세액공제 제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활용되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조세원칙에 의거 납부세액에 한정된다. 기타 수동적 소득에 대한 외국인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다. 외국인 자원 세액 공제에 대한 처리는 규정상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다.

4) 출국세

출국 시 거주자는 100만 루피아를 지불하였으나, 2009년부터 개인납세번호를 가진자에게는 면제되며, 비소지자는 200만 루피아로 인상되었다.

5)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고 15%에서 최저 5% 범위 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세율로서, 현재는 10%를 적용하고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투자 자금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자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신규 외국투자가 승인되면 환율은 승인된 투자액을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된다. BKPM이 승인한 환율은 투자계획이 승인된 후 후속 증가분을 포함한 총 외국투자가 결정될 때 외환시장에서의 현행 환율에 근거하고 있다. 환율변화에 따른 루피아 차액은 합작투자사의 회계장부에 할인 또는 Premium으로 계산된다. 이익배당금은 프리미엄에서 지급되지 않으나 청산시 송금자산의 일부를 형성한다.

나. 외국투자 및 기술의 등록

투자계획에는 주식자산, 부채자산, 기술지원협정 및 합작투자협정 초안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계획을 충족시킬만큼의 인도네시아로의 자금 이동은 외환 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Bank I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현금계정

인도네시아 화폐는 루피아(Rp.)이며 영업계약은 일반적으로 루피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계약이 외화 즉 달러나 엔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부관리의 외환체제는 통화 바스켓에 연동되어 있으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하여 확정하고 있다. 모든 주요 교역 통화에서 현금계정은 외국통화를 관리하는 은행으로부터 가능하다. 외국 통화의 현금 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라. 자본 및 이익의 송금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오랜 경제정책으로 외환통제는 없다.

□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청산 후 잔여금
 - 손해 배상
 - 인수비
 -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적재산권비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송금권을 제한 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자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투자자로부터 세금, 로얄티 및 기타 부과금 징수 시
 - 투자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 시

마. 태환불능에 대한 보장

모든 주요 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으며 IMF는 루피아가 완전히 태환 가능한 통화로 선언하였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화교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 전체 2억4천만 인구의 4%(약 1천만) 내외에 불과한 화교가 인니 경제계 주도
- 수하르토 집권('67) 이후 화교 공직진출 제한으로 대부분 경제계에서 활동
 - 상장기업 가운데 화교기업 비중 70% 이상

나. 가격 중시 시장

- '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비재 분야에서 바이어의 제품구매 결정요인으로 가격이 가장 중시되는 추세임.
- 루피아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음.
 - 품질보증기간(1년)만큼 사용 가능한 저가제품 구매 선호.
- 그러나 자본재와 사치재 분야에서는 가격 못지 않게 브랜드나 품질 AS등도 고려할 정도로 고급시장도 발달되어 있음.

다. 석유자원 의존형 경제구조

- 아시아 국가로서 유일한 OPEC 회원국(OPEC내 5% 생산비중)이나 2008년에 탈퇴 하였음.
 - 석유/가스는 인니 전체 수출의 21.2% (220억\$)차지 (2008년)
 - 한국의 대 인니수입중 원유/천연가스가 36.6% (41.4억불) 차지 (2007년)
- 2005년부터 국내 석유소비량이 생산량을 넘어서면서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략하였는데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와 석유탐사 및 발굴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아직도 석유 순수입국의 위치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임.

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인구 2억 4천만의 인구대국 (세계 4위)
- 수도권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 972,604 루피아(약105불) 수준의 저임금 노동시장
 - 2008년 전체 노동인구 중 8.5%에 달하는 실업률을 2009년까지 5%까지 끌어 내린다는 정책목표를 내걸고 있음.
 - 수도권 최저임금은 100불을 넘어서 지가 얼마 안되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낮음.

마. 외국자본 의존형 경제구조

- 자체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경제개발에 대외 의존도 심화
- 장기간 식민통치(네덜란드, 1602~1942)로 국민자본 형성 미흡
 - 일본이 최대투자국, 한국은 8위 (최근 한국의 투자가 늘면서 투자 건수에서는 1위임)
- IMF 경제위기때 화교들을 탄압하면서 화교자본(700억불 추정)이 대거 해외 유출되면서 축적자본이 고갈된 상황임

바. 유통구조

1) 유통구조

인도네시아는 “유통구조의 민족화”관점에서 외국기업의 유통업 참여를 배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유통구조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편이나 최근들어 대형매장에 한하여 외국기업의 소매업 참여가 허용되면서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미니마켓 체인점들이 늘어 나고 있다. 유통구조는 지극히 단순하며 수입상이 중간 유통구조를 거쳐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대형백화점이 직접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997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시장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요인이 되면서 수입상들이 직접 도매까지 겸하는 등 중간상인을 배제하면서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통신, 향만시설 등이 불충분하여 전국적인 상업 네트워크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따라서 자바섬과 그 외 도서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생산자와 소비자간 경제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2) 유통단계

수입상이 백화점 또는 대형 슈퍼마켓인 경우에는 직접 수입, 소비자 판매형태를 거치므로 도소매상간의 유통단계는 배제되며, 전문수입상이 수입을 할 경우에는 도매업자 또는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3) 수입품 유통단계별 마진

수입의 경우 직수입과 간접수입의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직수입의 경우 백화점,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원자재 수입 등이 해당된다. 간접 수입의 경우 브로커, 에이전트, 정부 대행 기관, 등록무역상 등을 통해 수입하게 되므로 2 - 10% 정도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10 - 30%의 마진을 붙여 소매상 또는 중간규모의 유통업체에 인도한다. 여기에 소매상 또는 중간규모의 유통업체가 약 30%의 마진을 붙이게 되어 최종 소비자가격 또는 RETAIL PRICE는 수입가격(CIF) + 수입세 + 부가세 + (기타 부과금 및 특소세) + HANDLING CHARGES + 기타 경비(각종 금융 수수료 및 보험료, 리스크 부담율) = 총수입가의 약 200 %가 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보통 총수입가의 50 - 100% 이상의 유통 마진을 예상, 기대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4) 주요 유통업체 현황

인도네시아 소매업협회(Aprindo)에 따르면 편의점 등 소형 소매점 4,861개, 슈퍼마켓 515개, 초대형 슈퍼마켓 75개가 운영중이라고 한다. 이들 소매유통체인의 총매출은 2005년 42조 루피아에서 2006년 50조 루피아로 늘어났고 2007년에는 58조5천억 루피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유통체인으로는 마따하리와 까르푸, 헤로, 마크로, 알파 등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최대 소매업체인 마따하리 뿌뜨라 프리마는 1조 루피아를 투자해 연내 백화점 5개, 대형 슈퍼마켓 11개 지점을 개장할 예정이라고 하며, 프랑스계 소매유통 기업인 까르푸도 금년에 인도네시아에 9개의 매장을 새로 개장함으로써 자카르타 및 인근 지역에 20개를 포함해 반둥, 족자카르타, 수라바야, 마까사르, 덴빠사르 등 총 30개 매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마크로는 2009년 한국의 롯데 마트가 인수하였고, 자카르타, 반둥, 스마랑, 수라바야, 발리, 솔로, 발릭빠반, 메단 및 뼈간baru 등 전국적으로 13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 재래시장의 굳은 입지

인도네시아 국민 소득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보니 저가품 지향의 구매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재래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최근들어 까르푸 등 대형할인매장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재래시장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함께 성장해 가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2. 물가정보

(1 US\$ = Rp.9,500 /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VND)
식품류	쌀 1kg	2.62
	계란 12개	2.1
	쇠고기 등심 1kg	13
	돼지고기 등심 1kg	8
	우유 500ml	0.73
	식용유 1L	2.62
	생수 1L	0.31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1.4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1.2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2.3
	김치찌개 1인분	6.3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1,2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15.8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15.8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26,911
	무연휘발유 1L	0.66
	자동차 등록비	가격의 20%
	자동차보험료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9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2.1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
	시내버스 기본요금	0.31
	택시 기본요금	0.63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05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57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18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21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2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2,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2,5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2,5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3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5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3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16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3개월
	연간 국경일수	15일
기타	주5일 근무 여부	부분시행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5.37

3. 바이어 발굴

가. 바이어 발굴 방법

바이어 발굴은 KOTRA 사업참가, 전시회참가, 각 산업별 단체 접촉, 바이어 DB, 웹사이트 검색, 전화번호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전시회 참가는 다수의 바이어를 직접 현장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가 높으나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사용하기 쉬운 방법은 자카르타 KBC를 통해 조사대행, 시장개척단 참가, 비즈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이나 교포기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현지 영문 웹사이트 중 인도네시아 기업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 인도네트워크(www.indonetnetwork.net): 약 13,000개 회사의 상품 및 기업 정보
- 인도넥스트(www.indonext.com): 약 56,000개 회사 디렉토리 수록
- 옐로우페이지(www.yellowpages.co.id): 인도네시아 전화번호부
- 수출촉진위원회(www.nafed.go.id/importer.php): 약 4,000개의 수입자 정보 수록
- 인도네시아 콤파스(www.kompassindo.co.id)
- 인도네시아 무역부(<http://www.depdag.go.id>)
- 인도네시아 산업부(www.dprin.go.id)

인도네시아 주요 전시회는 KOTRA의 전시포탈 홈페이지(www.gep.or.kr) 또는 자카르타 KBC 홈페이지(www.kotra.or.kr/jakarta)에서 전시정보를 선택하면 볼 수 있으며, 이외 각종 단체나 협회(첨부 리스트 참조)를 통해서도 회원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나. 바이어 접촉 시 유의 사항

자카르타 KBC를 방문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동남아 아시아는 미개척 시장으로 진출여지가 많은 편이며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시장 진출이 비교적 용이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며, 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 중 시장 진출의 첫 단계에 미숙한 바이어 접촉방법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아직도 상당수의 무역부 직원은 인도네시아의 바이어에게 e-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간단한 거래 제의서를 송부하고 즉각적인 회신이 없는 경우 관련 바이어와의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기업의 구매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구매 담당자 앞에는 항상 수없이 많은 거래 제의서가 쌓여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구매 담당자는 책상에 쌓여있는 거래 제의서를 읽어 보지도 않는 경우가 다반사고, 읽어 본다 해도 특별히 관심을 끄는 거래 제의서가 아니면 거래 제의서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끌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팩스 또는 e-메일을 바이어에게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다 성의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래 제의서를 송부하는 것이 해당 바이어와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인도네시아 바이어와의 효과적인 접촉 요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관련자료의 우편 송부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날 한국업체로부터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샘플, 가격표, 기술적인 특징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우편으로 받는다면 바이어는 이 자료를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단은 바이어의 관심 끌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바이어가 당장은 그 자료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자료를 검토해 볼 가능성이 높다. 즉, 완벽한 자료를 바이어에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편물 송부 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우편물의 분실 및 기업에 배달된 우편물의 경우 수신인에게 즉각 전달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여 송신인의 입장에서 우편물 수취인의 확인이 가능한 등기, 특사 배달 등의 통신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발송번호 등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다.

2) e-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검토결과 문의

자료를 보낸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팩스, 전화, e-메일 등으로 자료의 접수를 확인 하면서 검토 결과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물론 검토결과 관심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 바이어로 하여금 자료를 검토하도록 독촉하는 의미도 있고, 바이어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의 기능도 할 것이다. 단, 지나치게 독촉을 하는 경우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 여유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료를 보낸 후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검토결과를 묻는 것이 바이어를 배려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바이어는 한국업체의 진지함과 성실성, 그리고 합리성에 후한 점수를 줄 것이고 그만큼 거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3) e-메일 사용에 관하여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e-메일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바이어는 거래업체의 정체(identity)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다. 그런데 e-메일에는 보내는 업체의 회사로고라든지 보내는 사람의 서명 등 발신자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이 거의 없다. 즉, e-메일은 인도네시아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으로 볼 때 잘 맞지 않는 통신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들어 많은 인도네시아 업체들이 e-메일로 교신을 하고는 있지만 한국 실정에 비한다면 e-메일 교신이 크게 성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바이어가 선호하는 교신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e-메일 보다는 팩스가 낫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불필요한 광고가 e-메일로 발송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광고들과 동일하게 취급당해 바이어의 주목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e-메일은 서로가 잘 알고 난 후에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4) 홈페이지에 관하여

기업의 홈페이지는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소개자료로서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홈페이지의 제작은 필수적이며 최근 거의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이어에게 홈페이지를 방문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직도 많은 바이어들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우리만큼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바이어의 관심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다. 회사소개서의 중요성

회사소개서라고 하면 영어로는 보통 Company Profile이라고 하며, 회사에 관한 각종 정보가 수록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Catalogue가 그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는 자료라면 회사 소개서는 그 회사의 규모, 성격 등을 소개하는 자료다.

바이어는 이윤추구를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품질과 가격이다. 따라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그 제품은 바이어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고려대상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바이어는 대부분 화교로서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첫 거래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기존 거래선을 신규 거래선으로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를 뒤집어 본다면 첫 거래는 어렵지만 일단 거래선이 되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인도네시아 바이어에게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어떻게 첫 거래에 성공할 것인가”인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회사 소개서'이다. 왜냐하면 바이어는 품질과 가격이 좋은 제품을 수입하기를 원하며, 여기에 더하여 '지속적으로' 수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실한 공급자와의 거래보다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실한 공급자와의 거래를 원하고 있다.

바이어가 공급자의 건실함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장을 방문하는 것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회사소개서를 가지고 공급자의 건실함을 추측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소개서는 믿을 만한 회사라는 인식을 바이어에게 심어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는 대체로 회사소개서를 준비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제품 카탈로그는 보유한 반면, 회사소개서의 준비에는 소홀한 편이다. 따라서 회사소개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바로 회사소개서를 만들 것을 추천한다.

회사소개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아래 사항은 모두 영어로 작성)

- 기본사항: 회사명,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및 직위, 연락처 (전화, 팩스, e-메일)
- 일반사항: 모기업, 주요주주, 설립년도, 종업원수, 업종, 취급품목 종업원 수(기술자, 사무직, 임원, R&D), 주요 생산제품 및 제품별 연간 생산량
- 재정상태: 자본금, 거래은행명
- 영업상태: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액, 수출액, 주요 국내 및 해외고객(회사 및 국가명)
- 기타: R&D 방법, 주요 획득 인증 종류 및 획득 연도

위에 열거한 항목 중에서 회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 외에 추가정보를 포함하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사소개서가 그 회사의 규모, 성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한다면, 인도네시아 바이어는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는 경향이 강하며, 그 판단의 첫 자료가 회사소개서이기 때문에 회사소개서는 우편으로 접촉하든, 직접 상담을 하든, 바이어를 접촉할 때 갖추어야 할 필수자료이다.

라. 인도네시아 주요 Business Association

□ Construction-Equipment

- Indonesian Association of Construction Machineries Industry
 - Add: Jl. Cikini IV No. 15, Jakarta 10330
 - Tel: 62-21 322 646, 314 20 30
 - Fax: 62-21 314 20 30

□ Construction-Heavy Equipments

- Association of Indonesian Construction Equipment Hire & Rent
 - Add: Jl. Cikini IV No. 15, Jakarta 10330
 - Tel: 62-21 322 646, 314 20 30
 - Fax: 62-21 314 20 30

□ Contractors-Electrical Works

- Indonesian Electrical Works Contractors Association
 - Add: Komplek Setneg, Jl. Cempaka Putih Barat XXVI No. 30, Jakarta Pusat
 - Tel: 62-21 424 20 58, 913 60 60
 - Fax: 62-21 424 20 58

□ Contractors-General Works

- Indonesian 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 Add: Jl. Raya Pasar Minggu Km.17 No.11-A, Jakarta 12740
 - Tel: 62-21 798 16 70, 790 2426
 - Fax: 62-21 790 25 82

□ Contractors-Water Works

- Water Works Contractors Association
 - Add: Gedung CTC, 4th Floor, Jl. Kramat Raya No. 94-96, Jakarta Pusat
 - Tel: 62-21 392 84 70
 - Fax: 62-21 392 84 70

□ Cosmetics

- Indonesian Cosmetics Industries Association
 - Add: Jl. Sapta No. 68-A, Jakarta 12870
 - Tel: 62-21 83792601
 - Fax: 62-21 83792601

□ Electrical Cable

- Association of Indonesian Electrical Cabel Manufacturers
 - Add: Komplek Ketapang Indah B2/32, Jl. KH. Zainul Arifin, Jakarta 10130
 - Tel: 62-21 634 10 36, 600 11 13
 - Fax: 62-21 633 87 02

□ Fertilizer

- Indonesian Fertilizer Producers Association
 - Add: Gedung Pusri 6th Floor, Jl. Taman Anggrek Kemanggisan, Jakarta Barat
 - Tel: 62-21 548 40 57
 - Fax: 62-21 548 33 13

□ Fertilizer-Trade

- Indonesian Fertilizer Trade Association
 - Add: Rumah Maduma, Jl.Dr.sahardjo No.52,Jakarta 12970
 - Tel: 62-21 831 11 84
 - Fax: 62-21 831 11 85

□ Fiber, Synthetic

- Indonesia Synthetic Fiber Producers Association
 - Add: Jl. Raya Kebayoran Lama No. 33, Jakarta 11560
 - Tel: 62-21 530 54 14, 530 54 15
 - Fax: 62-21 530 54 15

□ Fishery

- Indonesia Fishery Industries Association
 - Add: Gedung ARSA 2nd Floor, Jl. Siaga Raya No. 31, Jakarta Selatan
 - Tel: 62-21 798 73 09
 - Fax: 62-21 798 73 09

□ Food Additive

- Indonesian Monosodium Glutamate & Glutamic Acid Producers Association
 - Add: Kedoya Elok Plaza Blok DC 52, Jl. Panjang, Jakarta
 - Tel: 62-21 580 61 09
 - Fax: 62-21 580 61 10

□ Footwear

- Association of Indonesian Shoes Manufacturers
 - Add: Gedung Langlang Asia Ruang A Jl. Daan Mogot No. 151, Jakarta 11510
 - Tel: 62-21 566 41 57, 566 08 57
 - Fax: 62-21 560 46 71

□ Furniture

- Indonesian Furniture & Handicraft Industries Association
 - Add: Jl. Pegambiran No.5A 3rd Floor, Rawamangun, Jakarta 13220
 - Tel: 62-21 478 640 28-64029
 - Fax: 62-21 478 640 31

□ Handicrafts

- Indonesian Furniture & Handicrafts Exporters & Producers Association
 - Add: Jl. Tomang Ancak No.10, Jakarta 11430
 - Tel: 62-21 560 18 62, 567 17 61
 - Fax: 62-21 560 18 70

□ Iron Steel, Galvanized

- Association of Indonesian GI Sheet Manufacturers
 - Ad: Jl. MT. Haryono Kav.31-32, Jakarta 12770
 - Tel: 62-21 799 50 09
 - Fax: 62-21 799 28 39

□ Machine Tools

- Association of Machine-Tools Industries
 - Add: Centra Mulia, Room 901 9th Floor, Jl. HR. Rasuna Said Kav.X-6 No.8, Jakarta Selatan
 - Tel: 62-21 252 96 56, 522 93 90
 - Fax: 62-21 252 50 69

□ Machinery-Agriculture

- Association of Indonesian Agriculture Machinery
 - Add: Jl. Cikini IV No.15, Jakarta 10330
 - Tel: 62-21 322 646
 - Fax: 62-21 325 974

□ Machinery-Industry

- Association of Indonesian Machinery Equipment Reconditioned Industries
 - Add: Jl. Cikini IV No.15, Jakarta 10330
 - Tel: 62-21 322 646, 314 20 30
 - Fax: 62-21 314 20 30

□ Metal, Foundry & Casting

- Indonesian Metal, Foundry and Casting Association
 - Add: Jl. Rawa Buaya No.6, Jakarta 11740
 - Tel: 62-21 544 07 17
 - Fax: 62-21 619 17 39

□ Metal Works & Machinery

- Metal Works & Machinery Industries Association
 - Add: Jl. Cikini IV/15, Jakarta 10330
 - Tel: 62-21 322 646
 - Fax.: 62-21 325 974

□ Mineral, Industrial

- Indonesian Industrial Mineral Association
 - Add: Menara Duta 1st Floor, Jl. HR Rasuna Said, Jakarta 10340
 - Tel: 62-21 829 33 12
 - Fax: 62-21 829 33 12

□ Mining

- Indonesia Mining Association
 - Add: Jl. Prof.Supomo 10, Jakarta 12870
 - Tel: 62-21 830 36 32
 - Fax: 62-21 828 07 63

□ Mining-Precious Metals

- Indonesian Precious Metals Association
 - Add: GALVA Building 5th Floor, Jl. Hayam Wiuruk No. 27A, Jakarta 10120
 - Tel: 62-21 385 12 02, 385 49 91
 - Fax: 62-21 381 27 13

□ Motor

- Indonesi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Jl. Cikini IV No. 15, Jakarta 10330
 - Tel: 62-21 322 646
 - Fax: 62-21 325 974

□ Motor Car-Component

- Association of Motor-Car Components Producers
 - Add: Taman Palem Lestari, Ruko Blok D1/16,Jl.Lingkar Barat,Jakarta 11730
 - Tel: 62-21 556 07 63 – 07 65
 - Fax: 62-21 556 07 63

□ Motor Car-Manufactures

- Association of Indonesian Automotive Industries
 - Add: Jl. HOS Cokroaminoto No. 6, Jakarta 10350
 - Tel: 62-21 314 21 00
 - Fax: 62-21 314 21 00

□ Motorcycle

- Association of Indonesian Motorcycles Assemblers & Manufacturers
 - Add: D/a PT Daan Motor Vespa Indonesia, Jl. Perintis Kemerdekaan, Jakarta 14250
 - Tel: 62-21 452 35 45, 452 33 11 ext.180
 - Fax: 62-21 452 35 55

□ Optics

- Indonesian Optical Association
 - Add: Jl. Panglima Polim Raya 125-A, Jakarta 12160
 - Tel: 62-21 739 36 17, 739 28 53
 - Fax: 62-21 724 47 87

□ Paint

- Indonesian Paint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Jl. Menteng Raya 27, Jakarta 10340
 - Tel: 62-21 390 90 18
 - Fax: 62-21 375 30 43

□ Palm Oil

- Indonesian Palm Oil Producers Association
 - Add: Jl. Brigjen Katamso, Medan
 - Tel: 62-61 517 614, 518 614, 332 694
 - Fax: 62-21 336 919

□ Paper and Pulp

- Indonesia Pulp and Paper Association
 - Add: Jl. Cimandiri 6 flat 1 No.2, Jakarta 10330
 - Tel: 62-21 314 43 11, 326 084
 - Fax: 62-21 314 01 68

□ Pharmacies

-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Enterprises of Indonesia
 - Add: Jl. Mangga Besar Raya 183 4 th fl, Jakarta 10730
 - Tel: 62-21 639 50 31, Fax: 62-21 639 50 31

□ Plastic Pipe

- Association of Plastic Pipes Industries
 - Add: Gedung Alia 7th Floor, Jl. MI Ridwan Rais 8-10, Jakarta 10110
 - Tel: 62-21 386 77 17, Fax: 62-21 386 76 86

□ Plastic Products

- Indonesian Plastic Goods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Jl. Tebet Dalam 4 No. 67, Jakarta
 - Tel: 62-21 829 97 90, Fax: 62-21 829 97 90

□ Rubber Crumb

- Rubber Association of Indonesia
- Add: Jl. Cideng Barat 62-A, Jakarta 10150
- Tel: 62-21 384 68 13, 350 15 10, Fax: 62-21 384 68 13, 384 68 11

□ Ship Builders

- Indonesian Ship Building and Offshore Industry Association
- Add: Griya Inti Sentosa Blok O/53, Jl. Griya Agung 77, Jakarta 14350
- Tel: 62-21 640 42 53, Fax: 62-21 640 42 53

□ Steel Mills

- Indonesian Steel Factories Association
- Add: Wisma Baja 4th Floor, Jl. Gatot Subroto Kav. 59, Jakarta Selatan

□ Steel Products

- Association of Steel Goods Industries
- Add: Komp.Rasa Sayang E-36, Jl. Daan Mogot (Pesing), Jakarta 11460
- Tel: 62-21 566 20 25, 566 20 26

□ Telecommunication

- Telecommunication Equipment & Services Association
- Add: Gedung Multi Eka Karma, Jl. Kap. Tendean No. 15, Jakarta Selatan
- Tel: 62-21 791 918 21 – 918 23
- Fax: 62-21 791 928 22

□ Textile

- Indonesian Textile Association
- Add: Adhi Graha 16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 Tel: 62-21 527 21 71
- Fax: 62-21 527 21 66

□ Textile-Garment

- Association of Apparel Manufacturers
- Add: Gedung Sasana Kriya 2nd Floor, Taman Mini Indonesia Indah, Jakarta Timur
- Tel: 62-21 840 33 31
- Fax: 62-21 840 47 50

□ Textile-Woven

- Indonesian Textile Woven Association
- Add: Jl. P. Jayakarta No. 46 AA, Jakarta 10730
- Tel: 62-21 639 27 65
- Fax: 62-21 639 27 65

□ Textile Yarn Spinning

- Yarn Spinning Industries Association
 - Add: Jl. Iskandarsyah II/90, Jakarta 12120
 - Tel: 62-21 720 61 65
 - Fax: 62-21 725 01 87

□ Trade-Importers

- Importer Association of Indonesia
 - Add: Gedung Bank Niaga 1st Floor, Jl.MH Thamrin No.55, Jakarta 10350
 - Tel: 62-21 391 10 57 - 10 59
 - Fax: 62-21 391 10 60

□ Tire Manufacturers

- Tire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Gedung Gani Djemat, 3rd Floor, Jl. Imam Bonjol, Jakarta Pusat
 - Tel: 62-21 390 28 68 - 28 69
 - Fax: 62-21 390 28 69

□ Welding-Industries

- Indonesian Welding Industry Association
 - Add: Jl. Pulo Gadung No. 45 Kawasan Industri Pulo Gadung, Jakarta 13930
 - Tel: 62-21 489 34 73, 489 33 45
 - Fax: 62-21 560 11 30

□ Woodbase Industries

- Furniture Industries & Handicraft Association
 - Add: Gedung Kehutanan Block IV, 5th Floor, Jl. Gatot Subroto, Jakarta 10270
 - Tel: 62-21 573 78 88, 570 02 49
 - Fax: 62-21 570 46 19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일반 사항

인도네시아인들은 300여 년간 언어에 능통한 화란인들의 지배를 받은 탓인지 언어에 대한 능력과 관심이 높은 편이다. 영어도 비교적 쉽게 배우며 비즈니스맨들은 상당수가 영어를 구사할 줄 안다. 영어든 인도네시아어든 언어를 잘 구사하여야 인도네시아인들의 인정을 받기 쉽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절차는 비서진으로부터 시작한다.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개인비서를 두고 있으며 행정절차나 서류진행 상태가 비서의 손에 달려있어 비서를 잘 사귀어 두면 일하기가 편해지는 일이 많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시간관념이 약한 편이다. 특히 자카르타 시내의 경우 교통혼잡이 워낙 심해 10분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상대방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 시간 약속을 정해 찾아가는 경우에는 교통 혼잡을 고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는 것이 좋다.

특히 중국 화교상들은 네고를 많이 하려 들기 때문에 가격, 지불조건 등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사전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또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편지나 e-메일보다는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현지 출장을 가거나 한국으로 초청하여 상담하는 것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서양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준비가 비교적 철저한 편이고 또 상대방에게 요구도 한다. 따라서 상담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확실한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미팅 자체를 거부하는 경영진들도 많다. 시장개척단 행사에 참가하는 바이어 중에서도 상담자료를 사전에 서면으로 준비해와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고 체크하여 우리 세일즈맨을 진땀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비즈니스 의사소통

1) 바이어 교신

바이어와의 교신은 주로 FAX를 이용한다. 인터넷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e-Mail 사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편이다. 나이가 든 바이어 들은 e-메일 주소가 아예 없거나, e-메일 주소가 있어도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젊은 바이어 위주로 e-Mail 사용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샘플을 보내는 경우 상대방과 발송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배송료는 누구 부담인지, 일반 우편인지, 특사 우편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샘플을 찾을 때 샘플에 따라 관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우체국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보내는 편에서는 이런 관계를 잘 모르니 바이어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든지 교신은 신속히 해야 한다. 바이어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의 하나가 한국 기업들은 회신이 늦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바이어들도 결정이 빠른 것은 아니나, 일단 요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회신을 해주는 것이 좋다.

2) 비즈니스 에티켓

인도네시아인들은 의복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날씨 탓도 있겠지만 통상 서양과 같은 정장 차림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만 착용하며, 공식적인 행사라도 바틱(Batik)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남방 셔츠는 허용이 된다. 바틱은 원래 수작업으로 천에 염색을 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통상 이렇게 만든 천, 또는 의상을 그냥 바틱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인도네시아의 귀족들이 사용하던 전통 옷감으로 수공예품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으나 지금은 기계로 대량 생산도 하여 일반 시민들도 많이 입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APEC 정 상회담에 각국 원수들이 똑같이 입고 사진을 찍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셔츠가 바틱 의 상이다.

또한 무더운 날씨 탓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해도 상의는 입지 않는 수가 많으며, 노타이 차림이 일반적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대체로 체격이 왜소하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린 검은 색으로, 정장을 입지 않으면 그저 시장 잡상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겉모습만 보고 바이어를 판단하면 오해를 하는 일이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인들은 기본적으로 'Terima Dulu Kasih Lagi'(인도네시아어로, take and give의 뜻)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먼저 받고 준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어로 고맙다는 뜻이 '뜨리마 까시(Terima Kasih)'이다. 방문할 때 간단한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주 접촉하여 얼굴을 익히게 하고, 때로는 집을 방문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상대 파트너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이다.

또 우리 기업인들이 만나는 인도네시아의 고급 공무원, 대기업 사장이나 간부들은 자부심이 강한 경우가 많으므로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못산다고 하여 인도네시아인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한국인들이 종종 있는데, 자신이 상대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자신보다 한참 위의 상류사회 사람이란 걸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의 테러 사태와 관련 이슬람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인들은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독실한 신자들도 많으니 이슬람을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이슬람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할 경우 자신은 이슬람인이 아니라도 알코올 음료나 돼지고기 요리 등 상대방이 싫어하는 음식은 피해야 하며, 왼손은 화장실에서 배변 후 물로 세정을 하는데 사용하므로 가급적 악수나 식사 시에는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자세가 비즈니스에서도 에티켓의 기본이다.

3) 문화적 특성

인도네시아는 300여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전체인구의 절반 가량은 자바(Jawa)인이고 기타 북 수마트라의 아체(Ache)인, 중부 수마트라의 바탁(Batak)인, 서부 자와의 순다(Sunda)인, 슬라웨시의 토라자(Toraja)인, 발리섬의 발리(Bali)인 등이 주요 종족들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약 5%(1,000만 명)에 이르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도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종족의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며, 특히 주류인 자바인들은 타종족에 비해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수카르노 대통령시절에 실패한 공산 혁명으로 인해 수하르토 집권 30여 년 동안 박해를 받아 중국 말이나 글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중국식 이름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중국계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종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급적 종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지만 이슬람교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독교가 6%, 카톨릭이 3%, 불교 2%, 힌두교가 1.8%, 유교가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이슬람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여서 있으며 기독교나 유교와 같은 종교가 늘고 있다.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엔 반드시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종교는 인정이 되지 않았었으며, 종교가 없는 것은 곧 공산주의자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인식이 남아 있어 종교가 없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유교는 2006년에 여섯 번째 종교로 인정되었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지만 이슬람이 대다수이다 보니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이다.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코란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식품(할랄/Halal)과 먹을 수 없는 식품(하람/Haram)이 있다. Haram의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와 알코올 음료이다. 도박 또한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이슬람교도들은 왼손을 좌욕 등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머리는 영혼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린 아이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

또한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회씩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장, 사무실 등에도 기도실을 마련해주고 있다. 현지직원들을 급히 찾을 때 기도하고 있어서 찾을 수 없었다면 짜증이 나는 수도 있지만 이는 법으로도 보장된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금요일이 휴일이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도가 많지만 서양과 같이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인들은 금요일 예배(보통 11:30~13:00)는 반드시 보기 때문에(기독교 신자들의 일요일 예배처럼) 금요일 오전 11시 이후의 미팅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비즈니스의 주류를 이루는 화교계 비즈니스맨들은 이슬람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금요일 오후 약속도 가능하다.

다. 수입관행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으로 가격 시장이다. 인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가격이 수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부유층도 수적으로 만만치가 않다. 인구의 약 10%를 중산층 이상으로 볼 때 2,0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1만 5,000달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경제발전예 따라 중산층의 규모도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들은 값싼 인도네시아산이나 중국산을 소비하고, 부유층들은 유럽, 미국, 일본제를 구매한다. 중산층들은 중국산을 쓰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선진국산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하여 새로운 가격대의 상품을 찾게 되는데, 한국 상품들이 이 틈새를 파고 들고 있다. 한국의 중저가 화장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는 중국산을 취급하는 바이어보다는 선진국산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을 접촉하는 것이 좋다. 중국산 수입 바이어는 가격을 중국산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도국 소비자들이 비슷하지만 인도네시아 소비자들도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인기가 높아진 한류 드라마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환거래가 자유화 되어있어 수입 대금 결제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 큰 거래에는 L/C를 사용하지만 전통적으로는 T/T를 선호한다. 지금도 소액의 거래에는 T/T가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 대금 지급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일부는 계약 시, 잔금은 선적 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가 진행되다 보면 신용거래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 주의를 요한다.

특히 자본재의 경우,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현지은행이나 수출보험공사와 같이 현지 신용도 조사가 가능한 기관과 연계된 신용공여를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시즌은 품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가장 큰 구매시즌은 라마단 금식기간이 끝나는 르바란 휴일이다. 이 때는 우리나라의 추석명절처럼 선물을 사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는 인구의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이 밖에 중국 화교들은 구정, 외국인들이나 기독교 인들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가 큰 구매 시즌이다.

라. 거래 시 유의 사항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 관계를 중요시 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정 부패와도 관련이 있다. 정부나 정치계의 실력자와 연계가 되어있어야 사업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4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한 수하르토 대통령 때 대통령 측근이 이권에 많이 개입하면서 인맥에 의한 비즈니스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누구누구 실력자와 아는 사이라면서 접근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정말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며, 특히 비즈니스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화교상인들과는 돈독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사이면 웬만한 일로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스킨십이 필요하여 서신이나 전화로만 상담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얼굴을 맞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빠른 결정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너무 조급하면 바이어에게 끌려가거나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인들은 'No' 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상대방과 대립하거나 반목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 탓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에서 긍정과 부정을 느껴야지 말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다. 현지에 세일즈 출장을 왔을 때는 적극성을 보였던 바이어가 사후에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고, 사후 연락하면 즉답을 피하곤 하는 일이 많은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지나친 기대도 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중국계 화교상인들의 경우 특히 상대방을 조바심나게 하는 일이 많다. 이것만 해결해주면 거래하겠다고 하고 하여 들어주면 아무 대답이 없다가 이쪽에서 재촉하면 다시 다른 요구를 하고, 하여 우리측을 지치고 손들게 만드는 일이 많다. 중국인들은 네고를 잘하니 항상 이점을 염두에 두고 오퍼를 하고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지 말고 조금씩 들어주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인들은 거래를 시작하면서 독점 에이전트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2년 거래 관계를 보아 가면서 독점권을 주겠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가급적 물건은 여기저기 뿌리지 않는 것이 좋다. 금방 시장에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바이어를 1~2군데 정도만 정하여 물건을 파는 것이 좋다.

마. 조심해야 할 바이어/거래/사기 유형

중소기업의 거래는 T/T 거래가 많은데,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물건을 받고 대금을 안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처음 거래에서는 대금을 잘 지급하다가 차츰 외상을 요구하면서 대금을 떼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 많은 편은 아니며, 바이어의 신용상태를 중간중간 파악하면서 거래하면 큰 문제는 없다.

프로젝트 거래의 경우 현지의 유력 인사를 잘 안다든지, 프로젝트 허가를 사전에 받았든지 하면서 우리 기업에 접근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로는 정무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니 현지 유력 인사를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는 일단 조심을 하고 해당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또 최근 들어 광업권 등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 2005년에 한국에서 발전용 석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을 희망하는 에이전트들이 많아짐에 따라 인도네시아 브로커들이 석탄을 공급해 주겠다고, 광업권을 가지고 있으니 공동 개발하자는 식으로 우리 기업들에 접근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

광산 개발 같은 이권 사업은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광업회사는 몇 개 안 되고 이미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어 신규 공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바. 인도네시아 식약청 허가 관련 사항

인도네시아에서 식품류, 의약품, 화장품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허가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의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던가 직접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이어를 통해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1) Administration Data(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시확인 필요 서류)

- Letter of Declaration(한국의 완제품 Maker 명의로 작성)
- Free Sale Certificate(한국 식약청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급)
- Manufacturing Certificate(Maker 영문양식)
- Agentship Agreement(수출업체 & 수입업체 / 판매 대리점간의 약정)
- Letter of Appointment&Authorization(한국의 Maker가 현지의 판매 대리점을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식약청 관련업무의 대행을 위임하는 내용)
- 영문 사업자 등록증(한국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 Company Profile(회사 정보가 포함된 Brochure로 대체 가능)
- 해당 상품에 대한 영문 Catalogue

상기 서류들을 1 Set로 작성하여 국내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서류 작성 후 인도네시아 대사관(상무관)을 사전에 방문하여 서류 검토 및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시간, 비용상 바람직하다. 상무관실을 경유해 영사과에서 서류를 확인받은 후 Technical Data와 함께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출한다.

2) Technical Data(공정, 성분 등에 관한 기술적인 자료)

이 자료들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실제 작성 과정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1차 제출한 후에도 많은 횟수에 걸쳐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것들이다.

- Certificate of Formular(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Recipe)
- Function of each Ingredient(상기 각 원료의 기능과 역할)

- Specification of Raw Materials(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료에 대한 개별적인 Specification 또는 문헌 자료)
- Certificate of Analysis(COA) of Raw Materials(각 원재료 성분에 대한 분석 증명서로서 원료 공급처에서 작성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검수보고서로도 대체 가능함)
- Manufacturing Procedure(제조 공정 - 특별히 공개 할 수 없는 Know-How 에 속하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을 것을 권유함)
- Finished Product Technical Specification(완제품의 Properties에 대한 간단한 Specification)
- Method of Analysis for the Finished Product(상기 6항의 완제품 Spec.의 각 항목에 대한 검사, 측정 방법 약속)
- Stability of Product & Expiry Date(제품의 안정성 및 유효기일 측정과 검사 결과)
- Product Code Number(제품 생산 Lot No. 및 고유 번호 표기 방법)
- Packaging Information(포장 방법-외 포장/내포장 함량 및 포장재 전개도 사진, 제품 사진)
- Art Work / Label(별도로 부착 시킬 라벨, 표식 등)
- Sample: 제품의 Sample 2 Pcs.
- 기타(현지 식약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수시로 요구되는 불특정한 서류와 자료로서 적절한 요령과 인내가 필요함)

주 1: 이상 언급된 내용 중에서 1항과 2항은 1건으로 Combine 할 것.

주 2: 4항의 COA는 3항에 언급된 각 원료의 Spec.에 첨부, 보완하는 형식임.

주 3: 5항의 제조 공정은 개괄적인 공정 흐름만 표시할 것.

주 4: 6항의 완제품 Spec.은 간단한 물리, 화학적 성상(Properties)을 나타내며 그에 대한 검수 방법이 7항으로 표시됨.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무역 애로사항

인도네시아는 2억 3,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잠재력이 큰 시장임에도 가격에 가장 민감한 시장이면서 동시에 국제화가 진행되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크다는 점이 인도네시아와 교역할 때 우리 기업들에게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인 바이어들의 외상거래와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받아 느리고 느슨한 거래 진행이 한국 수출업체들을 답답하게 한다.

그리고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기로 되어 있던 한-ASEAN FTA도 인도네시아 측의 행정 지연으로 실제발효가 7월 1일로 늦어졌으며, 이마저도 현지 세관 적용은 12월 초부터 이루어지는 등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울러 통관절차 및 서류, 규제의 증가를 통한 비관세장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적절하게 대비해야 한다.

나. 투자진출 애로사항

노동자 최저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기업은 종전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2003년 개정된 신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규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이를 적용하는 공무원들의 행태와 부정부패가 투자진출 기업들에게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잦은 공휴일과 낮은 생산성 그리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개발되고 있다는 점 이 약점이다. 최근에는 전력부족으로 인하여 공장설립시 전력공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되고있다.

다. 투자진출업체 애로사항

1)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및 커미션 요구

부가세를 납부한 후, 1년 이내에 환급받게 되어 있으나, 이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세무공무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2)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

노동법상 해고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등 임금관련 규정의 불합리로 인하여 탄력적인 노동력 운용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자진퇴사자에 대해서는 '해고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불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를 해고시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자진 퇴사자들도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해고당하는 것을 선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3) 초과근무 수당의 과다

초과근무 허용시간이 경쟁국대비 과소하며, 초과근무 수당지급기준은 과다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 1일 초과근무한도는 3시간(정상근무시간 8시간), 1주 초과한도 근무는 14시간으로 경쟁국인 베트남에 비하여 초과근무 가능시간이 상당히 적으며, 초과근무 수당비용도 주변국에 비해서 높아서, 최초 1시간은 150%이며, 다음 1시간부터는 200%이고, 공휴일의 overtime은 최초 7시간은 200%이고, 그 다음부터는 300%이다.

4) 특정 사업분야에 합작투자 규정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현지인과의 합작투자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분야들이 있어 100% 단독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Regulation of President 2007년 111호)

합작투자 의무 분야(외국자본 취득 가능 최대 지분)

- 예시
 - Power Plant, Power Transmission: 95%
 - Medicine Industry: 75%
 - Insurance Agent Company: 80%
 - Toll Road Business: 95%
 - Private Per School, Elementary/Junior/High School: 49%
 - Non Formal Education: 49%
 - Public Good Transport: 49%
 - Rice cultivation(25Ha 이상): 49%
 - Corn Cultivation(25Ha 이상): 95%

5)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에서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에이전트가 사업진행을 이유로 사례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최근 반부패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6) 체류연장 수속 비용 부담

매년 체류연장을 받아야 하며, 수속 시마다 기술능력 개발기금 명목으로 매년 1,200달러(월 1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대기업(성공사례)

- 업체: KORINDO
- 업종: 합판, 제지, 조림, 팜오일, 배터리 등
- 매출규모: 약 8억 달러
- 종업원 수: 약 2만 5,000명(한국인 약 250명)
- 진출시기: 1969년

K사는 목재사업을 기반으로 각 사업분야에서 인도네시아에 토착화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K사가 처음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밀림에서 사업을 벌인 것이 1969년이었으며, 지금 K사는 연간 8억 달러(미화)의 매출액을 올리며 인도네시아 20위권의 재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K사의 직원 수는 총 2만50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240여 명으로, 핵심 직책은 대부분 이들 한국인이 맡고 있다. 6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벌목사업을 시작한 곳은 K사 뿐 아니라,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벌목 회사들도 경쟁하였으나, 험난한 작업 환경과 원주민들과의 불화 등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K사는 79년에 합판 사업에도 진출하여, 생산하는 합판은 연간 80만 평방미터 규모로, 인도네시아 전체 합판 생산량(350만 ㎡)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현재 K사는 인도네시아 내에 2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목재 사업 외에도 컨테이너, 화학, 신발, 무역, 물류, 금융, 부동산, 건설 사업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팜농장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사업 진출, 한국산 트럭 조립 생산, 풍력발전장비 제조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분야를 발굴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나. 대기업(성공사례)

- 업체: KIDECO
- 업종: 석탄개발
- 투자규모: 3억2,000만 달러
- 종업원 수: 약 5,000명(한국인 약 37명)
- 진출시기: 1982년

키데코는 1982년 인도네시아 석탄사업에 진출, 현재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규모의 석탄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세번째로 많은 석탄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체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IDECO의 모회사인 삼탄은 1962년 설립돼 국내에서 무연탄을 생산, 공급해 왔으며 80년대 초 정부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차원에서 추진하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 82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칼리만탄섬 파시르 지역의 광산 개발권을 따내고 KIDECO를 설립했다. 이후 KIDECO는 11년간 탐사와 타당성 조사, 그리고 도로, 항만, 생산설비 등의 인프라 구축을 거쳐 1993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키데코의 성장동력은 우선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투자를 꼽을 수 있다. 일반 기업들이라면 10년동안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만 들어가는 사업체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이미 국내에서 자원분야에 투자한 노하우를 가지고 장기간 투자가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키데코만의 우수한 광산기술보유도 성공의 열쇠가 되고 있다. 즉 호주, 미국, 일본 등 광산 선진국에서도 탄맥이 수직(60도 이상) 탄층으로 발달되어 있는 석탄의 경우에는 채굴을 기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사들보다 깊은 곳까지 채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수직탄층개발이라는 독자적인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광업진흥공사,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였다.

다. 중소기업(성공사례)

- 업체명: S사(업체명 비공개)
- 업종: 플라스틱 사출
- 매출규모: 약 1,200만 달러
- 종업원 수: 632명
- 진출연도: 1995

자카르타 부근 짜카랑공단에 위치해 있으며,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것은 인력난 때문이었다. 현지화를 위해 이전의 회사명도 S사라는 현지어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생산 제품은 플라스틱 사출물, 실리콘러버 등으로, 리모콘, 텔레비전 프런트패널, DVD 전면커버 등이 주 생산 품목이다.

매출은 주 납품업체인 삼성전자가 75%, 현지 진출 외국계 전자업체(일본의 나카지마 알프스 전자와 그리스계인 렉스, 프랑스계인 메코인도 등)가 25% 수준이며, ABS, PP, 나일론 등 원료는 현지업체나 한국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성공요인은 첫째, 연구개발과 품질개선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최고 품질을 위한 혁신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을 인라인화하여, 사출, 러버, 표면처리도 품질 관리를 위해 협력업체에 맡기지 않고 공장에 시설을 갖추고 직접 하고 있다.

둘째, 현지화를 위하여 사명을 바꾼 것은 물론 직원들을 위하여, 야유회,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한국으로도 연수를 보내기도 한다. 한국으로 연수차 파견된 근로자들은 인도네시아 급여의 10배 가량을 받으며 이러한 현지화 정책으로 직원 이직률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기업 위주의 납품패턴에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오토바이용 리어박스(콘솔박스)를 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간편하게 보온과 보냉이 되는 드링크 용기도 아이디어 제품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라. 중소기업(실패사례)

- 업종: 전기조립 및 프레스
- 매출규모: N/A
- 종업원 수: 200명
- 진출연도: 2002

이 회사는 국내 대기업인 S전기 인도네시아 공장의 가전용 모터부품 하청업체로서 2002년에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2005년부터 VTR 등 가전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한국산제품이 중국제품에 밀리면서 삼성, LG 등 대기업도 생산라인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소싱 방법을 바꾸게 되었으며, 모터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삼성전기에 납품했던 동사도 영업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2006년에 들어 서면서 삼성전기의 인도네시아 모터 사업부가 없어지면서, 삼성전기에 부품을 납품하던 동업체도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하게 되었다.

대기업 해외공장의 현지 하청업체들은 제품공급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대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회사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인원 및 생산인력만 운용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케팅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택 여건

주거형태로 나누어 아파트, 주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997년 폭동 이후 단독주택의 보안을 보장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아파트로 거주지를 선택, 외국인들 및 부자들의 수요가 확대됨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전반적 부동산 경기가 상승 추세를 보여 자카르타 지역의 아파트 임차료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방 3개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 주로 찾는 아파트의 경우 월 임차료가 1,500~2,000달러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아파트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와 매니지먼트 회사가 운영하는 아파트로 나뉘는데 대부분 개인 소유의 아파트가 많으며, 이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한 임차 절차가 일반적이며, 아파트들은 Full / Semi / Non Furnished 등으로 구분 되고, 각 형태에 따라 같은 아파트라도 임차료에 차이가 있다.

최소 임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며, 장기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 전체에 대한 임차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 이어서 목돈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전력사용료의 경우 다소 비싼 편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방 3개 기준 월 전력 사용료가 150달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에어컨을 입주자가 구입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 물색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자녀교육환경

초, 중, 고등학생을 둔 외국인 부모는 자녀를 나이, 학년에 맞추어 국제학교 (INTERNATIONAL SCHOOL)에 입학시킬 수 있다. 국제학교는 여러 개가 있으므로 학비 수준 및 학교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문의를 하고 간단한 입학 시험을 거치면 맞는 시기에 입학할 수 있다.

주요 국제학교로는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국제학교(JIKS)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에는 JIS(미국계), BIS(영국계), AIS(호주계), NJIS(미국계), 간디스쿨(인도계), SIS (싱가폴계) 등과 영어로 수업을 하는 인도네시아계 국제학교들이 있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타 아시아 지역보다 좋은 편에 속한다.

JIS는 전세계 미국계 학교 중 상위 5위 이내의 명문학교라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 학생이 많다는 단점과, 저학년(1~6학년)은 경쟁이 심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입학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JIS(미국계), BIS(영국계)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아 신입생 입학 경쟁이 치열하며, 현재 외국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JIS와 BIS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외국계 국제학교에도 한국인 학생이 많은 편이다.

자카르타 내에 있는 국제학교는 다음과 같다.

□ JIKS(Jakarta International Korean School)

자카르타 내의 한국인학교로서 한국의 교육방침과 똑같이 운영된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편성되어 있으며 약 45개 학급에 한국인 학생만 1,100명 정도가 재학 중이다.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입학제한이 없으며 학비는 2009년도 1학기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학기당 1,830달러, 중학교 학기당 1,980달러, 고등학교가 학기당 2,130달러 이고 건축기금이 500달러, 입학금 1,000달러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JIS(Jakarta International School)

국제학교로는 학비가 가장 비싸며 자율적인 서양의 교육방식답게 학생 개개인의 특별활동을 보장한다. 입학시 등록비 250달러, 기부금 1만 4,000달러/4년을 납부하며, 수업료로 유치원은 1만 2,600달러/1년, 초등학교 1만 7,300달러/1년, 중학교 1만 9,930달러/1년, 고등학교 1만 9,930달러/1년을 각각 지불한다. 기부금은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 회사가 4년치를 선납하도록 되어있으며 매년 3,500달러씩 공제하고 중간 퇴학 시 잔액은 환불한다. 학비를 개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년 3,500달러씩 지불한다. 또한 수업료도 1년치를 선납해야 한다. 학기는 매년 8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난다.

□ BIS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영국학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만이 입학이 허용되고 특별한 입학금이 없다.

등록비는 150달러이고 유치원 7,500달러, 초등진학반 1만 2,180달러, 초등학교 1~2학년 1만 4,500달러/1년, 초등학교 3~6학년 1만 5,600달러/1년, 중학교 1만 7,900와 고등학교 1만 8,600달러/1년을 각각 지불한다. BIS 역시 매년 가을인 9월에 학기가 시작한다.

□ NJIS (North Jakarta International School)

자카르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NJIS는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와 아직은 많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다. 입학 시 등록금은 100달러이며, 매년 기부금을 2,500 달러씩 납부해야 한다. 수업료는 유치원 7,350달러/1년, 초등진학반 9,500달러/1년 초등학교 1만 2,200달러/1년, 중고등 학교 12,700달러/1년을 각각 지불한다.

□ AIS(Australian International School Indonesia)

자카르타 남쪽에 위치한 호주계 학교로서 약 650명의 학생을 가진 중견 인터내셔널 학교이다.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 발리와 뼈자텐 지역에도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 ACG (ACG International School Jakarta)

뉴질랜드 학교로 자카르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에 개설되어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은 학생수도 다른 곳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입학시 등록금 150달러이며, 매년 기부금을 2,500달러씩 납부해야 한다. 수업료는 유치원 6,500달러/1년, 초등학교 1학년 8,500달러/1년, 초등학교 2학년 9,500달러/1년, 초등학교 3~6학년 1만 2,000달러/1년, 중고등학교 1만 3,000달러/1년이다.

□ GMS (Gandih Memorial School)

JIS나 한국국제학교 다음으로 한국인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인도국제학교인 Gandih 스쿨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비가 전부 똑같으며 기부금이 기본으로 2,550달러/1학기(6개월), 학비가 275달러/월이다.

다. 한국식품 조달여건

현지에서의 한국식품은 자카르타를 포함하여 수라바야 등 대도시에서 구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가격도 통상 한국 소매가격의 1.5배 정도로, 외국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크게 비싸지는 않은 편이다. 기타 한국 사람에게 필요한 장류(고추장, 된장류)도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몇 년간 주재할 목적으로 입국 시 이사짐에 몇 년치 물품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때 그때 필요한 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한국식품 구입처
 - 무궁화 (자카르타): (021)772 214, 720 0812
 - 뉴서울수퍼 (자카르타): (021) 725 0520
 - 한일마트(자카르타): (021)723-2086/7
 - COSMOS-일본계(자카르타): (021)720 6811
 - 한 양 (끌라빠가딩): (021)450 4363/4

라. 생필품 구입여건

자카르타는 국제적인 도시로서 대형백화점에서는 세계 유명브랜드 물품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입상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부족한 물건이 전혀 없을 정도로 모든 물자가 풍족하다.

마. 일반 사항

1) 교통·통신·우편제도

- 교통수단: 택시이용은 쉬운 편, 요금도 비싸지 않으나 외국인에게는 길을 돌아가거나 잔돈이 없다는 방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많음.
- 통신: 호텔, 백화점, 슈퍼마켓, 공항 이외에는 공중전화 이용이 어려우므로, 현지에서 저렴한 휴대폰과 통화바우처(5만, 10만 루피아)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우편제도: 우편 이용시 연착, 분실되는 경우 종종 발생, DHL 등 속달 이용 권장
-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월평균 미화 150달러 소요(방 3개 기준), 전화. 수도료는 사용량 기준

2) 환전

- 은행, 호텔, 공항, 기타 환전소에서 현지화로 환전 가능
- 은행에서 달러화 인출시 현금인출 수수료(0.5% 내외) 공제(여행자 수표의 경우 취급하는 은행이 제한적임)
- 달러 지폐는 1999년 이후 발행된 신권이 통용가능하며 지폐에 낙서나 조금 찢어진 경우 통용에 제약이 따름. 특히 달러를 접어 사용한 경우 환전시 수수료 불이익을 당함
- 외환의 입 출금, 송금은 무제한

3) 은행, 우체국, 박물관 등 영업시간 및 휴무일

- 은행: 월~금요일 09:00~14:30
- 우체국: 월~금요일 09:00~15:00
- 박물관: 09:00~14:00
- 일반상점: 10:00~20:00
- 백화점: 10:00~21:00

4) TIP 제도

- 일류호텔, 레스토랑: 10% 봉사료가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5~10% 정도
- 택시 운전수: 1,000루피아 정도
- 공항 포터나 벨보이: 짐 1개당 5,000루피아 정도
-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팁을 주는 것이 관례임.

5) 동포 현황

- 총 인원: 약 3만 5,000('09.9월)
 - 대부분 장 단기 체류자이며, 주재국 국적 취득자는 소수에 불과
- 동포단체: 재인니 한인회(회장: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재인니 부인회, 지방대도시 한인회
- 한국국제학교: 교사 110명(교육부 파견교사 4명), 학생 수 1,100여 명

6) 종교활동

- 참빛교회, 연합교회, 주님의 교회, 동부교회, 선교교회, 소망교회 등 13곳의 한인교회
- 한국신부주재 가톨릭 성당 소재
- 불교의 경우 스님 없이 자체적으로 사원 운영(2곳)

7) 호텔

- 호텔 가격은 여타 지역에 비해 적절한 수준임.
 - 최고급 호텔(GRAND HAYTT, Ritz-Carlton): 1박 미화 200달러
 - 고급 호텔(MANDARIN, HILTON, MULIA): 1박 미화 120달러 (한국의 5성급임)
 - 중급 호텔(PRESIDENT, INDONESIA, CENTURY PARK): 1박 미화 40달러

바. 출입국 관련

- 사증(비자) 및 노동 허가
 - 비자가 필요하나 관광, 회의 참가 등인 경우 30일 이내 체류한다는 조건 아래 자카르타 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함. (8. 출장 가이드 참조)
 - 그러나 도착비자는 기간연장이 안되므로 부임 입국과 같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사증을 받고 입국해야 함.
 - 특히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이 허용됨.

사. 의료 건강(예방 접종 등)

- 한국 내 일반 의약품은 현지 열대 기후의 특성상 큰 효능이 없으며 다만, 항생제, 지사제, 파스, 모기약 정도는 가져 오는 것이 좋음.
 - 한국 식품점에 웬만한 한국 의약품이 있으나, 가격이 국내의 2~3배임.
- 한국계 주요 병원
 - 뉴월드 메디칼 클리닉: 021 7279-3809
 - 서울 메디칼: 021 799-1333
 - 대한치과: 021-721-1850
 - 솔 한의원: 021-7278-7410
- 현지 주요 병원
 - RS MEDISTRA : 021-521-0200
 - RS PONDOK INDAH : 021-765-7525

아. 체류 시 유의사항

1) 건강 유의사항

- 계속되는 냉방 속의 생활로 냉방병(감기, 두통, 신경통 등)과 무기력증 지속
 - 규칙적인 적절한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 식사를 제때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 과음을 자제함이 건강 유지에 바람직
- 장티푸스, 세균성 식중독, 파라티푸스, 담석증, 요도 결석, 치주염 등 빈발
 - 식수, 양치는 AQUA, ADES 등 정수된 물을 사용
 - 일반 현지 음식 및 음료 이용은 지양.
 - 식당에서 가급적 음료수에 얼음을 넣어 먹지 않도록 해야 함.

2) 전화, 전기, 수도 사정 불량

- 전화접촉률 저조 및 빈번한 고장
- 수도는 수질의 불량으로 음료 및 취사에 사용 불가
 -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은 지하수보다 상수도가 훨씬 좋으므로 상수도 사용 권장

3) 국민성 및 풍습

- 왼손으로 용변을 처리하는 습관 때문에 왼손으로 사람의 신체를 건드리거나 악수나 물건을 건네면 실례

4) 치안 불안지역(여행자제 요망)

- 자카르타 시내
 - 동부 자카르타: Pulo Gadung, Gajah Mada, Kota, Cawang
 - 서부 자카르타: Slipi, Daan Mogot, Pluit
 - 중부 자카르타: Tanah Abang, Senen, Kemayoran, Cililitan, Cempaka Putih
 - 북부 자카르타: Koja(TG. PRIOK), Kramat Tunggak
 - 남부 자카르타: Blok M, 스나얀 경기장
- 기타: 아체, 말루쿠, 동티모르 지역

(참고: 기타 단기체류정보는 8. 출장가이드 참조 요망)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인구는 약 2억 3,000만 명, 면적은 190만 km²이다. 인도네시아는 '동인도의 섬들'이란 뜻을 가졌는데 적도를 따라 북위 6도-남위 11도, 동경 95-141도 지역에 6,000여 개의 무인도를 포함한 1만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그 섬들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르면서 아시아와 대양주의 징검 다리처럼 적도 위에 펼쳐져 있다. 그 중 수마트라, 자와,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등 5개 섬이 중심이 된다.

기후는 전형적으로 열대성으로 고온다습하며,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구분된다. 우기는 10~3월경, 건기는 4~9월경이다. 우기에는 하루 약 1시간 정도의 스콜이 집중적으로 내리며 일단 스콜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개는 것이 열대 우기의 특징이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우기의 특징이 조금씩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우기가 4~5월까지 길어지고 비도 하루 종일 내린다든지 2~3일 계속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는 비가 하루 잠깐씩 내려 충분히 빗물이 빠질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배수시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들어 물난리로 생명과 가옥을 잃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25~28도, 습도는 73~87%이다.

복장은 일년 내내 여름 옷으로 생활한다. 따라서 반팔 셔츠가 기본이나 사무실에 주로 근무하는 사무직의 경우 장시간 에어컨에 노출되므로 긴 팔 셔츠를 입는 경우도 있다. 바지는 주로 긴바지를 입는 것이 예의이므로 가급적 외출시에는 반바지를 피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에어컨을 강하게 작동시켜 놓고 있어 의외로 감기에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출장자들은 호텔 방의 찬 공기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수가 많으니 주의 해야 한다. 외부의 더운 기후와 실내의 찬 기온 간의 온도 차가 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시차/ 근무시간

1) 시차

- 西部(자카르타): GMT+7, KST-2(자카르타 오전9시가 한국은 오전 11시로 한국이 2시간 빠름)
- 中部(발리): GMT + 8, KST - 1
- 東部(이리안자야): GMT + 9, KST - 0

2) 근무시간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월~목요일은 08:00~16:00, 금요일은 08:00~11:30, 13:00~16:30. 토요일은 휴무. 금요일은 이슬람의 주일로서 12시 예배를 위해 오전 근무를 30분 앞당기는 대신 오후 근무를 30분 연장함.
- 민간기업: 08:00~17:00 (금요일 오후는 많은 기업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음).

□ 은행

평일 근무시간은 08:00~15:00까지이며 토요일에는 국영은행을 포함, 전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음. SOGO 백화점 빠사라야 등 대형백화점에는 환전소가 있으므로 주말에 환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음.

□ 금요일

오후시간(12:00~13:00) 회교 대예배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위시해서 민간기업, 심지어는 가게까지 업무 공백이 있으므로 상담 또는 비즈니스 방문 시 금요일 오후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여타 종교인은 무관함)

- 한국대사관: (평일) 08:30~16:30, 토요일 휴무
- KOTRA KBC: (평일) 08:00~17:00, 토요일 휴무

다. 주요 단위

구분	단위	비고
길 이	미터법	단 골프장의 경우에는 야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음
무 게	그램(gr), 킬로그램(kg), 톤(ton)	식당에서는 스테이크 계, 가재 등은 온스로 함
부 피	리터(Liter), 킬로리터, CBM	
전기규격	220V와트(Watt)	한국처럼 라운드 형 플러그 사용함, 50Hz로 주파수가 다름
방송 방식	PAL 방식	
온 도	섭씨(Celcius)	
화폐 단위	루피아	미국처럼 천 단위로 끊으며, Milliar가 백만이 아닌 10억(Billion)인 것임에 주의하기 바람.

라. 출입국/비자

비자 발급은 각국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4년 1월까지만 해도 한국관광객의 경우 2개월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였으나, 2004년 2월부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광입국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22개국에 대해서는 공항(또는 항구)에 도착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교관, 관용여권의 경우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2004년 5월부터 14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2004년 6월부터 한국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14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최장 3개월 부여)

그러나 일반 여권의 경우 비자를 반드시 한국에서 받을 필요는 없으며 도착지 비자제도가 있어 도착지 공항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30일간).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한 공항과 항구는 다음과 같은 바,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비자를 받아 와야 한다.

- 공항(7)
 -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삐켄baru)
- 항구(13)
 -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이상 Bintan), Belawan항(메단), Sibolga항(북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Tanjung Priok항(자카르타),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도착비자는 관광, 사회, 문화, 공용의 목적에 한하고 상용비자인 경우 출국지에서 받아야 하니 세일즈 출장의 경우에도 관광이라고 얘기한다. 입국카드에 방문목적은 적을 때 Holiday 또는 leisure 란에 체크를 한다. 비즈니스 출장자들은 습관적으로 Business란에 체크를 하는 수가 있는데, 비자발급 시 또는 입국심사 시 한국에서 상용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시비를 걸며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비자 수수료는 7일 체류 시까지 미화 10달러, 8~30일은 미화 25달러이다. 그리고 도착 비자를 받으면 체제목적 변경과 체재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종전에는 3일 체류까지는 10달러, 4~30일은 25달러였으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05년 8월 1일부터 단기체류 기간을 7일로 연장하였다. 이는 관광객들이 가급적 오래 체류토록 하기 위함이다.

도착비자 받는 요령은 공항 입국심사 전에 도착비자 받는 창구가 있으므로 이 창구에서 먼저 비자 수수료를 내고, 다음 창구에서 여권 상에 도착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도장을 받는다. 그러나 시장개척단과 같이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비자는 서울의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 대사: JAKOB S H.H.L TOBING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1-877
- 전화: (02) 783-5675/7(비자 및 영사업무), 782-8555
- 팩스: (02) 780-4280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인도네시아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입국시점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탑승을 거부하지만, 제 3국을 경유하여 오는 경우 아무런 제지없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수가 있다. 이때는 공항 이민국에서 입국을 거부하여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며 해결책으로 고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수도 있다.

또 한가지, 간혹 가다 해외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은 여권의 비자란이 꼭 차서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부착할 면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해결책으로 고액을 요구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와 상기 공항 및 항구 이외의 지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 신청 시 비자 발급 신청서 2부와 여권사진 2매, 왕복 비행기표 사본이 필요하고, 상용은 출장명령서 원본과 사본, 방문비자는 초청장 원본과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3-4일 정도가 걸리며 여행사에 부탁하면 된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단 인도네시아 도착 전 6일 이내에 콜레라 오염지구를 통과한 경우 예방 접종증을 요구하므로 제시하여야 한다.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비디오 카메라 등 고가 제품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나, 자진 신고를 안 한데 대한 벌이익은 별로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기지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는 기재하지 않는다.

면세 반입은 술 1 리터, 담배 20갑 이며, 외화 소지, 반입은 자유로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화폐를 1억 루피아 이상 반출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포르노물, 마약은 반입이 금지된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마약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니 유의해야 한다.

2005년 7월 발리에 입국한 호주의 한 여자 관광객 짐에서 소량의 마약이 발견되었는데, 본인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짐에 넣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20년 징역형을 선고하여 양국간의 외교문제가 된 일이 있다. 마약범은 거의 사형이다.

입국 및 출국 카드가 우리나라와 같이 두 면으로 되어 있어, 입국심사대에서 출국카드는 절단하여 돌려준다. 출국카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출국카드를 분실하면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공항 입국 시 출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마중을 나온 일행과 못 만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출구를 정확하게 지정해 두어야 한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짐 찾는 곳이 좌우 둘로 나뉘어져 있고, 짐을 찾고 나가는 출구가 각각 따로 있는데, 출구를 나가면 다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 마중 나온 사람이 정확한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들어진다.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경우, 짐을 찾는 곳에서 가까운 출구로 세관검사를 통과하고 나가면 다시 두 갈래로 길이 갈리므로 나갈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서로 약속해 두어야 한다. 만약 일정 시간까지 못 만날 경우에는 1층 입국장 출구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 안에서 만나기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출국 시에는 통상 비행기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절차를 밟아야 하며 공항세는 국제선이 10만 루피아이며 국내선은 1만5,000~2만 루피아가 징수된다. 그러나 지상사 요원과 같이 현지 거주증을 소지한 사람은 내국인으로 간주 출국 시 추가로 100만 루피아를 납부해야 한다. 출입국시 외화의 소지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자카르타에 입국해서 바로 수라바야, 메단, 발리 등 다른 도시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카르타 공항은 국제선이 있는 2청사와 2청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국내선 전용의 1청사로 구분된다. 2청사는 국제선 전용이나,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루다 항공과 라이온 항공 국내선도 같이 이용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항공사 국내선은 1청사를 이용하니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행기 Transit 때문에 공항 근처에서 1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Sheraton Bandara 호텔이나 공항 2청사 내에 있는 Quality호텔을 이용하면 좋다. Sheraton 호텔은 공항에서 10분 거리로 공항 내에 안내데스크가 있고,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Quality Hotel은 공항 내에 있어 이동할 필요가 없는 편리한 점이 있으나, 수준은 좀 쳐진다. 1박 비용은 양쪽 모두 미화 90\$ 수준이며 Quality Hotel의 경우 6시간 미만 쉬어 갈 경우 50달러를 받는다. (호텔 연락처는 호텔 항목 참조)

마. 환전

인도네시아의 화폐단위는 루피아(RUPIAH)이며, 지폐는 1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등 6가지가 있다. 동전은 25, 50, 100, 500루피아의 4종류가 있으며 드물게 5, 10 루피아 짜리도 볼 수 있으나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다. 10,000루피아, 20,000루피아, 50,000 루피아, 100,000 루피아 지폐는 2004년 말~2005년에 걸쳐 신 화폐가 발권되어 구 화폐와 혼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호텔이나 일부 한국 식당, 한국 수퍼를 제외하고는 달러가 거의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화로 환전을 해야 한다. 환전을 해 주는 경우에도 환율이 상당히 불리하므로 기억해두어야 한다.

환전은 공항출구, 일반백화점, 공인 환전소, 은행, 호텔 등에서 쉽게 할 수 있으나, 환율은 BCA, BII 은행 등 은행이 가장 좋고 다음으로 공인환전소, 일반백화점, 공항출구, 호텔 순이다. SOGO 백화점의 경우 국영은행 출장소가 있어서 영업시간까지 환전을 해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급하게 환전을 하여야 할 경우 저녁 9시까지 영업하는 동 출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 달러화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로 환전 시 달러화 지폐에 흠이 없는 99년 이후 발권된 새 돈이어야 환전이 용이하다. 은행 및 환전소에서는 달러화 지폐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환전 및 입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지폐가 접혀있거나, 도장이 찍혀있다거나, 볼펜으로 조금이나마 낙서를 했다거나 하면 환전이 안되거나 환전에 응하더라도 환율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보통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화 100달러짜리 중에서도 지폐 번호가 CB, DB, DF, DH로 시작되는 것은 위폐가 많다하여 환전을 거부하는 일이 많으니 한국에서 미화 환전 시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위폐가 발견되면 중앙은행에서 각 은행, 환전상에 지폐번호를 추가로 고지한다.

또한 일반 환율은 100달러짜리 지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50달러 이하의 소액 달러 지폐들은 환율 적용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때는 소액권은 피하고 가급적 100달러짜리 신권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간혹 1달러짜리를 서비스 팁으로 현지인들에게 주기 위해 일부러 가져오기도 하는데, 현지인들은 1달러의 절반가치 밖에 안되는 현지화폐 5,000루피아를 더 고맙게 받으므로 소액 미화 달러를 일부러 가져올 필요는 없다. 아울러 여행자 수표의 경우 환전이 매우 어려운 바 가급적 현찰을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호텔,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통용이 잘 되는 편이다.

최근에는 국내 공항의 은행에서 한화를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로 직접 교환하여 주므로 한국에서 직접 루피아화로 환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조만간 인도네시아의 지정된 은행이나 환전소에서도 한화를 루피아화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9년 1월 - 9월 루피아/1US\$ 환율 추이

(단위: 루피아)

날짜	30-Jan	27-Feb	31-Mar	30-Apr	29-May	30-Jun	31-Jul	31-Aug	11-Sep
환율	11,355	11,980	11,575	10,713	10,340	10,225	9,920	10,060	9,920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바. 교통

1) 대중교통

1997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치안불안 상황이 노정되고 있어 방문객 특히 외국인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버스 등 대중교통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BUS WAY라고 해서 전철 대신에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전용도로 이용 버스는 그 중 서비스가 나은 편이므로 대중 교통수단 중에는 그나마 가장 추천할 만한 교통수단이다. 1회 탑승 시 3,500루피아이다.

택시의 경우에는 운송 그룹인 Blue Bird사가 운영하는 검은색의 Silver Bird(한국의 모범 택시에 해당) 또는 파란색의 Blue Bird 라고 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택시를 타는 경우 요금을 속이거나 강도를 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Silver Bird는 흑색, Blue Bird는 청색이나, 일반택시가 대부분 청색이기 때문에 택시 측면 또는 후면의 Blue Bird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니면 공항, 호텔 프런트, 사무실 또는 공공건물 입구 Car Call 서비스에 요청하여 반드시 Silver Bird 또는 Blue Bird를 불러도 좋다. Blue Bird 보다는 Silver Bird가 차나 서비스 면에서 더 우수하다. 그리고 Golden Bird도 있는데, 이는 리무진 서비스로 호텔에 얘기하면 시간제로 빌릴 수 있으나 상당히 고가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용할 필요는 없다.

- Silver Bird 및 Blue Bird 호출 Tel: (021) 794-1234

Blue Bird 는 기본요금 5,000루피아에 1km 추가 주행에 2,500루피아가 부과되며, Silver Bird는 기본요금 6,000루피아에 1km 추가 주행 시 3,200루피아가 부과된다. 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이고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자카르타 시내는 교통 체증이 워낙 심해 택시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때가 많다. 그러나 요금 자체가 비싼 것은 아니다. 택시회사에 택시를 부른 경우 최소 요금이 2만5,000 루피아가여서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2만5,000 루피아를 지불해야 한다.

2) 철도

인도네시아를 달리는 열차는 국유열차 PJKA가 있으며, 총 연장 6,000km인데 이 중에서 4,000km는 자와, 마두라섬에 있고 나머지는 수마트라 섬에 있다. 기차표 구입은 언제든지 정거장에서 출발 1 시간 전에 가능하나 여행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여행사를 통하여 미리미리 예매하는 것이 좋다.

3) 항공

인도네시아는 국토의 특성상 육상운송이 낙후되어있어 항공운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항공사도 국영항공인 가루다 항공을 비롯하여 소규모의 국내선 항공사들이 여러 개 있다. 주요 국내선 항공사들로는 Lion Air, Merpati Air, Mandala Air, Adam Air, Efata Air, Jatayu Air, Batavia Air, Kartika Air, Pelita Air, Star Air, Sriwijaya Air 등이 있다. 가고자 하는 행선지는 여행사를 통해서 또는 공항에서 항공권을 직접 구입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선(짧은 구간) 일부는 예매가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일찍 공항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제선은 자카르타에서 인근 싱가포르, 방콕, 호지민, 시드니 등에 직항편이 운항된다. 한국과의 항공편은 KAL이 매일 1회 운항한다. 아시아나는 주 3회 운항하였으나, 2005년 8월 조종사 파업 이후 운항이 중단되었다.

KAL 항공기는 오후 3시 20분에 인천을 출발하여 자카르타에 오후 8시 10분 도착하며, 이 비행기가 밤 9시 40분에 다시 자카르타를 출발, 다음날 아침 6시 40분에 인천에 도착한다. 서울-자카르타 간 비행시간은 약 7시간이다. 가루다 항공은 자카르타 서울편을 KAL과 코드쉐어 방식으로 운항하고 있다. 인천-발리편은 KAL이 주 4회 운항하고 있는데, 매주 월, 수, 금, 일요일 밤 10시 5분에 인천을 출발, 다음날 오전 01시 55분에 발리의 덴파사 공항에 도착한다. 이 비행기가 03시 10분에 다시 발리를 떠나 인천에 오전 11시 05분에 도착하니 발리->인천 비행기는 화, 목, 토, 월요일에 있는 셈이다. 가루다 항공도 2006년 4월부터 발리(덴파사)-인천 항공편을 매일 1편씩 운항하고 있다.

국내선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국내 도시들로 출장을 다닐 때, 여행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루다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국내선들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한두 시간 연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제선과 연계해 탑승하려다 비행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4) 공항에서 목적지 찾아가기

자카르타 공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각 공항에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다.

택시는 일반택시, 블루버드(BLUE BIRD), 모범택시에 해당하는 실버버드(SILVER BIRD, 실제 차의 색상은 검은색이고 그랜저 구모델을 닮았음)의 3종류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택시라 할 수 있는 블루버드 택시는 공항 내 대기가 안 되므로 입국 시 이용이 어려우니, 보통 공항 대기권을 가진 일반 택시와 별도 지정구역을 가진 실버버드 택시를 주로 이용한다.

일반 택시들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격을 흥정해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모범택시 격인 실버버드와 동일하다. 보통 자카르타 시내까지 15만 루피아 선이다.

공항에서 자카르타 시내까지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며, 택시요금은 일반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면 10만 루피아(8.5달러)정도이나, 실제 흥정은 10만 루피아에 고속도로 통행료 1만 루피아가 합쳐서 최대 15만 루피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범택시 격인 실버버드는 미터기로 운행하므로 12만 루피아(13달러) 정도에도 가능하므로 가급적 실버버드를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카르타 KBC를 찾아오시려면

공항에서나 시내에서 택시를 타시고 '끼따 뿌르기 꼬 위즈마게까베이(Wisma GKBI) 디 잘란 수디르만'이라고 하면 되고 만일 기사가 위치를 잘 모르는 눈치일 경우에는 '위즈마 게까베이 드갓 숄탄호텔(Sultan Hotel) 단 스망기몰(Semanggi Mall)' 이라고 하시면 대충 알아들을 것이다. 드갓은 '근처'라는 인도네시아 말이며, 인도네시아식 알파벳 발음은 T를 'tt'로 해야한다.

사. 통신

1) 공중전화

인도네시아에서는 호텔이나 공항 등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길거리에서는 WARTEL(와르텔: 가게를 뜻하는 Warung과 Telephone의 합성어)이라고 전화기를 설치한 가게에서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다.

공중전화 거는 방법은 버튼식으로 우리나라와 같다. 공중전화인 경우 100루피아로 1분 동안 통화할 수 있으며 카드(Rp. 10,000~100,000권)를 구입할 시 국제전화 및 지방에도 통화가 가능하지만 카드식은 전화가 많지 않은 것이 흠이므로 호텔 체크인시 카드식 전화 유무를 살펴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의 통화 시 카드를 구입하여 호텔 및 백화점, 일반 공공장소에서 항시 통화할 수 있다. 통화 방식은 001 + 82(한국코드)+ 2(서울코드) + 원하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국 식당 등에서는 한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한국할인전화 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 전화보다 요금이 50~70% 저렴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통신의 수신자 부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동 서비스 번호는 001-801-82 이다. 호텔과 공공장소(공항 등)에서 수화기를 들고 동 전화번호를 누르면 한국 교환원이 '여보세요' 하면서 원하는 전화 번호를 묻는데 번호를 제시하면 통화가 가능하다.

2) 휴대폰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는 핸드폰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없다. 국내 SK 텔레콤 휴대폰의 경우 자동로밍 서비스가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모드만 바꾸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금은 비싼 편이다. 인도네시아는 GSM과 CDMA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GSM이 먼저 도입되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CDMA는 2003년 말에 처음 도입되어 아직 점유율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지 만 통화품질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휴대폰은 SIM Card란 칩을 장착하는 형태이며, 요금도 미리 카드를 사서 입력 시키는 선불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출장자들도 핸드폰을 구입하여, SIM Card를 사서 칩을 장착하고 선불카드(보통 10만 루피아)를 사서 요금을 입력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폰도 저가폰은 40만~50만 루피아 (50~60달러)면 구입이 가능하니, 장기 출장자 혹은 수시로 출장오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아예 휴대폰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3) 인터넷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하다. 대부분의 일류호텔은 방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요금은 보통 하루에 미화 10불 정도이다. 방에서 인터넷 접속이 안되면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거리의 PC 방도 이용할 수 있다. PC Café 또는 Warnet(와르넷: 가게를 뜻하는 Warung과 Internet의 합성어)이라고 불리는 PC 방이 많이 있는데, 시간당 요금은 지역과 가게마다 달라 4,000루피아에서 8,000루피아까지 받으며 학교 근처가 저렴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ADSL가 이제 도입단계에 있으며 대개 일반 전화 라인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 속도가 128K 정도로 매우 느리다. 이에 한국 출장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4) 특사운송

인도네시아에서 특사운송은 주로 DHL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서류의 경우에는 0.5킬로 이하가 2만 5,000원 정도에서 시작해 매 0.5킬로 늘어날 때마다 1만 3,000~1만 4,000원씩 인상되는 수준이 기업운송요금이라고 한다. 소포의 경우에는 0.5kg 이하가 6만 7,000원 정도에서 시작해 매 0.5kg 늘어날 때마다 1만 2,000~1만 4,000원씩 인상된다.

아. 호텔/식당

1) 호텔

자카르타 호텔들은 대부분 고급호텔들이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어 한국 호텔보다도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지만 가격대는 좀 더 저렴한 편이며, KBC를 통해서 예약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예약이 가능하다.

- SHANGRI-LA HOTEL
 - BNI City Complex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usat
 - Phone: (62-21) 5707440
 - Fax: (62-21) 5702657
 - Rooms: 669
 - Class: *****

- HOTEL MULIA SENAYAN
 - Jl. Asia Afrika Senayan, Jakarta
 - Phone: (62-21) 5747777
 - Fax: (62-21) 5747888
 - Class: *****

- JAKARTA HILTON INTERNATIONAL HOTEL
 - Jl. Gatot Subroto PO .BOX 3315, Jakarta Selatan
 - Phone: (62-21) 5703600, 587981, 583051
 - Fax: (62-21) 5733089, 5733091
 - Rooms: 1130
 - Class: *****

- GRAND HYATT JAKARTA HOTEL
 - 4th Floor Plaza Indonesia Jl. MH Thamrin 28-30
 - PO BOX 4546/JKT 10045
 - Phone: (62-21) 3107400,3901234
 - Fax: (62-21) 334321,3107300
 - Rooms: 450
 - Class: *****

- MIDPLAZA INTER-CONTINENTAL HOTEL
 - Jl. Jen. Sudirman Kav.10-11 Jakarta 10220
 - Phone: (62-21) 2510888
 - Fax: (62-21) 2511777, 2512807
 - Class: *****

- BOROBUDUR JAKARTA HOTEL
 - Jl. Lapangan Banteng Selatan PO.BOX.1329 JKT Jakarta Pusat
 - Phone: (62-21) 3805555, 3440300
 - Fax: (62-21) 380 9595, 359741
 - Rooms: 864
 - Class: *****

- LE MERIDIEN JAKARTA HOTEL
 - Jl.Jend Sudirman Kav. 18-20 Jakarta Pusat
 - Phone: (62-21) 5711414, 2513131
 - Fax: (62-21) 5711640
 - Rooms: 267
 - Class: *****

- MANDARIN ORIENTAL HOTEL
 - Jl. MH Thamrin PO BOX 3392 Jakarta Pusat
 - Phone: (62-21) 3141307
 - Fax: (62-21) 314860
 - Rooms: 455
 - Class: *****

- FOUR SEASON HOTEL
 - Jl. H.R Rasuna Said, Jakarta 12920
 - Phone: (62-21) 2523456
 - Fax: (62-21) 2524480
 - Class: *****

- SAHID JAYA HOTEL & TOWER
 - Jl. Jend Sudirman 86 PO BOX 41 Jakarta Pusat
 - Phone: (62-21) 5704444
 - Fax : (62-21) 5733168
 - Rooms: 750
 - Class: *****

- LE CRISTAL HOTEL
 - Jl. Tarogong Raya 17 Pondok Indah Jakarta Selatan 12430
 - Phone: (62-21) 7507050-60/70
 - Fax: (62-21) 7507110
 - Rooms: 328
 - Class: *****

- ANCOL TRAVELODGE
 - Jl. Lodan Timur No.7 Jakarta Utara 14430
 - Phone: (62-21) 6405641
 - Fax: (62-21) 3405645
 - Rooms: 309
 - Class: ****

- CENTURY PARK HOTEL
 - Jl. Pintu I Senayan, Jakarta Pusat
 - Phone: (62-21) 5712041
 - Fax: (62-21) 571219-3
 - Rooms: 630
 - Class: ***

- Quality Hotel(Jakarta Airport Hotel)
 - Terminal 2E,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Jakarta
 - Phone: (62-21)559-0008
 - Fax: (62-21)559-0018
 - Class: ***

- Sheraton Bandara Hotel
 -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Jakarta
 - Phone: (62-21)559-7777
 - Fax: (62-21)559-7700
 - Class: *****

2) 식당

인도네시아 식당에서 계산서 상에 세금과 팁(Tax 밑에 Service로 명시됨)이 미리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만일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별도의 도장이나 표시가 계산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약 10%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 한식당

자카르타에는 약 80개의 한국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음식가격은 탕이나 찌게류는 6~7달러로 한국보다는 다소 비싸고, 고기류는 싼 편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한국 식당들은 자카르타 남부와 땅거랑, 찌까랑 등 한국인 및 기업 소재지에 몰려 있다.

① 자카르타 중부

- 가 나
 - 주소: Landmark Bid. Ground Floor, JL. Jalan Sudirman No.1 Jakarta
 - TEL: 252-0077, 571-0909
 - 참고: 북어 요리 전문의 일반식당
- 뉴 코리아타워
 - TEL: 3193-0311/0112
 - 주소: Bank Bumi Daya Plaza 30th Fl Jl Imam Bonjol No. 61 Jakarta 10310
 - 참고: 자카르타 중심부 30층 고층빌딩에 소재

② 자카르타 남부

- 다 솔
 - TEL: 251-2030, 251-2031
 - 주소: KOMPLEX TAMAN RIA SENAYAN UNIT E2, 1, JL.GERBANG PEMUDA NO.3 JAKARTA 10720
 - 참고: 공항가는 고속도로와 인접, 공항출영송시 유리
- 대감집
 - TEL. 7279-4206
 - 주소: JL. MELAWAI VI/IA (BLOCK M), Jakarta
- 산타 코리아
 - TEL: 720-6091, 722-9911
 - 주소: Jl. Senayan No.2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 참고: 강장/보양식 전문
- 가효
 - TEL: 5289-7044
 - 주소: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arta Selatan
 - 참고: 곱창, 갈비 전문

- 마포식당
 - TEL: 7279-2479
 - 주소: Jl. Senayan No.19,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 참고: 탕종류가 유명함
- 수라청
 - TEL : 527-8721, 527-8722
 - Jl. Senopati No. 49 Kebayoran Baru, Jakarta
 - 참고: 연회장 구비
- 토 박
 - TEL. 720-3642, 7280-0753
 - 주소: Jl. Woltermonginsidi No.30, Jakarta
 - 참고: 깔끔하고 정갈한 일반 한식
- 토 담
 - TEL. 521-0230
 - 주소: Jl. Senopati No. 55 Kebayoran Baru, Jakarta
 - 참고: 손칼국수 전문
- 한국관
 - TEL. 726-2703, 720-7322
 - 주소: JL JEND SUDIRMAN NO.1, Jakarta (HILTON HOTEL에서 1.5KM)
 - 참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한국식당
- City Seoul
 - TEL: 5289-7506
 - 주소: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arta Selatan
 - 참고: 깔끔하고 정갈한 일반 한식

2) 중식당

- 가야성(TEL. 720-9355): 한국식 중식당
- 놀라얀 (TEL. 570-0235)
- 밍 가든 (TEL. 521-0505)
- 드레곤 시티 (TEL. 522-1933)
- Ahyat Seafood(TEL 570-5333)
- Christal Jade Palace (TEL 574-4888)

3) 일식당

- 김삿갓(TEL 722-2230): 사시미, 스시 전문점
- Bushido (TEL 570-0723): Sahid Jaya 호텔 내
- Honzen(TEL 570-7796): Midplaza Inter Continental 호텔 내
- Kyoka(TEL 526-6688)
- Kirishima(TEL 526-8080): Gran Melia Hotel 내
- Asuka(TEL 5798-8888): Marriot호텔 내

4) Steak House

- Angus House (TEL 570-0198)
- The Grill (TEL 570-6200)

5)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 Sate Tomang(TEL 567-3243):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인도네시아 식당
- Sari Kuring(TEL 515-5302): 한국사람이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대중 식당
- Pondok Laguna(TEL 345-9991): 한국사람이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대중 식당
- Kembang Goula(TEL 520-5651): 서구식 고급 인도네시아 식당
- Sari Bundu(TEL 633-0575): 인도네시아의 매운 음식을 대표하는 빠당 음식
- Bakmi GM(TEL 515-2693): 인도네시아의 인기 국수 체인점

자. 관공서 관행

아직도 매우 낙후된 행정처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료적인 성향이 강하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 보다는 권리 의식이 강하여 소위 말하는 꾀발을 부리려는 경우가 많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관행화되어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업무에 대해 상급자에 게 요청을 해도 실무담당자선에서 해결이 안된 경우가 많다. 자신의 업무이지 상급자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이다.

또한 이권부서에서는 비리가 공공연하게 성행되고 있어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기업활동 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커미션을 항상 10~20% 사전에 계산해 두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정도이다. 해외 투자자들이나, 국제기구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부패문제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취임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부정 부패 척결을 정책의 중심 과제로 삼고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5년 5월에는 부패방지위원회와는 별도로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범죄척결 팀을 구성하였다. 부패범죄척결 팀은 검찰총장, 경찰 청장, 재정개발감독청장 등 3인의 고문과 4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패관련 조사와 수사를 하여 매 3개월마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가 국가의 최대의 적이라는 인식하에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이 같은 조치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세관 관리들이 수입 화물의 전수 검사를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킨다거나, 인허가 관련 관리들이 위험도가 높아 졌다는 이유로 전보다 고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실제 일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신정부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한 지 2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부패가 줄었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 에 소재한 국제 투명성기구가 2007년 10월 27일에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0점 만점에 2.3점을 획득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43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보다 13단계 후퇴한 기록이며, 지수도 0.1포인트 하락하였다. 아시아 32개국에서도 25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 보다 더 부패한 아시아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등으로 났다.

하지만 2005년 이후 국영은행인 Mandiri 은행 총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체주 주지사, BKPM청장, 사법위원회 의원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혐의로 구속되는 등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는 보여지고 있다. 부패 척결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일시적이 아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반 공무원 급여를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해 공무원 처우를 대폭 개선하면서, 부정부패 단속을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차. 공휴일

2009년에는 1월 2일, 이슬람 최대명절인 르바란전후의 2일(9월 18일, 23일), 12월 24일 등 총 4일이 단체휴가일로 지정되어 있다

1) 2009 년 공휴일

- 1월 01일(목) : New Year's Day
- 1월 26일(월) : Chinese New Year(구정)
- 3월 09일(월) : Birth of Prophet(마호메트 탄신일)
- 3월 26일(목) : Hari Raya Nyepi (힌두교 신년)
- 4월 10일(금) : Good Friday
- 5월 09일(토) : Waisak Day(석가탄신일)
- 5월 21일(목) : 예수 승천일
- 7월 20일(월) : 마호메트 승천일
- 8월 17일(월) :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 9월 21일(월), 22일(화) : 르바란 휴일 (실제 9월 18일 ~ 9월 23일)
- 11월 27일(월) : Idul Adah
- 12월 18일(금) : Islamic New Year(회교 신년)
- 12월 25일(목) : Christmas Day

2) 참고사항

인도네시아 정부는 명절과 주말 사이에 낀 샌드위치 데이는 단체휴가일로 정하여, 공휴일은 아니지만 연가에서 공제하고 단체로 휴가를 주도록 권하고 있다. 공무원은 모두 휴무하며, 회사들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를 수락, 대부분 휴가를 주고 있다.

또한 라마단 금식기간이 끝나는 르바란 휴일은 공식적으로 2일이나 정부는 르바란 전 1일, 후 2일에 집단 휴가를 주도록 권하고 있다. 이 또한 발리 폭탄테러 이후 생긴 것으로 관광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르바란 휴일 2일, 집단 휴가 3일에 토, 일요일까지 더하면 통상 8~9일의 휴가 기간이 된다. 이때는 우리의 설날처럼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 자카르타 시내가 텅텅 비게 된다.

2009년 르바란 휴일은 9월 21일(월), 22일(화)이지만 정부권장휴가사용일(Cuti Bersama)이 9월 18일(금)과 9월 23일(수)이 되니, 이 기간 중에는 비즈니스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라마단 기간은 보통 매년 10일씩 앞당겨진다.

카. 여행시 유의사항

인도네시아인은 대부분 회교도들로서 왼손을 불결하게 여기기 때문에 악수, 물건 수수 등 타인과 접촉할 때 오른손을 사용하고, 머리를 만지는 것을 싫어하며 술에 취하는 것은 불손한 행위로 여긴다.

특히 작은 현지식당에 갔다가 화장실에 불일을 보러 들어갈 경우, 화장지 없이 받아놓은 수돗물로 뒤통리를 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휴지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 왼손으로 화장지 없이 뒤통리를 하고 물로 씻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식사나 악수에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면도 있다.

수돗물은 식수로 사용 불가하므로 음료수는 AQUA, ADES, OASIS 등 상표의 밀봉된 것을 마시고 식당에서 음료수에 얼음을 타 마시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식당에서는 'WATER'라고 말하는 것보다 'AQUA'라고 부르는 것을 쉽게 알아 듣는다. 원래 AQUA는 브랜드 명이지만 이제는 거의 생수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

장이 약한 사람은 현지식당에서 날 채소를 먹는 것도 금하는 것이 좋다. 깨끗하지 않은 물로 채소를 씻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열대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추워서 감기에 걸리는 여행객들이 많다. 호텔 방이나 사무실의 에어컨이 너무 세서 냉방병에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방에서 취침할 시는 자기 전에 온도를 조정해 놓거나 에어컨을 끄는 것이 좋다.

여성의 미모나 치장에 대한 언급을 삼가야 하고, 대낮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노상 절도 혹은 소매치기가 간혹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저녁에 홀로 외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압은 220V 이므로 휴대 전기용품 사용시 주의하고 봉사료의 경우, 공항 또는 호텔의 포터에게는 짐 1개당 5,000루피아 정도 팁을 지불해야 하니 사전에 잔돈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 Bill에는 대개 10%의 봉사료가 포함되므로 별도 팁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식당에 따라서는 Bill에 'No Service Charge'라고 적혀 나오는 수가 있는데, 이는 팁을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팁이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 10% 미만의 팁을 주는 것이 좋다.

인도네시아 방문기념으로 현지식당(유명식당 제외)에서 인도네시아 음식을 맛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식당은 비위생적인 곳이 많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조류독감 다발지역으로 자카르타에서 여러 명이 사망하였으니 개인 위생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조류독감은 열이 많이 나고 호흡에 곤란을 겪는 증세를 보이니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간다. 또한 뎅기열도 인도네시아의 풍토병이라고 할 수 있으니 가급적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카르타 시내는 교통 혼잡이 심하여 시간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시간 약속이 있는 경우 충분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중에서도 우리의 모범택시에 해당하는 검정색 대형 Silver Bird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택시 요금은 비싸지 않아 자카르타 시내에서 1시간을 타도 미화로 10달러를 넘지 않는다.

대중교통으로 버스가 비교적 많이 있으나, 요금이 2,500루피아인 도시 고속버스 Trans Jakarta나 3,500루피아인 버스웨이 버스 정도만 외국인이 탈 수 있고 나머지 시내 버스는 매우 혼잡하고, 낡고, 소매치기도 많아 외국인이 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타. 유용한 연락처

-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 주소: JL GATOT SUBROTO NO.57, JAKARTA, INDONESIA
 - 전화: 520-1915
 - 대사: 이선진
- KOTRA 자카르타 KBC
 - 주소: Suite 2102,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Jakarta
 - 전화: 574-1522
 - 팩스: 572-2187, 572-2204
 - 센터장: 김병권
- 수출보험공사
 - 주소: Suite 2104,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Jakarta
 - 전화: 570-5565
 - 팩스: 574-1470
 - 소장: 김은성
- 석유 공사
 - 주소: 17th Floor, Gedung BRI II, JL. Jendral Sudirman No. 44-46,Jakarta
 - 전화: 5793-2517
 - 팩스: 5793-2519
 - 지사장: 권흥삼
- KOICA
 - 주소: JL GATOT SUBROTO NO.57, JAKARTA, INDONESIA
 - 전화: 522-7771
 - FAX : 525-4735
 - 소장: 이중선
- 외환은행
 - 주소: 12TH FL 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Jakarta
 - 전화: 574-1030
 - FAX : 570-7189
 - 은행장: 조종수
- 수출입은행
 - 주소: Menara Mulia 2007, JL. Gatot Subroto Kav. 9-11,Jakarta
 - 전화: 525-7261
 - FAX : 525-7260
 - 은행장: 신재용

- 우리은행
 - 주소: BRI II BLDG., 11TH FL., JL.Jendral Sudirman, JAKARTA
 - 전화: 571-3366/8
 - FAX: 571-3369
 - 은행장: 이민재

- 대한항공
 - 주소: 7TH WISMA BANK DHARMALA, JL.Jendral Sudirman KAV.28, JAKARTA
 - 전화: 521- 2180
 - FAX: 521-2179
 - 지점장: 김창모

- 기타 인도네시아내 주요 연락처
 - 대사관 당직전화: 0811-852-446
 - 국제전화 신청: 101, 104
 - 시내전화 안내: 108
 - 경찰(일반범죄): 110
 - 서울직통전화: 001-82-2-전화번호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2515
 - 한국병원: 5296-1522/24
 - 서울 메디칼 센터: 799-1333
 - 뉴월드 메디칼 클리닉: 7279-3809
 - 한국 국제학교: 844-4961
 - 블루버드택시 호출: 794-1234

- 주요 호텔 연락처
 - Hyatt: 390-1234
 - Hilton Hotel: 573-8011, 570-3600
 - Hotel Mulia Senayan: 574-7777
 - Sahid Jaya Hotel: 570-4444
 - Mandarin Hotel: 314-1407
 - Hotel Inter continental Midplaza: 251-0888
 - Hotel Shangrila: 570-7440
 - Marriott Hotel: 5798-8888

파. 기타 유용한 정보

1) 주요 쇼핑센터

자카르타 시내의 주요 쇼핑센터로는 최고급 쇼핑로로 자카르타 남부 스나얀 지역에 소재한 인 플라자스나얀이나 스나얀시티 쇼핑몰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에 필적할 만한 고급 쇼핑몰로 자카르타 남부 뽀독인다 지역의 뽀독인다 쇼핑몰이 있다.

이들 쇼핑몰에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특판매장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어 어느 국제도시에 뒤지지 않은 고급 쇼핑몰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출장자들이나 방문객들이 주로 찾는 쇼핑몰은 자카르타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블록옴 지역의 ‘빠사라야’백화점과 자카르타 지역의 세종로라 할 수 있는 탐린 지역의 ‘사리나’ 백화점을 들 수 있다.

이 두 백화점은 관광객들이 기념품이나 선물로 많이 찾는 전통 공예품과 플로 셔츠 그리고 전통 의상인 바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쇼핑몰이다.

2) 특산물

인도네시아의 특산물로는 의류로는 전통 정장인 바틱이 대표적이며, 공예품으로는 목공예품이나 은세공품, 우각(소뿔) 조각 등이 유명하며, 보석으로는 남양 진주와 은제품이 좋다.

또한 현지에서 즐기기에 다양한 과일류(과일의 왕 두리안, 과일의 여왕 망기스 등)와 현지 음식으로 닭, 소, 염소 꼬치구이가 한국사람들에게 인기이다.

하. 관광 명소

1) 독립기념탑(MONAS)

자카르타 중심부 띠린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탑은 독립기념광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방형의 음을 나타내는 대(臺)위에 양을 나타내는 탑을 조화시킨 건축물이다.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이 탑의 높이는 137m이며, 탑의 꼭대기는 불꽃 모양의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다. 이 황금불꽃은 1995년에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금된 금의 양을 34KG에서 50KG으로 증축하였다.

탑의 상층부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내부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볼 수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다를 볼 수도 있다. 탑의 하층부 지하에는 역사이전의 시대부터 인도네시아 고대왕국, 네덜란드와 일본의 지배, 독립 과정까지의 과정이 파노라마식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그 윗층에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과 하타부통령이 선언했던 독립선언문이 소장되어 있고 선언 당시 음성도 직접 들을 수 있다. 관람시간은 08:30~1700이다.

2) 독립광장(MERDEKA SQUARE)

독립기념탑을 중심으로 워싱턴 광장을 표본으로 만들어진 이 광장은 방사선 상으로 뻗어 있으며, 푸른 잔디와 나무들로 어우러진 자카르타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이들,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곳은 무료 공원이며 사진 찍기도 좋은 장소여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3) 대통령궁(ISTANA PRESIDENT)

1942년까지 화란 총독에 의해 사용되다 독립 후 대통령의 공관으로 사용되었던 이 궁은 네덜란드 지배 당시 총독부의 궁전이었으나 지금은 외국에서 오는 국빈을 대접하는 파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독립기념일인 8월17일에는 궁전 앞 뜰에서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 건물은 전체가 흰색으로 되어 있으며, 밤이 되면 건물에 불이 밝혀져 한층 더 아름답게 보인다.

4) 회교사원(Masjid ISTIQLAL)

이슬람 교도들이 90%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느 곳을 가나 회교사원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사원이 바로 이곳이다. 아시아권 최대의 사원이며 전 세계적으로 3번째로 큰 곳이다.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1961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1978년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에 완성된 거대한 사원으로서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 기존구조로는 거대한 여러 개의 큰 기둥을 비롯해서 회교사원의 기본양식인 둥근 탑과 뾰족한 철탁도 가지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경에는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합동 예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매년 이슬람의 최대 행사인 르바란에는 대통령도 이곳에서 예배를 본다.

5) 국립박물관(MUSEUM PUSAT)

이 박물관은 1862년 네덜란드 식민지시대에 착공하여 1967년에 완공되었다. 그 당시에는 'BATAVIAACSH GENOOTSCHAP VAN KJNSTEN EN WETENSCHAPPEN'(인도네시아 문화를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거주 네덜란드인의 모임) 이라고 불렸다. 독립 후 1979년 5.28일 “인도네시아 국립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시품목도 더욱 다양하게 보충하였다. 이 박물관의 주요 전시내용은 선사시대 도구 '피테칸트로프스 에렉투스(자바원인)'의 두개골을 비롯하여 돌도끼, 토기, 동물의 뼈, 가죽으로 만든 연장 등 고고학적 발굴품, 고대 화폐, 역사적 물품, 각 지방문화 물품, 각종 미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시간은 화, 수, 목, 일요일 08:30~14:30까지, 금요일은 08:30~11:30까지, 토요일은 08:30~13:30까지이고 월요일은 휴관이다.

6) 안졸 유원지(ANCOL)

1967년에 완성된 총면적 552Ha의 대규모 종합유원지로서 정식 명칭은 (TAMAN IMPIAN JAYA ANCOL)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즐길 수 있도록 골프장, 요트장, 볼링장, 수영장 등의 스포츠 시설과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노래방, 마사지실 등의 성인 오락 시설과 수족관, 놀이동산 등의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유원지이다. 해안을 끼고 있는 이 유원지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자카르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7) 따만미니 인도네시아

흔히 '따만미니'로 불리우는 이곳 민속촌의 정확한 명칭은 'TAMAN MINI INDONESIA INDAH'이다. 번역하면 '아름다운 인도네시아의 작은 공원'이 된다. 이 공원은 1970년대 초 수하르토 대통령의 부인인 이부 틴 수하르토 여사의 제안으로 건설이 시작되었다. 특별한 관광 명소가 없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각광 받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이 곳은 모든 자카르타 방문객들의 필수코스도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 초중고 학생들이 한번은 꼭 오게 되는 견학코스도 유명하다. '여기에 오면 인도네시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100Ha를 넘 는 넓은 공간 내에 인도네시아 27개 주 각 지방의 문화 및 주거, 의상 등을 전체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해놓았다. 또 공원 중앙에는 큰 인공호수가 있으며, 그 안에는 인도네시아의 지도 모양을 한 인공 섬들이 지도처럼 꾸며져 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곳을 관람하게 되면, 인도네시아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관람시간은 09:00~17:00까지 이고 월요일은 휴관이다.

8) 수하르토 박물관(Purna Bhakti Pertiwi)

수하르토 대통령 재직시절 국내외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오랜 기간 동안 큰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으로서 상아제품, 도자기, 공예품 등 수천점의 진귀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 한번 볼 만하다. 특히 따만미니 인도네시아와 바로 붙어 있어 따만 미니와 함께 관람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그리고 박물관 현관에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출생부터 대통령시절 업적까지 일대기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목판에 조각하여 전시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역사를 아는데도 도움이 된다. 따만미니 바로 옆에 있다. 관람 시간은 09:00~17:00까지 이고 월요일은 휴관이다.

9) 보고르 식물원(Kebun Bayar Bogor)

자카르타에서 약 60km 거리에 위치하며 87ha의 공원 안에 인도네시아와 세계 각지의 희귀 식물 1만 5,000여 종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 시간은 08:00~17:00까지이다.

10) 따만 사파리(Taman Safari)

뽀짝 산 기슭에 위치한 자동차를 타고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동물원이며, 외부에는 별도의 어린이 동물원과 놀이공원이 소재해 있다. 그러나 휴일에는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니 주의해야 한다. 관람시간은 평일 09:00~17:00, 휴일 08:30~17:30이다.

11) 반둥 화산 및 온천

해발 2,096m 높이에 거대한 분화구가 있는 서부자바 최대의 화산이 있으며, 산기슭에 노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레저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자카르타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소요된다.

12) 족자카르타(Yogyakarta)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고도(古都)이다. 한국의 경주에 비교되는 곳으로 많은 불교사원과 힌두사원들이 혼재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원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불교사원인 보르부드르 사원과 가장 아름다운 힌두사원이라는 뽀람 바난 사원을 들 수 있다. 또 족자카르타는 아직도 왕(Sultan)이 있는 곳으로 왕이 주지사를 맡고 있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의 전통 직물인 바틱공장과 은세공품 가공공장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자카르타에서 아침에 가서 오후 늦게 돌아오는 당일치기 관광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6년 5월 족자카르타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뽀람바난 사원 일부가 훼손되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인근의 활화산인 머라피가 6월까지 분출위험이 높았으나 최근에 위험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화산관광을 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자카르타의 두 개의 큰 전시장에서 대부분의 유명전시회가 열린다. 인도네시아의 전시 산업이 선진국처럼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몇 전시회는 상당히 큰 규모로 해외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2009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 전시회 일정

NO	EVENT TITLE / • ORGANIZER	DATE OF EVENT	ROOM
1	Jakarta Furniture & Interior • Misty Total Media, PT.	18 Jul 2009 – 26 Jul 2009	Exhibition Hall A + B
2	Made in Thailand 2009 • Royal Thai Embassy	23 Jul 2009 – 26 Jul 2009	Cendrawasih Room 1/1
3	The 6th Jakarta Wedding Festival • Kerabat Dyan Utama, PT. (RADYATAMA)	24 Jul 2009 – 26 Jul 2009	Assembly Hall 1,2,3
4	Japan Education Expo •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JASSO-JKT)	25 Jul 2009 – 26 Jul 2009	Merak Room 1,2,3
5	Forum Grafika Digital • Dyandra Promosindo, PT	31 Jul 2009 – 2 Aug 2009	Exhibition Hall A + B
6	International Education Expo 2009 • Ikatan Konsultan Pendidikan Internasional Indonesia (IKPII)	1 Aug 2009 – 2 Aug 2009	Merak Room 1,2,3
7	APOCGE & APHSE 2009 •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4 Aug 2009 – 6 Aug 2009	Assembly Hall 1,2,3 Plenary Hall (Grd Flr)
8	Pangan Nusa 2009 • Pusat Dagang Kecil & Menengah, Departemen Perdagangan	6 Aug 2009 – 9 Aug 2009	Exhibition Hall B
9	Amway Indonesia Expo • Amway Indonesia, PT	8 Aug 2009 – 9 Aug 2009	Assembly Hall 1,2,3
10	Jakarta Property Expo • Rumah Promosi Indonesia, PT	8 Aug 2009 – 16 Aug 2009	Exhibition Hall A
11	Gelar Karya Pemberdayaan • Persada Multi Cendekia, PT	14 Aug 2009 – 16 Aug 2009	Exhibition Hall B
12	HIMPI Expo • Mediatama Binakreasi, PT	14 Aug 2009 – 16 Aug 2009	Assembly Hall 1,2,3
13	Indonesia Expo • Debindo Multi Adhiswasti, PT	19 Aug 2009 – 23 Aug 2009	Exhibition Hall A + B
14	Indonesia Fair for Investment Trade & Tourism 2009 • Antheus Indo Ad-Pro, PT	21 Aug 2009 – 23 Aug 2009	Assembly Hall 1,2,3
15	Gelar Batik Nusantara 2009 • Mediatama Binakreasi, PT	28 Aug 2009 – 30 Aug 2009	Assembly Hall 1,2,3 Cendrawasih Room 1/1
16	Jakarta International Furniture • Rumah Promosi Indonesia, PT	29 Aug 2009 – 6 Sep 2009	Exhibition Hall A + B
17	Lebaran Fair 2009 • Debindo Multi Adhiswasti, PT	11 Sep 2009 – 13 Sep 2009	Exhibition Hall A + B
18	Indonesia Maritim Expo 2009 • Panorama Convex	2 Oct 2009 – 4 Oct 2009	Assembly Hall 1,2,3
19	Indonesia Tourism & Travel Fair 2009 • Panorama Convex	2 Oct 2009 – 4 Oct 2009	Exhibition Hall A + B
20	Asian Gas Exhibition • dmg World Media	5 Oct 2009 – 10 Oct 2009	Plenary Hall (whole)
21	Indonesia Ornamental Fish Show • Wahyu Promo Citra, PT	9 Oct 2009 – 11 Oct 2009	Assembly Hall 1,2,3
22	The 13th Indonesia Furniture Show • Debindo Multi Adhiswasti, PT	10 Oct 2009 – 18 Oct 2009	Exhibition Hall A + B

NO	EVENT TITLE / • ORGANIZER	DATE OF EVENT	ROOM
23	KPPIKG (Kursus Penyegar & Penambah Ilmu Kedokteran Gigi) • Fakultas Kedokteran Gigi, University of Indonesia	14 Oct 2009 – 17 Oct 2009	Merak Room 1,2,3
24	Cosmobeaute Indonesia • Prakarsa Sinergi Utama, PT	22 Oct 2009 – 24 Oct 2009	Cendrawasih Room 1/1
25	Kesetiakawanan Sosial Nasional Expo • Proexco Adji Intercon, PT	22 Oct 2009 – 25 Oct 2009	Exhibition Hall B
26	The 22nd Real Estate Expo 2009 • Debindo Multi Adhiswasti, PT	24 Oct 2009 – 1 Nov 2009	Exhibition Hall A
27	WIC Annual Charity Bazaar • Women's International Club (WIC)	28 Oct 2009 – 29 Oct 2009	Exhibition Hall B
28	Hospital Expo 2009 • Okta Sejahtera Insani, PT	28 Oct 2009 – 31 Oct 2009	Assembly Hall 1,2,3 Main Lobby Plenary Hall (Grd Flr)
29	Djarum Black Automodified • HNR Promosindo, PT	30 Oct 2009 – 1 Nov 2009	Exhibition Hall B
30	INDOCOMTECH 2009 • Dyandra Promosindo, PT	4 Nov 2009 – 8 Nov 2009	Cendrawasih Room 1/1 Exhibition Hall A + B
31	Indonesia Book Fair 2009 • Dyandra Promosindo, PT	4 Nov 2009 – 8 Nov 2009	Assembly Hall 1,2,3 Main Lobby Plenary Hall (Grd Flr)
32	Oil 7 Fats International Asia Exhibition 2009 • dmg World Media	11 Nov 2009 – 13 Nov 2009	Merak Room 1,2,3
33	Franchise & Business Concept • Panorama Convex	13 Nov 2009 – 15 Nov 2009	Assembly Hall 1,2,3
34	Indonesia Furniture Fair • Mediatama Binakreasi, PT	14 Nov 2009 – 22 Nov 2009	Exhibition Hall A + B
35	Resources of Indonesian Craft Expo • Mediatama Binakreasi, PT	18 Nov 2009 – 22 Nov 2009	Cendrawasih Room 1/1
36	Indonesia Toys Expo 2009 • Panorama Convex	21 Nov 2009 – 22 Nov 2009	Assembly Hall 1,2,3
37	The 5th Wedding Celebration Festival 2009 • Kerabat Dyan Utama, PT. (RADYATAMA)	27 Nov 2009 – 29 Nov 2009	Assembly Hall 1,2,3
38	The 5th Jakarta Motor Show & Jakarta Motorcycle Show • Dyandra Promosindo, PT	28 Nov 2009 – 6 Dec 2009	Exhibition Hall A + B
39	Total Fashion 2009 • Mediatama Binakreasi, PT	2 Dec 2009 – 6 Dec 2009	Assembly Hall 1,2,3
40	Property Expo 2009 • Misty Total Media, PT.	7 Dec 2009 – 20 Dec 2009	Exhibition Hall A
41	Mutumanikam Nusantara • Mutumanikam Nusantara Indonesia	10 Dec 2009 – 13 Dec 2009	Exhibition Hall B
42	ICT Expo 2009 • ECMI Services, PT (Exhibition & Convention Management International)	16 Dec 2009 – 18 Dec 2009	Assembly Hall 1,2,3

2009 년 Jakarta Int'l Expo (꼬마요란 엑스포) 전시회 일정

NO	EVENT TITLE / • ORGANIZER	DATE OF EVENT	ROOM
1	The 17 th Indonesia Int'l Motor Show • PT. Dyandra Promosindo	24 Jul 2009 – 2 Aug 2009	A1-A3, B1-B2, C1-C2, D1-D2, OS
2	Interfood Indonesia 2009 •PT. Kristamedia Pratama	8 Aug 2009 – 11 Aug 2009	B1-B2, C1-C2
3	MTT(Machine Tools & Technology) •PT. Ecmi Services	11 Aug 2009 – 14 Aug 2009	A1-A3
4	Indoplas, Indopack, Indoprint •PT. Wakeni Kemalaniaga Makmur	12 Aug 2009 – 15 Aug 2009	D2
5	Energy Indonesia 2009: Building & Construction Indonesia, Electric Indonesia, Mining Indonesia, Oil & Gas Indonesia •PT. Pamerindo Buana Abadi	14 Oct 2009 – 17 Oct 2009	A1-A3, B1-B2, C1-C2, D1-D2, OS
6	The 24 th Trade Expo Indonesia •BPEN Indonesia(NAFED)	28 Oct 2009 – 1 Nov 2009	A1-A3, B1-B2, C1-C2, D1-D2, OS
7	All Print & Paper, Allpack, Digital & Media Sign Expo, Interpharma, Allplas Indonesia 2009 •PT. Kristamedia Pratama	11 Nov 2009 – 14 Nov 2009	A1-A3, B1-B2, C1-C2, D1-D2
8	Jakarta Audio Pro Expo 2009 •Konsorsium JIExpo – Audiopro	19 Nov 2009 – 22 Nov 2009	B1-B2, C1
9	Manufacturing Indonesia Series Plastics & Rubber Indonesia, Propak Indonesia, Printing Indonesia •PT. Pamerindo Buana Abadi	2 Dec 2009 – 5 Dec 2009	A1-A3, B1-B2, C1-C2, D1-D2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Supreme State Institutions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www.mpr.go.id/
House of Representative	www.dpr.go.id
Board of The Region Representative	www.dpd.go.id
Supreme Audit Board	www.bpk.go.id
Supreme Court	www.mahkamahagung.go.id
Constitution Court	www.mahkamahkonstitusi.go.id/
Corruption Erradicate Comission	www.kpk.go.id/
Judicial Comission	www.komisiyudisial.go.id
Coordinating ministers	
Coordinating Minister for Legal, Political dan Security Affairs	www.polkam.go.id
Coordinating Minister for the Economy	www.ekon.go.id/
Coordinating Minister for People's Welfare	www.menkokesra.go.id
Departmental ministers	
Minister of Home Affairs	www.depdagri.go.i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ww.deplu.go.id
Minister of Defense	www.dephan.go.id

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	www.depkmham.go.id
Minister of Finance	www.depkeu.go.id
Minister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www.esdm.go.id
Minister of Industry	www.depperin.go.id
Minister of Trade	www.depdag.go.id
Minister of Agriculture	www.deptan.go.id
Minister of Forestry	www.dephut.go.id
Minister of Transportation	www.dephub.go.id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ww.dkp.go.id
Minister of Labor and Transmigration	www.nakertrans.go.id/
Minister of Public Works	www.pu.go.id
Minister of Health	www.depkes.go.id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	www.depdiknas.go.id
Minister of Social Services	www.depsos.go.id
Minister of Religious Affairs	www.depag.go.id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ww.depkominfo.go.id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www.budpar.go.id
Non Departemental Government Institutions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ww.lan.go.id
National Archives	www.ica.org
The National Civil Service Agency	www.bkn.go.id
National Library	www.digilib.pnri.go.id
Central Agency of Statistics	www.bps.go.id
Agency for National Standardization	www.bsn.or.id
Agency for Nuclear Energy Control	www.bapeten.go.id
Agency for National Nuclear Energy	www.batan.go.id
State Secrets Institute	
Agency for National Family Planning Coordinating	www.bkkbn.go.id
The Institute of National Space and Aviation	www.lapan.go.id/
Agency for Coordination of Survey and National Mapping	www.bakosurtanal.go.id
Finance Supervision and Development Board	www.bpkp.go.id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www.lipi.go.id
Financial Capital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www.bkpm.go.id
Agency for National Land Affairs	www.bpn.go.id/
Agency for Control of Medicine and Food	www.pom.go.id/
National Endurance Institution	www.lemhannas.go.id
National Defence Council	www.pom.go.id/
State Ministry	
State Minister for Research and Technology	www.ristek.go.id
State Minister for Cooperativ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ww.depkop.go.id
Stat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www.menlh.go.id
State Minister for Women Empowerment	www.menegpp.go.id
State Minister for Making Efficient Use of the State Apparatus	www.menpan.go.id
State Minister for Development Acceleration of Left Behind Regional	www.kemenegpdt.go.id
State Minister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www.bappenas.go.id
State Minister for Agency of State	www.bumn-ri.com
State Minister for People Housing	www.kemenpera.go.id
State Minister for Youth and Sports Affairs	www.kemenegpora.go.id